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호 7월 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 7 호 (152)

1958년 7월 15일

내 용

우리 당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적 전통

김 시 중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인민들은 반드시 일정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 사회 력사적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왜냐 하면 새 세대의 인민들은 반드시 선행 세대가 남긴 이러저러한 물질적 및 정신적 유산들을 불가피적으로 계승하면서 사회 생활에 들어 서는바 이러한 계승 과정에서 일정한 전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전통 계승의 불가피성을 말할 때 그것은 온갖 전통들이 고정 불변의 것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전통에는 좋은 것, 긍정적인 것, 진보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 부정적인 것, 반동적인 것도 있다. 사회 발전의 행정에서 부정적이며 반동적인 《전통》은 조만간 극복 청산되며, 긍정적이며 진보적인 전통들은 이런저런 굴곡이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계승 발전된다. 그리고 인민 대중의 창조적 활동과 혁명 투쟁에 의하여 새로운 전통들이 부단히 축성된다.

전통에 대한 각 계급들의 태도는 상이하다. 반동 계급들은 반동적인 《전통》들을 보존하려고 발악한다. 반대로 진보적 계급들은 반동적인 《전통》들을 극복 청산하기 위하여 그리고 긍정적인 전통들을 계승 발전시키며 새로운 진보적인 전통들을 축성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로동 계급은 오랜 력사를 두고 내려 오는 모든 반동적 《전통》들을 극복 청산하며 온갖 긍정적, 진보적 전통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히 과거의 어느 계급도 창조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전통들을 창조하기 위하여 가장 철저히 투쟁한다. 로동 계급은 새로운 전통의 가장 위대한 창조자이다.

이것은 로동 계급의 계급적 립장과 그의 력사적 사명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 요구이다. 로동 계급은 그의 위대한 력사적 사명인 자본주의의 전복과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적 소유제와 착취 제도에 기초하는 모든 전통들과 온갖 사상들을 파괴 청산해야 하며 새로운 공산주의적 전통들을 창조해야 한다.

전통이라 할 때 그것은 매우 광범한 내용을 포함한다. 물질적 생활에서나, 정신적 생활에서나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통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모든 전통들 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전통은 혁명적 전통 즉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이루어진 전통이다.

* *

우리 당은, 조선 인민이 일제를 비롯한 내외의 원쑤들과의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 속에서 이루어 놓은 가장 빛나는 혁명적 전통들을 계승하고 있다.

우리 당 규약 제 1조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조선 로동당은 우리 나라의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위하여 일본 및 기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한 조선 인민의 혁명적 전통의 계승자다》.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우리 당은 과거로부터 축성되여 온 온갖 전통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태도를 취할 수 없으며 계급적 견지에서 모든 전통들을 평가

하고 비판적으로 섭취 계승한다.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인 우리 당은 우선 조선 로동 계급이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이룩한 혁명적 전통에 의거하며 그를 계승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반드시 강조해야 할 것은 혁명적 전통에 대한 평가와 그의 옳바른 계승을 위한 노력은 결코 추상적이며 일반적 성격을 띨 수 없고 구체적이며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다 할 때 항상 주요한 것은 과거에 혁명 투쟁의 불'길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즉 로동 계급과 그의 동맹자들의 혁명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였고 가장 풍부한 투쟁 경험들을 축적한 그러한 시기에 이룩해진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는 문제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시기의 혁명 투쟁은 선행한 혁명 투쟁들에서 이루어졌던 긍정적인 전통들을 모두 계승한 토대 우에서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축성된 혁명적 전통은 일정한 력사적 단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혁명적 전통들의 중심을 이루며 집대성을 이루기 때문이다.

주지되여 있는 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혁명적 전통의 계승의 의의를 교시하면서 항상 어느 특정한 시기의 혁명 투쟁의 전통을 전면에 두드러지게 내놓았다. 맑스는 1848년 혁명과 파리 콤뮨 시기에 축성한 혁명적 전통을 계승할 것을 특히 강조하였다. 레닌은 짜리와 지주, 부르죠아지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 시기에는 1905년 혁명의 전통을 계승하고 살려야 한다는 것을 재삼 강조하였고 10월 혁명후에는 10월 혁명의 위대한 전통을 고수 발양시킬 것을 가르치였다.

우리는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적 전통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평면적으로 리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혁명적 전통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또는 평면적으로 대하는 태도 특히 이것도 계승하고 저것도 계승하고 모든 것을 계승했다는 식의 태도는 사실상 혁명적 전통을 실천적으로 계승하지 않는 태도이며 당의 혁명적 전통의 기본 내용을 모호화하는 태도이며 더 나아가서는 가장 고귀한 혁명적 전통을 모독하는 태도이다.

우리 당이 계승한 혁명적 전통의 기본 내용을 이루는 것은 물론 1930년대 이후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과 그리고 이와 결합되여 진행된 모든 형태의 투쟁에 의하여 축성된 빛나는 혁명적 전통이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지도하면서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선행 과정과 전통에 기초하여 우리 당이 창건되였고 이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계승 발양시키면서 당은 우리 나라 혁명을 성과적으로 지도하여 왔다.

그러면 이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이룩한 영웅적 투쟁이 어떠한 력사적 발전의 산물로서 발생하였으며 이 혁명적 전통의 주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 *

조선 인민은 오랜 력사 과정에서 특히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수한 애국주의 전통을 축성하였다.

을지 문덕, 강 감찬, 리 순신 장군들과 기타 애국자들은 인민 대중과 더불어 외국 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우리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훈을 남기였다.

우리 나라에서 일찍부터 낡은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이 진행되였다. 고려 시대에도, 리조 시대에도 농민들의 폭동과 봉기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리고 실학파들의 견해에는 부패한 봉건 통치 제도를 반대하며 혁신을 요구하는 사상 요소들이 내포되여 있었다. 김 옥균을 비롯한 《개화파》 인물들은 매우 많은 제한성들을 가졌으나 봉건 제도를 혁신해 보려고 투쟁하였다.

일제의 조선 강점을 전후하여 진행된 각종 반일 투쟁들과 3. 1 봉기 기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조선 인민 대중은 완강한 애국주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 서면서 민족 해방 운동은 맑스—레닌주의의 기치하에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 서게 되였다.

위대한 10월 혁명의 영향하에 우리 나라에는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1920년대 초부터 산업 중심지들의 선진 로동자들과 농민들, 인테리, 학생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소조들이 발생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최초의 맑스—레닌주의 소조들은 주로 사회 과학 연구회, 사상 연구회, 독서회 등등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많은 지방들에서 로동자 단체, 농민 단체들의 핵심을 이루었던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선전하며 대중 운동을 지도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결과 서울, 평양, 부산, 인천, 원산, 함흥 기타 도시들과 쏘련에 린접한 지대들 그리고 중요 곡물 지대들에서도 맑스—레닌주의 기본 원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 갔다. 《일제의 가혹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은 우리 나라 각지에 광범히 전파되여 로동자, 농민, 선진적 인테리들의 계급적 의식을 각성시켰다》(김 일성, 《위대한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 있다》). 이리하여 맑스—레닌주의의 기치하에 로동 운동, 농민 운동이 급속히 장성되였으며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보급의 영향하에 로동 단체들도 발생 발전하였으며 전국적 성질을 가진 로동 단체들도 출현하였다. 그런데 그의 지도부에는 각종 기회주의자들, 종파 분자들이 들어 앉게 되였고 그들은 타협주의적, 개량주의적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많은 하부 조직들과 개별적인 지방적 로동 단체들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로동 운동, 농민 운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고 로동 운동이 장성되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이 활발화되는 환경 속에서 1925년에 조선 공산당이 창건되였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의 당으로서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려고 하였으며 국제적으로는 제 3 국제 공산당과 련결되여 있었다.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은 위대한 10월 사회주의 혁명의 영향하에 급속히 장성 발전하는 우리 나라 로동 운동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로동자들의 계급적 각성을 촉진시켰으며 로동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당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하면서 그들의 투지를 고무시켰다.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며 반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주지되여 있는 바와 같이 6. 10 만세 운동은 공산당의 지도하에 진행되였다.

그러나 1925년에 창건되였던 공산당은 자체 내에 심중한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당은 그의 지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소부르죠아 인테리들의 동요성과 종파 행동으로 인하여 인민 대중을 진정으로 볼쉐위크적으로 지도하지 못하였으며 자체가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인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기초 우에 서 있지 못하였다. 결국 공산당은 종파 분자들의 책동과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1928년에 해산되는 데 이르렀다. 이리하여 1925년에 창건되였던 공산당은 우리 당의 진정한 력사를 이루어 놓지 못하였다. 공산주의자들 앞에는 맑스—레닌주의로 확고히 무장한 당을 창건하기 위한 과업이 여전히 남아 있게 되였다.

1920년대에 로동자와 농민 대중은 투쟁에 있어서 적지 않은 경험들을 축적하였다. 맑스—레닌주의의 보급,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강화, 로동 단체들의 발전 등등과 함께 로동자와 농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급속히 장성되였다.

우리 나라 로동 운동은 로동 계급의 청소성과 량적 장성의 미약성, 공장, 기업소들의 규모의 령세성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매우 활발히 진행되였다. 특히 로동자들의 대부분이 일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하였기 때문에 순전히 경제적 요구 조건들을 제기하는 파업들도 대부분 경우에 정치적 성격을 띠였고 일제 경찰로부터 가해지는 각종 간섭과 탄압으로 말미암아 로동자들의 투쟁은 종종 경찰과의 충돌을 야기하였다.

로동자들의 파업의 조직성이 해마다 강화되였고 요구 조건들도 세련되여 갔다. 1925—1926년 시기부터는 파업들에서 8시간 로동제, 단체 계약권 등의 요구 조건들이 전면에 제기되였다.

산업 중심지들에서 일부 공장 또는 어떤 부문의 로동자들은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특히 서울의 인쇄 로동자들, 평양의 고무 공장 양말 공장 로동자들과 인쇄 공장 로동자들, 인천의 정미 로동자들, 부산의 방직 공장 로동자들과 인쇄 로동자들, 원산의 부두 로동자들은 계속적인 투쟁을 전개하면서 완강성을 발휘하였다.

10년 여의 투쟁에서 일정하게 단련되고 경험을 축적한 로동자들과 농민들은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에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혁명성과 전투성을 발휘하였다.

1929—1931년 3년 간에 일어난 파업수와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 수는 과거 6년 간에 일어난 전체 파업수와 파업에 참가한 로동자 수보다도 더 많았다.

이 시기에 로동자, 농민들의 투쟁의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화되였고 로동자들과 농민들의 투쟁적 련결이 매우 밀접히 되였다. 특히 이 시기의 로동자와 농민들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특징은 그들의 폭동적 진출이였다. 이것은 일정한 투쟁 경험을 쌓은 로동자와 농민들이 종래의 소극적인 투쟁보다 적극적이며 보다 결정적인 투쟁에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표시하는 것이였다. 로동자와 농민들의 이와 같이 앙양된 투쟁은 조선 공산주의자들 앞에 새로운 과업 즉 폭동적 진출에로까지 이행한 로동자와 농민들의 혁명성, 전투성에 의거하여 이에 조직성과 목적 의식성을 부여하며 우리 나라 혁명 투쟁을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올려 세울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수행되게 되였다.

이렇게 1920년대 말 1930년대 초의 로동자와 농민들의 투쟁의 거센 파도는 우리 나라 반일 민족 해방 투쟁에 있어서 주요한 의의를 가졌는바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업과 소작 쟁의를 주요한 투쟁 형태로 하고 있던 1920년대의 운동으로부터 가장 적극적인 정치 투쟁인 항일 무장 투쟁에로의 이행의 접촉점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의 모든 긍정적인 운동 특히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의 로동자, 농민들의 대중 운동은 1930년대에 실현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력사적 전제 조건을 이루어 놓았다.

그러나 동시에 상술한 데서도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1920년대 운동에는 적지 않은 제한성들과 결함들, 부정적인 것들이 내포되여 있었다.

당시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게 맑스—레닌주의적 리론, 사상 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정확한 정치 투쟁의 목표를 강령화하지 못하였으며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형성하며 모든 혁명적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여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를 수립할 수 있는 로선과 전략 전술적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다.

1920년대에는 공산주의 대렬이 아직 충분히 조직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있어서 종파주의는 가장 큰 해독을 끼치였다. 종파 분자들은 맑스—레닌주의 혁명적 원칙들의 광범한 침투, 보급을 저해하였고 로동 단체들의 혁명화를 방해하고 로동 운동의 조직적, 목적 의식적 통일을 저해하였다. 종파 분자들의 파쟁은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신임을 강화하는 데 저해를 주었고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 활동을 방해하였다. 종파 분자들은 일단 창건되였던 공산당을 마라먹는 죄행까지 범하였다.

이러한 모든 제한성과 결함들을 극복함으로써만 우리 나라 혁명 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 제한성과 결함들은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극복되여 나아갔다.

* *

1930년대에 들어 와서 조선 인민의 반일 민

족 해방 운동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 섰다. 이 시기에 조선 인민의 모든 혁명적 전통과 애국주의 전통이 결정(結晶)을 이루게 되였다.

그러면 1930년대 이후 조선 인민의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되였다는 것은 주로 어떠한 데서 표현되였는가?

이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적 핵심이 형성되였다.

이 지도적 핵심은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장기간의 혁명 투쟁에서 단련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로써 이루어졌다.

이 지도적 핵심은 많은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면서 당시 우리 나라 혁명 정세가 긴박하게 제기하는 문제들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해결해 나아갔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과거의 운동에서 혁명적인 요소들을 섭취하는 일방 과거의 운동들에 내포되여 있던 제한성들과 결함들, 온갖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궤도 우에서 혁명 운동을 일층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켰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진행된 항일 무장 투쟁은 1930년대부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된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였다.

1930년대에 들어 서서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선진적 로동자, 농민 및 애국 청년들로써 항일 유격대를 조직하였다. 이 때로부터 조선 인민은 제국주의와 봉건 세력을 반대하며 로동자, 농민, 모든 근로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는 진정한 인민의 무력 즉 맑스—레닌주의적 군대를 가지게 되였다.

항일 유격대는 수만명의 인민들을 망라한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 의거하여 활동하면서 점차 자기의 력량을 급속히 강화하여 조선 인민 혁명군으로 발전하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은 두 차례에 걸친 북만 원정을 통하여 그의 혁명적 위력을 광범히 시위하였다.

북만 원정에서 거대한 정치 군사적 성과를 거둔 조선 인민 혁명군은 국제 공산당과의 더욱 밀접한 련계하에 유격 활동을 확대하여 국내에 보다 큰 혁명적 영향을 미치게 하며 국내 침투 공작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북부 국경 지대에 진출하게 되였고 1935년 말—1936년에는 장백 지구 일대와 국내의 일부 지역들에 비밀 병영(秘密兵營)의 형태로 유격 근거지들을 설치하였다. 이 시기에 조선 인민 혁명군의 작전 규모는 매우 확대되였고 특히 중일 전쟁의 발발과 함께 조선 인민 혁명군은 일층 대규모적 작전을 전개하였다. 초보적으로 조사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36년 초부터 1940년까지에 조선 인민 혁명군은 6만 여 명의 적을 살상 포로하였다.

1941년 이후 조선 인민 혁명군은 전술을 변경하여 소부대 활동으로 이행하였다. 당시 국제 정세의 변동과 특히 전쟁에서의 일제의 패망이 가까운 장래로 예견되던 이 시기에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지도적 핵심은 부대를 소부대로 세분하여 민활한 활동으로써 적에게 계속적인 타격을 가하게 하는 일방 혁명 력량을 보존하며 앞으로의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정치 조직적 사업을 강화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유격 투쟁의 승리의 결실을 준비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쏘련 군대의 대일 전선에의 참가와 함께 조선 인민 혁명군은 일제를 격멸하는 전투에 참가하여 승리하였다.

항일 유격대의 영웅적 투쟁은 우리 나라 각지에 전설과도 같이 전파되여 공산주의자들,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을 무한히 고무 추동하였다. 그들은 항일 무장 투쟁에 기대를 걸면서 민족 해방의 신념을 잃지 않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 정확한 궤도 우에서 진행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나라 혁명의 성격과 동력에 대한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가급적으로 광범하게 혁명적 및 애국적 력량을 단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무장 투쟁의 첫 시

기부터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와 기타 광범한 지역들에서 반일회를 위시한 각종 대중 단체들을 조직 확대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근로 대중을 중심으로 각계 각층의 반일적 력량을 집결시켰다. 이 시기에 아직 민족 통일 전선체는 조직되지 않았으나 민족 통일 전선적 운동은 사실상 진행되고 있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실지 투쟁 경험과 인민 전선 운동에 대한 제 3 국제당의 방침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에 적응한 민족 통일 전선체를 조직하는 대책을 취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첫 민족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가 조직되였다.

많은 경우에 민족 통일 전선 또는 인민 전선은 맑스—레닌주의 당과 기타 당들이 있는 조건하에서는 정당들의 련합 전선의 형태(물론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하에)로 결성되며 이에 사회 단체들도 망라된다. 그러나 당시 우리 나라에 공산당도 다른 당도 없었던 조건하에서 민족 통일 전선체인 조국 광복회는 어떤 련합 전선의 형태로가 아니라 한 개의 독자적 조직체의 형태를 가지였고 그의 조직망은 각개 촌락에까지 침투되여 하부 조직들이 조직되였다.

조국 광복회는 단시일 내에 동북 지방의 조선인 거주 지대들과 국내 각지에 광범히 조직망을 확장하여 20여 만의 회원을 망라하게 되였다. 공산주의자들의 정확한 지도하에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이 광범히 전개된 결과 혁명 투쟁의 대중적 지반이 구축될 수 있었고 항일 무장 투쟁이 광범한 인민 대중과 밀접한 련계하에 진행되게 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무장 투쟁과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은 곧 **인민 정권을 위한 투쟁이였으며 인민 민주주의적 혁명 투쟁이였다**. 바로 이렇게 투쟁의 정치적 목적이 명백하였고 또 정확하였다는 데 1930년대 이후 반일 혁명 투쟁의 중요한 의의의 하나가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 민주주의를 위한 객관적인 요구는 일찌기 1920년대부터 제기되여 있었다. 그러나 당시 공산주의자들은 이 객관적 요구를 강령화하지 못하였다.

인민 민주주의적 요구는 1930년대에 와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강령화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과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지도하면서 우리 나라에 장차 수립될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였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구체적 제 조건과 계급적 제 관계 그리고 우리 혁명의 성격과 동력 등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1930년대 상반기에 창설되였던 유격 근거지—해방 지구들에서의 정권 건설의 경험에 기초하여 인민 정권 형태가 우리 나라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김 일성 동지가 직접 작성한 조국 광복회 강령 제 1조에는 우리 나라에 수립될 정권은 광범한 민족 통일 전선에 기초한 인민 정부로 되여야 한다고 규정되였다. 그리고 이 강령에는 인민 정부가 수행해야 할 혁명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였는바 이에는 반제 반봉건적인 제반 민주 개혁의 기본 요구들이 반영되여 있었다.

조국 광복회의 강령은 우리 나라에서 첫 맑스—레닌주의적 강령이였으며 근본 성격에 있어서 인민 민주주의적 강령이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반일 혁명 투쟁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모든 형태의 투쟁들과 결부시켜 진행하였다. 모든 혁명 투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확고한 지도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공산주의자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며 맑스—레닌주의적 혁명 사상을 모든 투쟁에서 일관시켜야 되였는바 이를 위한 투쟁은 곧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였다.

그러면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가 여하히 진행되였으며 이상에 지적한 모든 투쟁들로부터 우리 당은 어떠한 혁명적 전통들을 계승하였는가?

* *

1925년에 창건되였던 조선 공산당이 종파 분자들의 범죄적 해독 행위로 인하여 1928년에 자기의 존재를 끝마친 이후 당 창건을 위한 사업은 커다란 난관에 봉착되여 있었다. 이것은 이미 만성적 고질로 변한 종파 분자들의 책동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동시에 일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혹심해진 데 기인하였다. 당의 창건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진지한 노력은 종파 분자들에 의하여 크게 저해를 받았다. 또한 이 시기에 많은 종파 분자들은 추악한 시정배로 전락되거나 또는 일제의 주구로, 간첩으로 되여 버렸다. 이 결과 공산주의 대렬내에는 일제 경찰과 련결되여 있는 암해 분자들과 각종 불순 분자들이 적지 않게 잠입하여 있었다. 일방 많은 공산주의자들은 각각 분산되여 지하 깊이 숨어 있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공산당의 창건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간고한 투쟁과 준비 사업이 요구되였으며 이 준비 사업은 오직 맑스—레닌주의로 확고히 무장한 지도적 핵심의 지도하에서만 수행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확고한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적 핵심의 형성은 당 창건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였다. 확고한 지도적 핵심의 형성은 그것 자체가 당 창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로 되였고 전진으로 되였다. 당 창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지도 간부에 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확고한 지도적 핵심의 형성은 간부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결이였으며 이 지도적 핵심에 의하여 수다한 간부들이 육성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이 지도적 핵심은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면서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를 힘차게 추진시켰다.

우리는 우선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란 무엇을 의미하였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맑스—레닌주의의 기본적인 조직 원칙은 이미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규정되였다. 때문에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준비란 어떤 새로운 조직 원칙을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규정된 조직 원칙들을 우리의 구체적 조건에 적용하기 위한 방침을 수립하는 것, 공산주의자들을 배양 육성하는 것, 공산주의 조직들을 확대 강화하는 것,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산주의 조직들을 지역적으로 통합하는 것, 조직들 간의 련계를 수립하는 것, 종파주의를 극복하는 것 등이 그의 중요 내용으로 되는 것이였다.

맑스—레닌주의 당의 기본적인 리론 사상적 원칙들도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해명되였다. 때문에 당 창건을 위한 리론 사상적 준비란 주로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에 의하여 해명된 리론 사상적 원칙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혁명적 강령을 작성하는 것, 맑스—레닌주의의 리론과 사상으로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며 대중 속에 그 사상을 침투시키는 것, 당의 의의와 역할을 해석하는 것, 온갖 반동 사상과 기회주의 사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 등등이였다.

바로 이러한 사업들을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일 무장 투쟁 및 민족 통일 전선 운동과 불가분리적으로 결합하면서 진행하였다.

그러면 먼저 당 창건을 위한 조직적 준비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이 조직적 준비 사업은 당 생활을 할 수 있는 유격대 및 동북 조선인 거주 지역들에서와 국내에서 각각 상이하게 진행되였다.

우선 유격대들 내에는 당 단체, 공청 단체들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였고 동북 지방의 조선인 거주 지대들에도 당 조직망이 각지에 확대되였다. 소위 《혜산 사건》 당시 일제 경찰에 의하여 장백현 상강구(上崗區)와 하강구(下崗區)에서 발로된 당 조직들만 하여도 수십 개의 상하 조직에 달하였다.

그리고 유격대와 조국 광복회 조직들에서는 부단히 공산주의자들이 배양 육성되여 당 조직에 망라되였다. 또한 유격 투쟁에서 육성 단련된 공산주의자들은 광범한 지방들에 파견되여 공산주의를 해석 선전하며 정치 조직 사

업을 진행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당 창건을 위한 조직 사업을 국내에 급속히 확대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당시의 모든 혁명 정세는 당 창건을 준비하는 사업과 반일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국내에 급속히 확대 강화하는 것을 동시에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었다. 이 두 개 과업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공산당이 창건될 때까지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국내에 확대하는 사업을 멈추고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만 진행할 수도 없었으며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그만두고 민족 통일 전선 운동만 전개할 수는 더우기 없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두 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1936년에 소집되였던 녕안현 남호두 군정 간부 회의에서 이를 위한 주요 로선을 제시하였는바 그것은 곧 《민족 해방 동맹》 로선이였다. 우리 나라에 당이 없는 조건을 타산하여 김 일성 동지는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운동을 지도할 수 있는 핵심적 혁명 단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단체로서 《민족 해방 동맹》을 조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교시하였다. 이와 함께 김 일성 동지는 이 《민족 해방 동맹》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로 조직되여야 하며 이 단체는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가르치였다. 이 로선은 곧 실천에 옮기여졌다.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지도적 핵심은 우선 함남에서 활동하고 있던 박 달, 박 금철 동지 등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련계를 맺고 그들이 조직하였던 《갑산 공작 위원회》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으로 개편 발전시켰다.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은 각지에 침투하여 수다한 하부 조직들을 조직하였는바 갑산군의 운흥면과 보천면에만도 38개의 하부 조직들을 가지였다. 이 단체는 일방으로는 민족 통일 전선 운동을 지도하며 타방으로는 당 창건을 위한 준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함북 반일 동맹과 함남 반일 투쟁 동맹이 조직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지도적 핵심은 이 단체들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을 통하여 함남, 함북 일대의 공산주의 조직들 및 로조, 농조들과 련계를 가지게 되였다.

일방 이 지도적 핵심에 의하여 국내에 파견된 공산주의자들은 함남북은 물론 강원도, 평안남북도, 경기도의 일부 지방들에까지 진출하여 공산주의적 핵심체들을 구성하였고 이 핵심체들은 민족 통일 전선체의 하부 조직들을 결성하고 지도하였다.

이리하여 국내에 공산주의 조직망이 확대되고 체계화되여 갔으며 수다한 공산주의 간부들이 육성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각급 공산주의 조직들과 민족 통일 전선체의 제 조직들 그리고 각종 대중 단체들 내에 종파 분자들의 침투를 절대로 용허하지 않았다. 《엠엘파》 계렬의 종파 분자들과 기타 온갖 종파 분자들은 당 조직들과 무장 투쟁의 대렬에까지 잠입하여 파쟁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다. 또는 이 종파 분자들은 반민생단 투쟁을 자기들의 종파적 책동에 리용하려 하였으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민생단원으로 락인 찍으려고 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종파 분자들의 책동을 반대하는 강력한 원칙적 투쟁을 전개하여 종파 분자들을 숙청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종파주의, 섹트주의 등과의 원칙적 투쟁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과거에 일시 무의식적으로 종파에 가담하였던 사람들을 개조하기 위한 투쟁도 꾸준히 전개하였다.

당 창건을 위한 리론 사상적 준비도 힘차게 진행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을 보급하는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였다. 맑스—레닌주의 고전들과 해설서들이 광범히 발간되였으며 그리고 조국 광복회의 기관지 《3.1 월간》과 조선 민족 해방 동맹의 기관지 《화전민》을 비롯하여

《전기(戰旗)》, 《적기(赤旗)》, 《반일 투쟁》 등의 잡지와 《투쟁》, 《전투 일보》, 《반일보》, 《서광》 등의 신문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보급과 정치 사상 교양 사업에서 큰 역할을 놀았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을 보급하는 사업을 일제와 민족 개량주의자들에 대한 정치적 폭로 사업과 결합시키였다.

조선 인민 혁명군 각 부대내에서와 대중 속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조선에서의 일제의 극악한 식민지화 정책의 매개 표현들과 특히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미명하에 일제가 진행하는 침략 전쟁의 흉악한 목적을 폭로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와 결탁하고 있는 조선인 친일파, 민족 반역자, 매국노들의 죄과를 규탄하고 그도 일제와 마찬가지로 조선 인민의 원쑤이라는 것을 폭로하였다.

대중 속에서 개량주의적 및 각종 타협주의적 독소를 일소하기 위한 사업도 강화하였다. 공산주의 조직들과 대중 조직들은 잡지와 삐라, 격문 등을 통하여 일제와의 비타협적인 불굴의 정신, 대중적 단결과 궐기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양하였다. 《반일 동지들이여 힘껏 싸우라!》, 《단결하자》, 《궐기하자》, 《나아가자》 등등의 표제를 부친 잡지 론문과 격문들이 계통적으로 대중 속에 전파되였다.

당 창건을 위한 리론 사상적 준비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은 조국 광복회 강령이였다. 이 강령은 비록 민족 통일 전선체의 강령이였으나 맑스—레닌주의적 강령이였으며 당 창건 이후 당에 의하여 채택될 강령의 기본 요구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당 창건을 위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에 대하여 극히 개괄적으로 보았다. **당 창건을 위한 이상과 같은 준비는 우리 당이 계승한 가장 고귀한 전통이다.**

우리 당은 아무 것도 없는 빈 터전에서 해방후 비로소 솟아난 것이 아니라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진행된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에 기초하여 창건되였다.

력사적으로 형성되였으며 혁명 투쟁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였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 일성 동지를 수위로 하는 맑스—레닌주의적 지도적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지도하에서의 조직적 및 리론 사상적 준비가 수행되였기 때문에 해방 직후 그 복잡하고 곤난한 정세하에서도 또한 력사적으로 내려 오던 모든 종파 분자들의 각종 책동이 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맑스—레닌주의 당인 우리 당이 창건될 수 있었다.

이렇게 창건된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축성된 고귀한 혁명적 전통들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다.

반일 민족 해방 투쟁의 전 행정에 있어서 우리 나라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혁명성이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였고 가장 풍부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쟁취한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은 우리 당 뿐만 아니라 우리 인민 군대와 전체 조선 인민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당과 전체 조선 인민은 항일 무장 투쟁의 어떠한 혁명적 전통들을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가? 김 일성 동지가 가르친 바와 같이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 사상 체계를 계승하며 그 작풍을 계승하며 그 우수한 사업 전통을 계승함을 의미한다.

우선 사상 체계의 측면에서 보기로 하자.

항일 유격대의 사상은 물론 맑스—레닌주의 사상이였다. 항일 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무장하였고 맑스—레닌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추호의 동요도 없이 매진하였다.

과거에 제국주의를 반대한 각종 군대 또는 무장 부대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모두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였고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된 항일 유격대는 정세가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를 막론하고 시종일관 꾸준하게 투쟁하였으며

그의 력량은 날이 갈수록 장성 강화되였다.

일제의 파쑈적 폭압이 극도에 달하였고 과거에 《애국지사》로 또는 《혁명가》로, 지여는 《맑스주의자》로 자처하여 나섰던 사람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부분이 일제에게 투항하였고 또는 처세주의자, 개인 향락의 시정배로 전락되였던 그러한 곤난한 시기에 그리고 일제의 간교한 와해 공작과 《민생단》, 《협화회》의 각종 악선동과 분렬 책동이 부단히 가해지는 조건에서도 항일 유격대는 제국주의의 멸망과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여 최후 승리를 쟁취하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이렇게 항일 유격대는 자기의 영웅적 투쟁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불패의 위력을 실증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 투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론박할 여지 없이 보여 주었다.**

항일 유격대는 맑스―레닌주의를 우리 나라 실정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구명된 정치적 투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유격대와 그를 지지한 모든 혁명 대중의 정치적 투쟁 목표는 조국 광복회 강령에서 규정된 혁명적 요구 즉 우리 나라에 인민 정권을 수립하며 제반 민주주의적 변혁들을 실시하여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는 것이였다.

이 정치 로선은 8.15 해방후 우리 당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였다.

해방 직후 《좌》우경 기회주의자들의 책동이 혹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시종 정확한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 당이 창건 첫날에 제시한 4대 당면 과업,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가 발표한 20개조 정강 그리고 조선 로동당의 강령 등등은 조국 광복회의 강령에서부터 출발한 인민 민주주의적 강령의 발전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당은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이 맑스―레닌주의 혁명 리론의 순결성을 고수하며 동시에 그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항일 유격 투쟁 시기에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전통의 하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전통이다.**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유격대는 과거로부터 내려 오는 조선 인민의 모든 애국주의 전통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상의 기초 우에서 애국주의 전통을 발전시켰으며 맑스―레닌주의 사상에 기초하는 새로운 애국주의적 전통을 이룩하였다.

과거의 애국주의는 계급적 및 사상적 제약성으로 인하여 불철저성을 면할 수 없었다. 진정한 애국주의를 위해서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 하나만으로써는 불충분하다. 레닌이 가르친 바와 같이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자기 나라에 현존하는 모든 반동적인 것, 추악한 것들에 대한 증오심, 그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될 때에야만 진정한 완성된 애국주의로 될 수 있다.

1920년대에 로동 계급과 농민의 혁명 투쟁에 의거하여 맑스―레닌주의 사상과 결부된 애국주의 사상이 발전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그 내용에 있어서 추상적이였으며 충분히 자라나지 못하였다.

반제 반봉건적 민주 혁명을 위한 투쟁이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립각하여 정확한 궤도 우에서 진행되게 된 1930년대 이후 시기에 진정한 혁명적인 애국주의가 자라나게 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모든 항일 유격대원들은 가장 열렬한 애국주의자들이였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 제도가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조국을 옹호하는 애국주의로는 될 수 없었으나 그러나 그들의 애국주의는 우리 나라에 장차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 투쟁과 결부되여 있었기 때문에 근본 성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였다. 이리하여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훌륭한 전통이 이루어졌다.

우리 당은, 이 빛나는 애국주의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한 우리 나라에서의 가장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정당이다. 당과 인민은 이 전통을 새로이 발전시키고 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발휘한 우리 인민과 인민 군대의 영웅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바로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의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다. 오늘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는 외래 제국주의 침략 세력과 국내 반동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로력 투쟁에서도 남김 없이 발양되고 있다.

항일 유격대의 애국주의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결합된 애국주의였다.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국제주의의 빛나는 전통도 이루어졌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은 《만국의 로동자들은 단결하라!》는 맑스의 사상을 고수하여 국제주의 사상으로 유격대원들과 인민 대중을 교양하였다.

항일 무장 투쟁은 그 자체가 가장 적극적인 국제주의적 투쟁이였다. 1930년대 이후 국제 정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성과를 일방으로 하고 자본주의 세계의 심각한 위기 특히 파쑈 세력의 국제적 대두를 타방으로 하는 두 개의 추향의 대립이였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국제 프로레타리아트의 가장 중요한 임무의 하나는 쏘련을 지지하며 파쑈를 반대하는 투쟁이였다.

따라서 당시 가장 주요한 파쑈 국가의 하나이였던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특히 그의 침략적 진출을 방해하는 항일 무장 투쟁은 국제 혁명 운동의 중요한 일환이였다.

당시 항일 유격대원들은 무장을 들고 쏘련을 옹호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하였다.

그리고 항일 유격대는 일제를 공동의 적으로 하고 있던 중국 인민과의 전투적 동맹을 강화하면서 투쟁하였다. 조선 인민과 중국 인민과의 국제주의적 친선 단결은 항일 무장 투쟁 시기부터 견고한 토대 우에서 이루어졌다.

항일 유격대는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한 가정의 식구로 되여 있었다. 이것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고무하여 주는 전통으로 되였다. 조선 인민은 해방후 이 전통을 계승하여 쏘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진영 대가정의 일원으로 되였으며 이 진영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것은 사상과 궁극적 목적의 일치성 특히 제도의 공통성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 요구이다.

조선 인민은 해방후 실제적 경험을 통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위력을 더욱 확신하고 있다.

조선 인민은 자기의 정치 경제적 력량의 강화를 통하여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초소를 고수하는 견결한 투쟁을 통하여 사화주의 진영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 국가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영웅적 인민이라는 찬양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 당이 계승하고 있는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사상적 체계의 측면에서 주요한 것들을 보았다.

이러한 사상적 체계는 사업 작풍에도 그대로 반영되였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과 항일 유격대원들의 모든 투쟁과 사업 작풍은 맑스―레닌주의 사상 원칙과 인민적 작풍, 혁명적 작풍으로 일관되여 있었다.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항일 유격대는 **인민에게 철두철미 헌신하며 인민과 같이 싸우는 그러한 투쟁 정신과 작풍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바로 인민을 위하여, 그의 해방과 장래 행복을 위하여 무비의 영웅성을 발휘하였으며 항상 인민 대중에 의거하여 모든 투쟁을 전개하였다.

항일 유격대 내부에서는 《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유격대는 인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구호가 최고의 좌우명으로 되여 있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어떠한 곤난이 있을 때에도 인민을 희생적으로 보호하였다.

그들은 인민들 속에 들어 가 일손을 도와

주었으며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을 자기들의 불행과 고통으로서 함께 겪으면서 그러한 불행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가리켜 주었다. 그들은 인민 대중의 요구와 사상적 준비 정도를 정확히 타산하여 그에 부합되게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중을 교양하였으며 가는 곳마다에서 각종 대중 단체들을 조직하여 인민들과 혼연 일체가 되여 혁명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항일 유격대는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작풍으로 일관되여 있었기 때문에 인민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물심 량면으로 원조하여 주었다. 또한 이로 인하여 많은 애국적 청년들은 그의 사상적 영향을 받아 유격대에 부단히 입대하였다. 한 가지 례만 들더라도 1936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에 장백현 1개 지구에서 유격대에 입대한 수는 300 여 명에 달하였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유격대는 인민과 같이 살고 인민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격 근거지에 의거하여 15개 성상 싸울 수 있었으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항일 유격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인민적 사업 작풍은 우리 당에 의하여 전면적으로 계승되고 발전되였다.

이것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유력한 무기의 하나로 되고 있다.

우리 간부들과 당원들이 짧은 시일내에 혁명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을 습득하고 인민 대중과의 굳은 련계를 실현할 수 있은 것은 항일 유격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업 작풍의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그의 모범에 의하여 교양되였기 때문이였다.

이러한 사업 작풍의 도움에 의하여 우리 당은 모든 투쟁, 모든 사업에서 인민 대중과 혼연 일체가 되였다. 특히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이후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지도자들의 인민 대중에 대한 지도 작풍은 인민 대중의 집체적 지혜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남김 없이 발휘시키고 있다.

항일 유격대는 단결과 동지 호상간의 우애적 정신의 전통을 수립하였다. 항일 유격대는 모두가 인민의 아들딸들로 조직되였고 동일한 사상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자원적으로 입대한 사람들로 조직되였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단결이 강하였고 동지 호상간의 우애적 정신이 강하였다. 유격대 내부에서는 상하간에나 전사 호상간에나 추호의 간격도 없었다. 군관들과 병사들이 같이 강냉이를 먹고 같이 '우등'불을 피우고 자며, 상관은 부하가 부상 당하면 업고 다니고 하면서 군관이나 전사나 할 것 없이 모두다 혈육같이 서로 사랑하며 단결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락을 같이 하며 사경을 같이 넘으면서 투쟁을 전개하였다.

유격 부대에서의 단결과 호상간의 우애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인 것이였으며 부대내의 혁명적 질서와 규률을 강화하는 것이였다.

이 모든 우수한 전통은 우리 당과 전체 인민 특히 인민 군대에 의하여 계승 발양되고 있는 전통인바 이는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을 강화하며 인민 대중을 당의 주위에 굳게 단결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항일 무장 투쟁의 주요한 전통의 하나는 곤난을 극복하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이다.

항일 유격대들의 투쟁은 지극히 간고한 것이였다. 15개 성상에 걸친 장기간의 투쟁에서 그들은 항상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기를 무장하였고 식량과 피복도 적과의 가렬한 전투를 통하여 적의 것을 빼앗아서 해결하였으며 또는 인민들의 지성어린 원조로써 해결하였다. 그들은 때로는 며칠씩 굶으면서 싸워야 되였고 때로는 눈 우에서 자야 되였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 혁명 사상으로 무장한 항일 유격대는 고상한 애국주의와 백절불굴의 인내력, 파고 드는 창발력을 발휘하면서 모든 곤난을 극복하였으며 일순간도 자기의 혁명적 신념을 잃지 않고 싸웠다.

해방후 우리 인민과 청소한 인민 군대가 미제를 괴수로 한 16개국 제국주의자들과 리 승만 도당의 무력 침략을 반대하는 3년 여의 가

혹한 전쟁에서 온갖 시련을 극복하면서 적들의 침략을 분쇄하고 승리를 쟁취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전쟁의 승리를 보장한 인민과 인민 군대의 영웅주의와 애국주의, 곤난을 극복하는 불요불굴의 투쟁 정신은 항일 무장 투쟁의 전통에 뿌리 박고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해방후 당 및 국가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부닥친 허다한 곤난 앞에서도 동요를 모르고 완강하게 투쟁하여 오늘과 같은 승리를 달성하였으며 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평탄한 길로서가 아니라 허다한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에로 내 달리고 있다.

조선 인민 앞에는 아직 허다한 난관들이 가로 놓여 있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 인민은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비할 수 없는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당시 항일 유격대는 오직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신념, 혁명 승리의 신심 하나만 가지고 모든 간난신고를 이겨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맑스—레닌주의로 튼튼히 무장된 당이 있으며 자기의 국가 주권이 있으며 튼튼한 경제적 토대가 있으며 국제적 원조가 있으며 기타 모든 유리한 조건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난관이 아무리 크고 복잡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으며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담보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 당과 전체 조선 인민에 의하여 계승된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주로 사상 체계의 측면과 사업 작풍의 측면에서 보았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계승한 우수한 사업 전통이 허다하다. 인민 정권, 인민 군대, 민족 통일 전선 등에 대한 지도 사업에서와 기타 정치 조직 사업의 측면에서도, 구체적 사업 방법에 있어서도 그의 많은 우수한 사업 전통들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전통이 없었더라면, 만일 이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지 않았더라면 조선 인민이 조선 로동당과 같은 자기의 혁명적 당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없었을 것은 명백하다.

오직 우리 당은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였고 그 투쟁을 직접 조직 지도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자기의 지도적 핵심으로 하여 창건되였고 그에 의하여 령도되는 까닭에 당 내외의 원쑤들과의 복잡한 투쟁 속에서도 오늘과 같이 강화 발전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해방후 짧은 기간내에 력사적으로 내려 오는 당내의 악독한 종파들을 극복하고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사상적 체계를 확립하였고 수 많은 간부들을 육성하여 당과 국가 기관을 튼튼히 꾸려 놓았다. 오늘 우리 당은 김 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 위원회 주위에 철석같이 통일 단결된 100 여 만의 대오로, 사회주의 건설을 능숙하게 령도하는 강철의 부대로 되였다.

우리의 각급 당 단체들과 당 및 국가 기관 간부들이 혁명 투쟁의 모든 부문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성장한 것도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기적적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된 것도 그들이 모두 항일 무장 투쟁의 혁명적 전통의 뿌리에서 났으며 그의 사상 체계, 사업 작풍 및 사업 전통으로 교양 육성된 때문이다.

항일 무장 투쟁의 빛나는 혁명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은 아무리 곤난한 조건하에서도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며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위신을 획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인민은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최대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일 무장 투쟁을 직접 조직 지도한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을 무한히 존경하고 옹호하며 그의 모범을 배우고 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또한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로 된다. 왜냐하면 이 혁명 간부들을 존경하고 옹호하며 그의 모범을 배우는 것은 당과 혁명을 지지 옹호하는 것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또 그렇

게 하는 것이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진지한 태도인 때문이다.

✻ ✻

우리는 이상에서 우리 당과 전체 조선 인민이 계승한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개괄적으로 보았다.

우리는 이 혁명적 전통을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들 즉 8. 15 해방 이후 우리가 거둔 모든 빛나는 혁명적 성과의 력사적 근원은 무엇인가? 청소한 력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장성 강화되여 조선 인민의 불패의 지도적 력량으로 된 우리 당과 우리의 인민 정권과 인민 민주주의 제도 그리고 이를 보위하는 우리 인민 군대는 어떠한 력사적인 뿌리로부터 자라났는가? 우리들이 영광스러운 사회주의 건설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오늘의 모든 우리 현실이 어떠한 뿌리로부터 자라날 수 있었는가? 등에 대하여 정확히 리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력사적인 뿌리는 바로 1930년대부터 김 일성 동지를 비롯한 견실한 공산주의자들의 지도하에 진행된 반일 혁명 투쟁인 것이다.** 바로 우리 당이 이 투쟁의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혁명적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우리 당원들과 전체 인민은 이 고귀한 혁명적 전통을 계속 학습하며 이를 고수하며 발양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신념을 더욱 높이며 우리의 혁명적 위업에 대한 승리의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민족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며 조선 인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력량의 원천들을 남김없이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일상적 사업에서 귀중한 경험들과 풍부한 사업 방법들을 섭취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빛나는 혁명적 전통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그를 계승하기 위한 투쟁은 우리의 단결된 혁명 력량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우리의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단순히 보존만 하는 것은 아니다. 레닌도 혁명적 전통을 문서 보관하듯이 보존하는 것은 의의가 없다고 가르치였다. 우리는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며 일층 발양시키며 일상적 사업에서 이것을 구현시켜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이 빛나는 혁명적 전통을 계승하고 발양시킴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이 더욱 풍부한 것으로 되도록 해야 한다.

공화국 법의 계급적 본질

윤 종 섭

우리 당은 오늘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와 관련하여 계급적 원쑤들의 준동이 보다 악랄하고 교활성을 띠고 있는 조건하에서 인민 정권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력한 도구로서의 법의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국가 사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반혁명 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폭로 분쇄하며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의 위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한 때 우리 법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최 창익, 박 창옥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반맑스주의적 외곡과 그 후과들을 철저히 청산하기 위하여 당이 취한 가장 적시적인 조치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법의 계급적 본질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며 특히 복잡한 계급 투쟁 속에서 그의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철저히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법은 국가와 함께 인류 사회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력사적 산물이다. 엥겔스가 그의 저서 《가족, 사유 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생산력 발전에 의한 사유 재산의 발생, 그에 기초한 사회의 계급에로의 분렬, 계급들 간의 적대적 모순의 첨예화는 계급적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를 낳게 하였고 또 국가 권력을 자기 수중에 장악한 지배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지배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를 국가의 의사로서 표현하는 법을 만들어 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그 산생 자체의 력사에 의해서도 명백한 바와 같이 소여 사회의 지배 계급 즉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계급의 의지를 표현하며 지배 계급의 의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사회 관계 즉 정치적, 경제적 및 기타 사회 관계를 반영한다.

지배 계급은 법으로써 자기에게 유리 유용한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 사회 관계를 공고화하며 국가적 강제력에 의하여 그 법의 준수를 전체 사회 성원들에게 강요한다. 따라서 법은 지배 계급의 수중에 장악된 계급 투쟁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법은 사회 경제 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한 개의 표현 형식이다. 일정한 사회 경제 제도와 계급 투쟁을 떠난 법이란 있을 수 없다》.

법은 자기가 반영하며 옹호하는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 사회 관계에 의하여 그 성격 및 사명이 규정된다. 즉 생산 방식의 여하, 소여 사회의 지배적 생산 관계의 여하에 따라 소여 사회의 법 및 법 제도 여하가 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및 기타 사회 관계의 변천은 곧 법 자체의 변천도 조건 지운다.

우리 나라 봉건 시대의 법은 왕을 위시한 량반 지주 계급의 의사를 반영하여 봉건적 신분 관계와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를 확고히 하며 농민 대중들을 비롯한 광범한 피지배, 피착취 계급들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도구였다. 리조 봉건 국가의 대표적 법전인 경국대전(經

國大典)은 《형벌은 량반에게 적용할 수 없다(刑不上大夫)》고 하였으며 《례절은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禮不下庶人)》는 원칙으로서 봉건적인 특권적 신분 제도와 량반 지주 계급의 전횡을 법적으로 고정화하여 농민 대중을 비롯한 피지배 계급의 무권리를 로골적으로 규정하였다.

과거의 일제 법은 일본 천황 제도와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를 위한 법이였으며 일본의 지주, 자본가들의 의사와 리익을 옹호하며 일본의 근로 대중을 억압, 착취하기 위한 법이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 법은 제국주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옹호하며 약소 민족을 억압 략탈하기 위한 법이였는바 조선에서 시행되였던 일제의 법률, 제령(制令), 총독부령 등은 모두 조선 민족을 억압하며 착취하는 일제의 무기였다. 그러므로 일제 법은 계급적으로 보면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을 억압 착취하며 지주, 자본가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법이였으며 민족적으로 보면 일본 군국주의를 옹호하고 조선 민족을 압박하는 법이였다.

오늘 공화국 남반부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제정한 법률들은 일제 시기의 법률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들이 제정한 《국가 보안법》은 일제 시기의 《치안 유지법》을 기본적으로 답습하고 형벌을 더 가혹하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시기에 이 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 개정안》은 그들의 《형법》에 규정하였던 외환(外患)에 관한 죄까지 《국가 보안법》에 도입하여 자기들에 대하여 사소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까지도 《간첩》으로 규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적대적 계급 사회의 법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소수의 착취자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그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면에 절대 다수의 인민 대중에 대해서는 가혹한 착취와 억압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은 법의 진정한 계급적 본질과 사명을 외곡한다. 그들은 법의 《전 인민적 성격》을 고취하며 계급적 리해 관계를 초월한 《만인을 위한 법》, 《만인에게 공평한 법》 등등의 구호로써 법의 계급적 본질을 호도하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그들의 법의 반동성을 음페하려는 부르죠아지의 기만적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법은 결코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이 떠벌리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반영하며 옹호하는 사회 경제 제도 및 정치 제도와 분리되여 있지 않다.

오늘 우리 공화국 법은 새로운 인민 민주주의적 사회 경제 제도 및 정치 제도에 상응하여 확립되였으며 그의 공고 발전을 보위하기 위한 법이다. 그것은 온갖 적대적 계급 사회의 법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사회주의적 류형의 법이다. 따라서 그것은 봉건 시대의 법, 악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 시대에 시행되였던 법, 그리고 오늘 남조선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강요되고 있는 반인민적 파쑈적 법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는 전혀 새로운 법이다.

우리 공화국 법은 일제 식민지 통치 시기에 바로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극소수의 지주, 자본가들에게 착취와 압박을 당하던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의 의사와 념원을 표현하며 그들의 리익을 철저하게 옹호하는 유력한 무기이다. 그것은 절대 다수의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사회주의를 방해하며 반대하는 소수의 지주, 자본가 및 적대 분자들을 진압하는 인민 정권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실현하는 무기이다.

공화국 법은 또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적 경제 제도를 반영하고 그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에 대하여 적극적 복무적 역할을 논다. 그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국가적 및 협동 단체적 소유를 공고화하며 온갖 투기, 모리적 행위들을 제어하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며 그들 간의 동지적 협조와 친선의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는 거대한 복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들은 공화국 법이 우리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인민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화함으로써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며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우리 당의 정책을 체현하며 그의 실현을 위한 무기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우리 당은 오늘 인민 정권을 통하여 자기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으며 또 인민 정권은 우리 당의 정책을 집행하는 유력한 무기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인민 정권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공화국 법이 우리 당의 정책을 체현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의 정책은 공화국 법의 생활적 기초로 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화국 법의 계급적 본질은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하는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의사를 표현하며 그의 리익을 옹호하는 도구이며 반대로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며 반대하는 지주, 자본가들을 비롯한 반혁명 분자들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게 독재를 실시하는 유력한 무기이다.

* *

공화국 법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 자기의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또 수행하고 있다.

공화국 법은 우리 인민이 달성한 사회주의적 전취물들을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온갖 위법 행위들을 제때에 처단함으로써 그를 공고화하였으며 또 사회주의 경제 건설의 가일층의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대한 복무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우리의 경제 제도 자체에 뿌리 박고 있는 발전의 객관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어서 공화국 법은 자기의 복무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우리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작성 공포된 제 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은 오늘날 계획 과제의 실행을 담당하고 있는 매개 근로자들에게 경제 발전의 전망을 명백히 하여 주며 그들이 수행하여야 할 지표들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창발적 적극성을 제고하며 계획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추동하는 동원적 역할을 놀고 있다.

그러나 현 시기 조성된 우리 나라의 정세는 공화국 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결정적 승리와 관련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비롯한 온갖 계급적 원쑤들의 발악이 더욱 심하여 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오늘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파괴하기 위하여 더욱더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으며 부단히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을 북반부에 잠입시키면서 북반부에 잔존하고 있는 청산된 이전 착취 계급들의 잔존 분자들과 일부 견실치 못한 분자들에게 영향을 주며 그들을 리용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당면한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공화국 법의 적극적 역할을 가일층 제고하여 온갖 반혁명 분자들의 책동을 제때에 좌절 진압하여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기 최 창익, 박 창옥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분자들은 우리 법의 계급적 기초를 외곡하면서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공화국 법의 적극적 진압의 역할을 약화시키려 하였다. 그들은 국제 수정주의의 영향하에 부르죠아지의 기만적 구호인 《만인에게 공평한 법》을 설교하였으며 엄중한 반국가적 죄행을 감행한 반혁명 분자들까지 석방하는 참을 수 없는 죄악적 행동을 감행하였다. 그들은 마치 우리 인민 정권이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으로 될 수 없으며 반혁명 분자들을 진압하는 것은 《통일 전선》에 해독을 주는 것이며 《민주주의》 《준법성》에 위반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이라고 떠벌렸다.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명백해진 바와 같이 우리 인민 정권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또 우리 법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란폭한 외곡이며 우리 법을 그 계급적 기초와 분리시킴으로써 인민 정권 기관들과 사법 기관들에 대한 우리 당의 령도적 역

할을 거세하고 자기들의 반당, 반혁명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패로 삼기 위한 것이였다.

김 일성 동지가 교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시대는 령도권을 다투는 두 계급이 존재할 뿐이다. 즉 로동 계급과 부르죠아지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모든 정권은 결국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으로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부르죠아 독재 정권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민 정권이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다 하여 《통일 전선 독재 정권》으로는 되지 않는다.

정권의 성격, 계급적 본질은 그 정권이 어떤 계급에 의하여 령도되며 어떤 계급의 의지를 실현하는가, 그 정권이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가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우리 인민 정권은 로동 계급이 령도하며 그를 선두로 한 광범한 인민 대중의 의지를 실현하며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본질상 프로레타리아 독재 정권으로 되는 것이다. 이와 달리는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인민 정권이 통일 전선에 기초하고 있다 하여도 그 계급적 본질은 확고하며 따라서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실현하는 무기로서의 우리 법의 계급적 본질도 확고하다.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떠벌린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인권 옹호》의 구호는 오직 우리 법의 계급적 본질에 대한 란폭한 외곡이였다.

《인권 옹호》에 대하여 보자. 인권——이것은 사람들 간의 평등, 존중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혁명적 당들은 누구보다도 철저히 인권을 옹호한다. 우리 당은 그 창건 첫날부터 시종일관 인민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우리 당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자기 활동의 최고 법칙으로 삼고 있으며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련계를 자기의 생활적 기초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해방후 제반 민주 개혁 행정에서 쟁취한 혁명적 전취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 헌법에 공민들의 평등한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확고화하고 그를 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인권에 대한 문제를 결코 추상적으로 제기한 일이 없으며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 왜냐 하면 추상적 인권이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계급적 리익을 반영한 인권만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공화국 법은 로동 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 대중에게는 인권을 부여하지만 극소수 분자들 즉 인민의 리익과 권리를 침해하며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지주, 자본가 및 온갖 반혁명 분자들에게 대해서는 인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광범한 인민 대중의 리익을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따라서 그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당, 반혁명 분자들은 우리 법의 계급적 기초를 거세하고 인민 대중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원쑤들에게 인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인권 옹호》의 구호를 들고 나왔는바 이것은 사실상 반혁명 분자들을 옹호하는 것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니였다.

웨. 이.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완전한》 민주주의 전체를 즉 부자나 가난한 자들을 다 위하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다. 프로레타리아 독재는 《새 방식의 민주주의 국가가 되여야 하며 또 새 방식의 독재적 국가가 되여야 한다》(레닌주의 제 문제, 조선문 판, 68—69페지 참조).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지주, 예속 자본가 기타 반동 분자들과 반혁명 분자들에게 자유와 권리를 줄 수 없다…우리가 어떻게 각종 파괴 암해 분자들이 우리의 제도와 인민의 재산과 그의 행복한 생활을 자유롭게 파괴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는가?

이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인민의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광범한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기 위해서는 인민의 원쑤들로부터 자유와 권리를 박탈하여야 한다》(문덕 선거구 선거자들 앞에서 한 연설).

김 일성 동지의 이 교시는 우리의 법의 계급적 본질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계급적 립장에서, 다시 말하면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립장에서 정확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계급 투쟁이 복잡한 조건하에서는 그것이 더욱 필요하다.

오늘 우리 나라가 남북으로 분렬되여 있고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계속 남반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조건하에서 계급 투쟁에 있어서도 신중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우리 혁명의 기본 임무로부터 출발하여 일방으로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어는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민족 부르죠아지까지도 포괄하는 각계 각층 인민들과의 통일 전선을 결성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동시에 타방으로는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조선적 규모에서의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의 승리를 위한 계급 투쟁과 함께 북반부의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에 적응한 계급 투쟁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반혁명과의 투쟁도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바 이에 첨가하여 13년 간에 걸친 국토의 분렬과 특히는 전쟁 과정을 통하여 조성된 대중의 정치적 구성의 복잡성은 그 투쟁을 더욱더 복잡화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투쟁 행정에는 신중성과 신축성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될 일련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이 극히 복잡하고 그 투쟁 행정에서 신중성과 신축성을 기하여야 할 일련의 문제들이 있다 하여도 그 투쟁에서의 기본 원칙 즉 사회주의의 옹호와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에 대한 진압, 독재의 원칙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활동은 이에 복종되여야 하며 이 원칙에 엄격히 립각하여야 하며 이에서 추호도 물러 서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모든 령역에서의 계급 투쟁,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관철되여야 하는 바 계급 투쟁의 무기로서의 우리의 법도 이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 적용되여야 한다.

우선 적아의 구별을 획정함에 있어서 이 기본 원칙에 철저히 립각하여야 한다. 우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이 복잡한 것만큼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아를 옳게 구별하는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법의 계급적 원칙에 튼튼히 의거한다면 적아를 구별함에 있어서 온갖 좌우경적 경향을 피면할 수 있다.

현 시기 북반부에 있어서 적아를 구별하는 원칙은 의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반대하는가, 근본적으로 적대 분자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계급에 속하는 사람인데 일시적인 오유를 범했는가, 자기의 사소한 리해 관계 때문에 오유를 범했는가 하는 것 등에 의하여 구별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당의 관대 정책에 대하여 똑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당의 관대 정책은 적을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는 정치적 투쟁이며 적을 굴복시키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다. 그러므로 이 조치는 적과의 타협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조치의 기본 원칙도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자들과의 비타협성이다. 따라서 이 조치는 완전히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원칙, 사회주의의 원칙에 부합된다. 이 조치는 적에 대한 관대가 아니라 오직 적의 립장을 버리려는 자들에 대한 관대이며 결코 적의 립장을 버리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적용되는 《관대》는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이 관대 정책을 적의 립장을 버리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까지 《관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또 온갖 적대 분자들에게 대한 관대로 리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우리는 평화적 방법으로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조치는 일부 사람들이 떠벌린 것처럼 결코 우리 정권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기능과 처 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요소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이 아무러한 투쟁이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도 각종 형태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바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을 방해하며 반항하는 자들과는 철저하게 투쟁하며 위법 행위, 폭리 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였거나 또는 참다운 생활을 하려고 할 때에는 법적으로 공평하게 대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민사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이 점은 반드시 류의되여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사실들은, 법을 계급적 립장에서 즉 프로레타리아 독재의 립장에서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이 매 시기에 제기하는 정책적 원칙들에 확고히 의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당의 정책적 원칙들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제기된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처리할 수 없다.

법은 정치의 한 개 표현 형식이기 때문에 그는 정치와 불가분적 관계를 가지며 정치에 복종된다. 우리 법은 우리 당과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도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정확하게 집행한다는 것은 곧 당과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또 당의 령도에 확고히 의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준법성이란, 사실에 있어서 당과 정부의 정책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 때 반당, 반혁명 분자들이 떠벌린 《준법성》의 구호는 사실상 준법성에 대한 위반이였다. 그들은 당의 령도를 거부하면서 오직 법에만 복종하여야 한다는 구호 밑에 준법성을 위반하고 반혁명 분자들을 옹호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공화국 법의 계급적 본질을 똑똑히 파악하며 그를 정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매 시기의 정책들을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하며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야 한다. 이것은 법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며 그를 옳게 적용하는 기본 담보이다.

＊　＊

법 규범을 철저히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사상성과 정치성을 소유하며 당적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당적 립장과 사상성의 확고성 여부에 따라 법 규범을 정확하게 관철시킬 수도 있고 옳지 못하게 관철시킬 수도 있다. 사회 생활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나 법 규범이란 다만 사람들의 행위의 준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사회 생활의 각 령역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개별적 경우를 예견하고 일일이 다 규정하지 못하며 그렇게 하지도 못한다. 다만 대표적인 것, 전형적인 것을 규정하는 까닭에 법은 하나의 표준이며 척도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당적 립장, 사상 관점의 확고성 여부에 따라 문제를 옳게 처리할 수도 있고 잘 못 처리할 수도 있으며 문제 해결에서 척도를 잘 못 설정할 수도 있고 옳게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사법 검찰 일'군들 속에서 당 정책 교양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일부 사람들에게 아직 남아 있는 낡은 부르죠아적 법률 관점을 청산하여야 한다. 지난 시기 사법 검찰 기관내의 일부 일'군들 속에서 발로된 이러저러한 부정적 편향들은 모두 사상 관점, 계급적 립장이 확고치 못한 데서 산생된 것이다.

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집행하는 것은 한갖 기술적 사업이 아니라 높은 정치 사상성이 요구되는 창조적 사업이다. 그러므로 특히 사법 검찰 일'군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항상 당의 령도에 확고히 의거하여 당의 사법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법의 기본 정신을 똑똑히 파악하고 당이 요구하는 계급적 립장에서 법을 정확하게 적용 집행할 수 있으며 법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

현 시기 농촌 문화 혁명의 촉진을 위하여

조선 로동당 황해남도 위원회
위원장 유 철 목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혁명은 사람들의 정치, 경제, 문화—정신 생활 령역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의미한다. 자기 수중에 정권을 장악한 프로레타리아트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혁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 기초 우에서 사회주의적 문화 혁명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의 불가분리의 한 구성 부분으로서 문화 혁명을 동반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시종일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진 새로운 민족 문화의 창설과 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중요한 시책들을 강구하여 왔으며 또 이것들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시기의 정치 경제적 과업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는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으며 인민 대중의 혁명적 기세와 로력적 열성은 비상히 앙양되고 있다. 김 일성 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은 대고조를 이루고 있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그의 실천을 위한 전체 근로 대중의 헌신적 열성에 의하여 우리의 산업 발전과 함께 농촌 경리에서도 근본적 변혁이 일어났다. 오늘 우리의 농촌 경리에서는 소상품 개인 경리로부터 협동 경리에 기초한 사회주의 경제 형태가 결정적으로 승리하였다.

우리 황남도에서도 3월 말 현재 총농가 호수의 98.6%, 농민 경리 면적의 99.1%가 협동 경리에 망라되였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거의 완성되였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나 경리 형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성되였다 하여 농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 동시에 농민들의 사상 의식, 생활 방식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보통 지식 및 문화 수준을 제고해야 하며 일체 낡은 소부르죠아적, 봉건적 유물, 비문화적이고 비위생적인 유습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포괄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달성할 수 없다.

때문에 우리 당은 현 시기 우리 나라 혁명 발전 특히 농촌 경리 발전의 성숙된 객관적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더욱 추진시킬 데 대한 방침을 제기하였다.

황남도 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의 이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도 당 단체의 중요 력량을 경주하고 있으나 아직도 당 중앙 위원회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존하는 결함 및 부족점들을 시급히 퇴치하고 현 시기 농촌 문화 혁명을 가일층 촉진시킴에 필요한 일련의 경험들을 축적하였으며 하고 있다.

* *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추진시키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는 농민들을 사회주의 사상 의식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문화 혁명 사업은 농민들의 사회주의적 교양과 분리되여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 도의 실정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황남도는 력사적으로 보아 8.15 해방전에 로동 운동, 농민 운동이 비교적 미약하였고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보급이 뒤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낡은 봉건적 유습과 보수주의가 농후했으며 거기에다 종교적 영향도 많았다.

해방후에는 우리 당에 의하여 농민들 속에서 급격한 사상적 전변을 가져 왔다. 그러나 박 사헌, 김 열, 박 성삼 등과 같은 자들이 농민들에 대한 사상 교양을 방해하고 외곡하였으며 또한 고 봉기, 백 순제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은 반당적, 반국가적 음모를 꾸미면서 우경 투항주의의 독소를 퍼뜨렸다. 미제의 고용 간첩인 박 헌영, 리 승엽 도당도 역시 신해방 지구에서 해독 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황남도는 해방후 오늘까지 계속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과 가장 가깝게 대치하고 있으며 적의 일시적 강점 시기에는 원쑤들의 만행에 의하여 수 많은 당원들과 애국 농민들이 학살되였기 때문에 우리의 농촌 핵심 진지는 심한 타격을 받게 되였다.

이상과 같은 실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황남도에서는 농민들의 계급 의식—사회주의적 사상 의식을 제고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여기로부터 문화 혁명을 농민들의 사회주의적 교양 사업과 더욱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할 것이 요구되였다.

맑스—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계급적 립장, 계급적 관점 문제는 혁명 관점의 기본 출발점이다. 농민들 속에서 계급 의식을 제고하지 않고서는 원쑤들을 극도로 증오하며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도에 끼친 반당적, 비계급적 독소들을 청산하기 곤난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의 집중 지도를 받으면서 당 내외의 온갖 원쑤들과의 사상 투쟁을 강력히 조직 진행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우선 《당원들과 인민 대중 속에서 계급 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정에서 전체 군중들을 망라한 전 군중적 토론을 통하여 치렬한 사상 투쟁을 조직 전개하였다. 이러한 사상 투쟁을 통하여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적 본질, 미제와 리 승만 역도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제고시켰으며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과 승리에 대한 신심을 확고히 갖게 하였다.

농민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낡은 유습, 완고성과 보수성 기타 비계급적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상 투쟁을 조직 진행하는 문제는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였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에서 우리 당 핵심을 옳게 육성하며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였다.

도 당 위원회는 동기간 핵심 당원 강습과 당원 및 비당원 열성자들을 위한 강습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였는바 각종 강습들에서는 현실 문제들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맑스—레닌주의 세계관, 계급 관점을 확립하며 반당, 반혁명 종파 악당들의 죄악을 폭로하며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한 제국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며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는 우리 말, 산수 등을 병행하여 일반 지식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특히 애국 렬사 유가족, 전상자 가족, 인민군 후방 가족들의 정치 및 일반 지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계통적인 교양 사업과 특별 강습을 조직 실시하였다. 그러한 결과 이들은 농촌에서 사회주의 교양 사업, 문화 혁명 사업 추진의 가장 믿음직한 골간으로 장성되고 있다.

보통 지식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

농촌 문화 혁명의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농민들의 보통 지식 수준을 높이는 문제이다.

레닌은 1921년 정치 교육 일'군들 앞에서 한 자기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아직 문맹 같은 그런 현상이 있는 한에는 정치 교육에 대하여 말하기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문맹한 사람은 정치를 떠나 있게 되는 것이니 그에게 글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정치가 있을 수 없다》 (레닌, 《문화와 예술에 관하여》, 모쓰크바 외국문 서적 출판사, 조선문 판, 335페지).

사회주의는 수백만 대중의 창조적 사업인 것만큼 그들의 높은 사상 의식 수준과 함께 응당한 보통 지식 수준이 요구된다. 때문에 김 일성 동지는 《농민들의 문화 수준을 높여 그들이 인민 학교 정도는 물론이고 중학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도록 하여야 하겠다》라고 교시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이 교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선 재문맹화를 방지하며 그들의 지식을 최근 2—3년 내에 30세 이상의 성인들은 인민 학교 졸업 정도로, 30세 미만의 청년들은 초급 중학교 졸업 정도 이상으로 높일 데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를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들과 도내 대학, 고전부 학생 500 여 명을 파견하여 대상자 료해 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글반, 초급반, 고급반 별로 되는 성인 교육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당 정책 선전, 과학 및 위생 지식 보급, 군중적 문화 계몽 사업 등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해방 지구 5개 군에서만도 721개의 한글반, 80개의 초급반, 29개의 고급반을 재조직하고 1,500 여 명의 성인 학교 강사들을 재선발 배치하였으며 신해방 지구 농민들의 정치 문화 수준을 급격히 제고시켰다. 이러한 결과 그들은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위생 문화 생활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연안군에서만 하여도 자진하여 수백 개의 귀신단지를 청산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신해방 지구에 주력을 돌림과 동시에 도내 각 군 당 단체들을 적극 지도 방조하여 민청 단체들을 이 사업에 발동케 하였다. 각 시, 군들에서는 민청원들을 비롯하여 교원, 학생, 초 고중 졸업생들을 농촌에 파견하여 지식 수준이 낮은 조합원들을 깨우쳐 주게 하였다. 각 시, 군 민청 단체들은 민청 열성자 회의, 성인 학교 강사 강습회, 유가족 청년들을 위한 강습 등을 통하여 전반적 지식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평천, 신원군에서만도 한글반 대상자 중 3분의 2를 초급반 수준에 올려 세우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 당 위원회는 우선 당원들 자신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초급반 학습 수준의 당원들은 새 학년도가 끝날 때까지 인민 학교 졸업 자격을 소유하도록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비당원 군중들은 야간 청년 학교, 성인 학교, 통신 중학교 등에 광범히 망라시키고 있다. 특히 신해방 지구에서는 종전의 야간 중학교 사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야간 성인 학교, 야간 청년 학교망을 확장하였으며 연안, 강령군들에서는 동기간에 당원들을 위한 야간 학교, 선동원 학교까지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많은 긍정적 결과를 맺고 있다. 금년도에 들어 와서 해방 지구들에서는 랭상모를 비롯한 각종 선진 영농법들을 광범히 도입하였으며 협동 조합들도 다른 지방에 비하여 점차 우수한 조합으로 발전되고 있다. 현재 정형으로 보아 1—2년 내에 전반적 주민에 대한 검정 시험을 실시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과학 지식의 보급 및 기술 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

우리 도에서 보통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은 과학 지식 보급 및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고 있다.

레닌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부르죠아 사회에서 과학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는 것은 《하층인》들에 대한 계급적 지배의 무기로, 착취의 수단으로 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서 그것은 혁명 투쟁의 무기로, 사회주의 문화와 경제 건설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된다.

공업 발전과 함께 농업 협동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업 생산 지표를 더 높은 수준에로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한 사회주의 공업 특히 기계 제작 공업과 화학 공업의 발전은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토대를 조성하였다. 그러나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완성하는 것은 농민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는 달성될 수 없다.

도 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의 방침에 의하여 농촌에 초 고중 졸업생, 제대 군인들을 많이 파견하고 이들을 애국 렬사 가족, 인민군대 후방 가족들과 함께 기술적 개조를 위한 핵심으로 되게 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농민들 속에서 과학 지식 보급 사업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면서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소기계화, 축력에 의한 기계화로부터 시작하여 랭상모, 면화 영양 단지 가식법 등 새로운 영농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농민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각종 농산 과학 기술 크루쇼크, 청년 기술 학교들의 운영을 개선 강화하는 한편 기술 간부 양성을 위한 농업 기술원 양성소, 각종 농업 기술 전문 학교 사업을 확장 강화하면서 각급 보통 교육 부문 학교들에서 기본 생산 기술 교육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민들의 영농 기술 학습을 방조하기 위하여 신천 고등 농전을 비롯한 도내 농업 기술 전문 학교 교원, 학생들을 파견하여 랭상모판 설치, 면화 영양 단지 가식 방법들을 비롯한 기타 선진 영농 기술 도입을 직접 방조하여 주었으며 농산 과학 기술 연구 크루쇼크들을 정비 강화함으로써 앞으로 영농 기술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영농 기술 경험을 총화하고 우수한 경험을 보급할 목적으로 도 민청을 통하여 농업 과학 기술 콘페렌치야를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도내 영농 기술 연구 크루쇼크원들, 농업 기술 전문가들이 광범히 참가하였는바 농산, 과수, 축산, 잠업 부문을 포괄하여 연구 론문 제출 자가 무려 137명에 달하였으며 발표자는 80명이나 되였다.

신천군 승리 농업 협동 조합 축산 기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알곡 사료를 적게 먹이고 풀과 고기를 바꾼 경험》을 발표하였는바 여기에서는 자기들의 2년 간의 경험과 김 일성 동지의 교시 실천 대책을 괘도(掛圖)로 만들어 가지고 연구 성과를 높은 수준에서 발표하였다. 동 군 평촌 농업 협동 조합 농산 기술 연구 크루쇼크원들은 《랭상모판 설치와 관리에 대한 로력의 합리적 조직》을 발표하였는데 이 론문들은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당 위원회는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5개년 계획 기간에 4천 여 명의 기사, 기수를 양성하겠다는 결의를 적극 지지하여 청년들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자 양성 사업을 백방으로 방조하고 있다. 지금 도내에서는 2,250개에 달하는 각종 농업 기술 크루쇼크가 운영되고 있는바 여기에는 2만 1천 여 명이 망라되여 있으며 이보다 한 계단 더 높은 21개의 청년 기술 학교에는 700 여 명이 망라되고 있다. 이들은 멀지 않아 전문가들의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특히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 조합 야간 청년 기술 학교에는 조합내 초 고중 졸업생, 제대 군인 70 여 명이 망라되여 1개의 시험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중등 농전 과정을 훌륭히 소화하고 있다. 그 중 수십명이 금년에 기사, 기수 검정 시험에 응시하게 될 것이다.

금년도 우리 도에서는 국가 기술 자격 검정 시험 응시 희망자가 무려 4천 명이나 된다. 도 당 단체는 이들을 위하여 공업 기술 련맹, 기술 전문 학교, 농사 시험장, 국영 농목장들의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연구, 교재의 제공 기타 물질 기술적 방조를 주고 있다. 이들은 우리 도내 농촌에서 새로 싹트는 귀중한 기술 인테리들인 것이다.

도 당 위원회는 이와 같이 전체 주민들 속에서 과학 지식 보급과 기술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보통 교육 부문의 전반적 학교들에서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을 강력히 추진시키고 있다. 안악 고급 중학교를 비롯한 도내 수개 학교들에 대한 집중 지도를 통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사업을 조직 진행하였다. 얼마 전에는 우수한 경험들을 교환하며 일반화하기 위하여 안악 고중에서 도내 시, 군 교육부장과 초 고중 교장 및 담당 교원들의 협의회와 연구 교수 참관 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급 학교들에서의 기본 생산 기술 교육을 더욱 촉진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중등 의무 교육제의 실시를 위한 사업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전반적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를 예견하였다.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는 후대들에게 전반적인 중등 지식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 나라의 교육 문화 발전에 있어서 력사적인 사변으로 된다.

도 당 위원회는 중등 의무 교육제를 기한보다 앞당겨 금년 신학년도부터 실시하기 위하여 그의 준비 사업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부족되는 교실 및 부대 시설들을 포함한 학교 건설을 비롯하여 특히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학급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연안군 소아, 송오리를 비롯한 많은 지방들에서는 충분한 설비를 갖춘 정규 교실을 건설하였으며 특히 신천군 봉황리 민청원들은 《중등 의무 교육제 실시 준비를 민청원들의 손으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자체의 힘으로 학교 건설을 위하여 헌신 투쟁하고 있다. 리내 500 여 명의 민청원들은 금년 신학년도까지 8개의 정규 교실을 증설하여 학생들을 100%로 정규 교실에 수용할 것을 목표하고 과수 개간지 10정보에 15만주의 피마주와 해바라기를 심었으며 매 가정 다섯 마리의 토끼 기르기, 매개 민청원들이 조합의 공휴일과 시간 외 작업으로 10일 간의 로력 공수 벌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250만 원의 학교 건설 기금 조성을 위한 애국적인 로력 투쟁에 헌신하고 있다. 이러한 애국적 운동은 도내 각 지방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군간, 리간 경쟁이 강력히 전개되고 있다. 금년내에 우리 도에서는 국가의 투자로 건설되는 것 외에 지방 건설 21 교실, 농민들 자체의 힘으로 480 여 교실을 건설할 것이 예견되고 있으며 초중 전체 학급의 13%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자체로 운영함으로써 오는 새 학년도부터는 금년도 인민 학교 졸업생은 물론 지난 해에 졸업하고 초중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까지 전부 초중에 진학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 당 교육 정책의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인 것이다.

위생 문화 사업 개선을 위하여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과 농민들의 물질 생활 형편의 개선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촌에서도 더 높은 위생 문화 사업을 성숙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천리마로 달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건설의 객관적 현실은 우리들의 생활에서도 낡은 관습과 습성을 청산하고 높은 문화성과 문명하고 위생적인 생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 낡은 사상, 낡은 생활 습성, 낡은 도덕적 인습 등을 극복하고 생활에서 문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투쟁은 사상 분야

에서의 계급 투쟁이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간단한 행정적 조치나 일시적 깜빠니야 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이 사업은 매개 사람들의 사상적 동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일상 생활을 위생 문화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인내성 있게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는 데서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 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8월 전원 회의 결정 《인민 보건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적지 않은 성과들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의 집행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결함들도 발로되였던 것이다.

또한 위생 문화 사업을 개선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 문화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최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일부 당 단체들과 정권 기관들, 협동 조합 관리 일'군들은 그의 중요성을 똑똑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상적 동원이 극히 낮은 형편에 처해 있었다.

도 당 위원회는 정권 기관들의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높이기 위하여 도 인민 위원회에 대한 집중 지도를 계기로 하여 특히 보건 일'군들의 건전한 당적 사상 체계를 확립하며 보건 위생 사업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진행할 데 대한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위생 선전을 강력히 진행하는 한편 청소, 미화 사업과 파리, 쥐 등 유해물들을 박멸하며 지스토마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전반적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개별적 지방에 대한 집중적 지도를 결합시켰다. 이것은 우수한 경험을 섭취하며 그를 일반화하는 데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신천군 동명리, 룡동리, 석교리에 대한 집중 지도를 통하여 우선 손쉬운 개인 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 생활 문화를 확립케 하며 생활 일과표를 만들고 모범 가정 창조 운동과 호상 견학 등을 조직하며 퇴비 증산과 관련되여 있는 변소, 재우리, 퇴적장 등을 개조하며 려과 시설을 포함한 음료수 개조 등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평야 지대인 명석리에서는 군내 700 여 명의 위생 열성 일'군 강습을 조직하고 그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위생 계몽 사업을 더 일층 강화하고 있다.

도 당 위원회는 특히 최근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선 당의 보건 정책, 당 중앙 상무 위원회 결정, 내각 결정 제 52호를 전체 주민들에게 침투시키는 사상 동원 사업을 강력히 진행하면서 위생 전람회를 조직하였다. 종래의 전람회는 주로 생리학적인 문제, 신경 계통 기타 학술적인 문제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금번 전람회는 현실 생활에서 절실히 제기되고 있는 우물, 변소, 목욕탕, 세탁장 개조, 신설 등에서 모범적인 것들을 많이 전시하여 학술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들을 배합시키는 방향에서 조직하였다.

과학 지식의 보급, 낡은 유습의 타파, 위생 지식의 선전, 특히 녀성들의 생활 문화와 도덕적 풍모의 제고에 있어서 어머니 학교, 녀성 토론회, 녀성 독보반 운영은 많은 긍정적 결과들을 가져 왔다. 연안, 신천, 해주 등지에는 녀맹 단체가 주동이 되여 녀성 학원을 설치하고 녀성들에게 필요한 위생 지식, 어린이 양육법, 영양 지식, 재봉 기술, 수놓기 등을 가르치며 어머니 학교 강사 또는 각종 가사 써클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다. 지금 해주시에 종합적인 녀성 학교 조직을 예견하고 있다. 앞으로 매개 조합 단위 또는 몇 개의 조합 단위로 이를 광범히 조직 운영할 것이다.

도 당 위원회는 금후 3년 간에 지스토마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하여 일체 지스토마균 보유 생물들을 잡아치우며 새로운 감염을 방지하며 이미 질환에 걸린 사람들을 완치시키는 원칙에서 해당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신천군을 모범 군으로 만들기 위하여 금년 11월 말까지 위생 개조 사업을 완성하며 전반적인 수질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취하여진 조직적 대책의 집행 정형에 대한 지도 검열 사업을 강화하여야 하며 경쟁 운동을 조직하며 호상 검열, 호상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도의 경험에 의하면 군과 군간의 경쟁은 그리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으나 리간, 협동 조합간, 인민반 간 경쟁은 큰 효과를 가져 왔다. 인민반의 역할을 높이면서 앞선자에 대한 찬양, 락후한 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가장 효과적이였으며 여기에서는 락후한 현상 자체 뿐만 아니라 락후한 것을 보고도 무관심하며 그와 투쟁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강하게 주는 그러한 기풍을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모범 군, 모범 리, 모범 협동 조합을 창조하며 리에서는 모범 조합, 모범 인민반, 모범 가정 창조 운동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다.

보건 위생 사업 개선은 심각한 사상 개조 운동인 것만치 이것을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도 당 위원회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 실천을 위한 대책을 각급 당 단체에서 토의케 하며 기타 사회 단체들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토의 강구케 하였다.

농촌 건설의 촉진을 위한 사업

농촌에서의 문화 혁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하여 그의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는 문제는 역시 중요하다. 농촌 건설은 바로 그의 물질적 기초로 된다.

도 당 위원회는 농촌 건설 사업에서 생산적 건설에 중점을 두면서 문화 농촌 건설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문화 혁명이란 빈 소리에 불과하며 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극히 명백하다.

도 당 위원회는 내각 결정에 의하여 신천, 재령, 안악을 비롯한 배천, 벽성, 연안, 옹진에 대한 농촌 집중 건설과 각 시, 군 시범 건설에서 금년도에 예견된 5,400동의 농촌 문화 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시키는 한편 기타 사회 리용 시설, 문화 위생 시설에 대한 건설을 광범히 진행하고 있다. 금년도에 신천, 재령, 안악에만 하여도 3천 동에 달하는 아담한 표준 문화 주택이 완성되며 그 외 각 지방들에서는 유치원, 탁아소 31개소, 목욕탕 신설 742개소, 변소 5,400 여 개소의 신개축을 비롯한 우물 개조 등 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농촌 건설 부문 앞에 제기된 이 방대한 과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도 당 단체는 도 인민 위원회를 위시한 각 시, 군 정권 기관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였다. 도 인민 위원회는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킬 데 대한 구체적인 조직적 대책을 강구하였다. 각 시, 군들에서는 당 단체, 정권 기관, 각 사회 단체들의 성원으로서 농촌 건설 지도 위원회를 구성케 하고 이 위원회를 통하여 집중 건설 지구의 설정, 시범 건설 대상의 리 또는 협동 조합을 선정하는 등 농촌 건설에 대한 지도 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하여 신천군에는 새날, 벽성군에서는 옥정, 배천군에서는 금성 농업 협동 조합, 재령군에서는 고잔리 지대에 대한 집중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재령군 고잔리 지대의 건설은 4—5개 리를 포괄하는 방대한 것으로 1—2년 내에 1,500—2,000 세대에 달하는 대 집단 부락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도 당 단체는 이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건설 기능자 양성과 건설 부재 생산을 건설에 선행시킬 데 대한 문제에 신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각 건설 지구 단위에는 건설대를, 각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건설반을 조직하며 지방에 따라서는 부재 생산 협동 조합 등을 조직하였다. 이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한 기에 약 5백 명을 포괄하는 3개월 간 단기 강습을 조직하고 있으며 시범적인 집중 건설들에 건설 부문 일'군들을 광범히 참가시킴으로써 우수한 경험을 섭취하는 동시에 그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부재 생산을 건설에 선행시키며 그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원료 원천을 적극 동

원시키는 방향에서 석비레, 스레트, 채석, 기와, 로벽돌 생산을 광범히 조직 진행하고 있다. 벌써 배천군 금성 농업 협동 조합과 신천 새날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강도 70도 이상의 석비레와 기와 등을 이미 생산하여 건설에 리용하고 있다.

또한 농촌 건설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농촌 건설의 지표인 건설 계획도를 정확히 작성하는 문제이다. 매개 지방의 자연 지리적 조건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농촌 건설 총계획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기술자들을 226명이나 도내 각 지방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 계획도 작성 사업은 금년 8월 20일까지 완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농촌 건설을 위한 부재 생산, 총계획도 작성 사업 등 준비 사업들이 점차 완성됨에 따라 본격적인 농촌 건설이 진행될 것이다.

* *

도 당 위원회는 농촌 문화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 지도 사업에 있어서 적지 않은 교훈을 얻게 되였다.

그것은 우선 도내 일부 당단체 지도 일'군들을 비롯한 정권 기관, 근로 단체,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이 문화 혁명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그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로부터 사상적 준비가 부족하고 이 부문 사업에 관심을 적게 돌리는 현상들을 발로시켰는바 이것은 응당 거둘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문화 혁명은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인민 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정권 기관내 일부 일'군들은 정권 기관의 문화 교양자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관심을 적게 돌렸으며 또 일부 일'군들 속에서는 당면한 경제 건설에만 급급하고 문화 혁명 과업을 차요시하는 현상들이 발로되였다.

도 당 위원회는, 최근 수차에 걸쳐 우리 도의 현지 지도에서 주신 수상 동지의 교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선전 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그를 대중 속에 깊이 침투시키는 한편 문화 혁명 과업 수행의 더 구체적인 도적 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신천군에 집중 지도 그루빠를 파견하였다. 군에서는 다시 력량을 배합하여 평야 지대, 산간 지대별로 연구 그루빠를 파견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연구 사업은 많은 긍정적 결과들을 가져 왔다. 주민들의 지식 수준 제고를 위하여 년령별, 계층별 료해 사업을 실시하고 통계적 분석을 한 결과 도적으로 일체 지식 수준을 재조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였다. 특히 여기서는 재문맹화의 원인도 구명되였는바 그것은 성인 교육이 깜빠니야에 그치고 계속 그를 추진시키며 배움의 의욕을 고무하기 위한 조직적 대책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게 되였다.

장기간의 집중 지도와 조사 연구 사업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교훈적인 경험들은 앞으로 우리 도가 문화 혁명을 추진시킴에 있어서 한 걸음 더 구체적인 전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하였다.

오늘 초보적 단계에 들어 선 농촌 문화 혁명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리기 위하여 우리 도 당 단체 앞에 제기되는 중요한 과업은 우선 당 일'군 자신들이 문화 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과 맑스—레닌주의 리론을 옳게 파악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 특히 우리 도의 실정에 적합하게 당의 방침을 실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원되는 데 있다. 또한 과학, 문화, 보건 인테리들을 이 사업에 광범히 인입하며 전체 선전 선동 력량을 동원하여 문화 혁명에 대한 당의 방침, 그의 실천 방도들을 인민 대중 속에 계속 철저히 침투시키는 동시에 구체적인 조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 혁명을 위한 사업은 사회주의 경제 건설 과업 특히 우리 도가 처하고 있는 환경과 지리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반드시 반혁명 분자들과의 투쟁, 농민들의 계급적 각성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정신을 고취하는 교양 사업과 밀접히 결부되여야 한다. 동시에 인민 대중을 광범히 인입시키기 위한 대중적 경쟁 운동의 조직 전개, 정권 기관들의 문화 교양자적 기능을 높이는 문제와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여야 한다.

황남도 당 위원회는 농촌 문화 혁명을 추진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이미 달성한 성과를 일층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의 종국적 승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투쟁할 것이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몇 가지 문제

조선 로동당 평양시 위원회
산업부장 박 원 근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이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매 시기에서 제기되는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경제 기관들과 근로 대중의 혁명적 정열과 창조적 재능을 조직 동원하며 이 부문내 간부들을 계통적으로 육성 선발 배치하며 당 단체들의 자립성과 전투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기본 목적은 당 경제 정책의 관철을 보장하는 데 있다.

우리 당 경제 정책에는 항상 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객관적 요구가 반영되는만큼 그의 관철을 보장하기 위한 지도 방법도 고정불변할 수 없다. 다른 모든 당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도 창조적 사업이다. 변화되는 환경과 당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에 상응하게 당적 지도 방법을 부단히 개선함이 없이는 경제 정책의 관철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경제 사업 지도에서의 당 단체들의 중요한 임무는 당의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 옹호하며 그의 관철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적 지도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는 데 있다.

* *

일찌기 레닌은 문제의 전 련쇄중에서 가장 기본적 중심 환절 즉 그 고리를 해결함으로써 이여의 모든 고리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심 환절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의 해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레닌의 이 교시는 당 사업, 경제 사업 일반을 해결함에 있어서나 또는 개별적 경제 과업을 해결함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해당된다.

평양시 당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금년 초에 경제 사업 지도에 대한 전망 계획을 수립하고 시기와 선후차를 구분하여 우선 중요한 기본 문제들에 당 위원회와 당 단체들의 력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긍정적 결과들을 달성하고 있다.

시 당 위원회가 실시한 건설 부문에 대한 지도가 그러한 례의 하나이다. 제 1차 당 대표자회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주택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평양시에서는 이 기간에 8만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다.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과 건설 속도를 보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당 중앙 위원회는 이러한 난관들을 해결할 수 있는 명백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다. 즉 당은 다른 모든 경제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건설 부문 앞에 제기되는 경제적 과업들을 해결하는 기본 고리로서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것을 제기하였다.

시 당 위원회는 《값싸고 쓸모 있는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건설하자》라는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건설 원가를 대담하게 낮춤으로써 더 많은 주택 건설의 예비를 얻어내며 부재 생산 능력을 확장하여 조립식 건설 방법을 더 광범히 도입

함으로써 건설 속도를 보장하도록 하는 이 기본 고리를 튼튼히 틀어 쥐고 전체 건설 일'군들을 조직 추동하였다. 이 사업 초기에 일부 당 및 경제 기관 지도 일'군들은 당이 내세운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구호를 똑똑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예비 탐구에서 대담성과 확신성이 부족하였다.

시 당 위원회는 김 일성 동지의 직접적 지도를 받으면서 시 및 구역 당 기관 간부들과 열성자들을 망라하여 100 여 명으로 되는 지도 그루빠를 조직하고 기본 건설 부문에 대한 집중적 지도를 실시하여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당의 구호의 정당성을 모든 건설 일'군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한 결과에 당의 방침을 똑똑히 파악한 건설자들과 설계 일'군들은 7천 세대에 해당한 자금으로 1만 7천 세대의 주택을 건설할 데 대한 창발적 발기를 하고 궐기하였으며 이 운동은 다시금 2만 세대의 건설 운동으로 확대 발전되여 지금 승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택 건설에서 조립식 비중은 95%라는 기록을 내고 있으며 그 조립 속도도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금년 3월에 벽체 한 개를 15—20분에 조립하였다면 지금 선진 조립공들은 그를 3분 내에 조립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건설 부문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혁명의 불'길은 산업 건설, 공공 건물 시설 공사 등 모든 건설 부문을 휩쓸면서 시각을 다투어 새 기준과 통방빠넬, 벽판 골조식빠넬 등 새 기술들을 속출시키고 있으며 시내에서는 앞으로 방대하게 요구되는 건설 사업을 현대적 조립식 방법에 의하여 더욱 빠른 속도로 더욱 훌륭하게 진행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가질 수 있게 되였다.

여기에서 레닌의 다음과 같은 명제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다. 《…어렵다는 것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된 진로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인데 이 확신은 기적을 수행할만한 혁명적 정력과 혁명적 열정을 백배나 강하게 하는 것이다》(전집, 제 9권, 1분책 152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우에서 말한 바와 같은 건설 사업에서의 혁신은 그 부문에 대한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 쥐고 그의 정당성을 근로 대중에게 확신시킨 데 기인된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당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중심을, 다시 말하면 당의 방침을 튼튼히 틀어 쥐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그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확신시키는 정치 사업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문제 해결의 중심 고리를 옳게 장악하였다 하더라도 경제 사업과 정치 사업을 옳게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경제적 과업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중을 고무 추동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 당 위원회는 매 시기에 있어서 당이 내세우는 경제적 문제의 중심 방향과 그의 수행 방도들을 산하 당 단체들과 대중 속에 깊이 해석 침투시킴으로써 당 정책 실현을 위한 대중의 신심과 자각적 열성을 높이여 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중의 자각적 열성 정도는 당 정책에 대한 인식과 파악 정도 여하에 적지 않게 좌우되는 바 이는 당의 군중 로선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당 정책 실천에서 기본적인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당 경제 정책에 대한 대중의 자각성과 열성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제적 성과는 클 것이며 우리의 전진 운동을 가로 막는 일체 불건전한 요소들이 제거될 것은 자명하다.

얼마 전에 시 당 위원회 집행 위원회에서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증대되는 로력의 수요를 원만히 해결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를 기본으로 하면서 녀성들을 생산 직장에 광범히 진출시킴으로써 경로동 부문의 청장년들을 인민 경제의 보다 중요한 부문에서 일하도록 하는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 결정 집행의 초시기에는 일부 일'군들 중에 있는 기관 본위주의, 보수주의, 개인 공명 등 불건전한 사상 경향 때문에 적지 않은 장애가 있었다. 시 당 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로력 문제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시내 실정을 대중들에게 자세히 알려 주었다. 그러한 결과 교육 도서 인쇄 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의 많은 로동자들이 인민 경제의 더 중요한 부문과 건설장에 진출시켜 줄 것을 자원하여 나왔다. 대중들이 당의 방침을 자각하였을 때 그의 힘이 얼마나 강대한가 하는 것은 이 사실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리하여 시내에서는 경로동 부문에서 일하던 수백명의 청장년들이 출선 건설장에 진출하고 경로동 부문 로력은 녀성들로 보충되고 있다.

대중의 자각성——이것은 어떠한 곤난과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담보이다.

문제는 우리의 지도 일'군들이 당적 지도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중의 자각적 열성을 불러 일으킬 줄 아는 수완과 령도 예술에 달려 있다. 당 중앙 위원회 1956년 12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과 그의 총화를 통하여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들을 선두로 한 지도 그루빠들의 군중적 지도 작풍과 지도 방법은 당 단체들과 일'군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큰 학교로 되였다.

고무 공장 당 위원회의 사업 경험은 그러한 좋은 실례로 된다. 이 공장 지도 일'군들은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당의 호소를 받들고 그의 실천에서 생고무를 더 많이 절약하는 것을 중심 과업으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지배인, 기사장을 비롯한 몇몇 관리 일'군들은 생고무를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에 대하여 3일간 계속 토의하였다. 3일 간의 토의에서 중심 대상은 제품의 질을 보장하면서 생고무의 원단위 소비 기준을 낮추는 문제였다.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지난 기간의 경험을 다 발휘하여 겨우 40톤의 생고무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후 이들은 당 중앙 위원회의 모범을 따라 이 문제를 대중적 토의에 부치기로 결정하였다.

얼마후 이 공장에서는 당 회의들과 생산 협의회들에서 내부 예비 탐구를 위한 전 군중적 토의가 진행되였다. 많은 핵심 로동자들의 의견에 의하여 생산 협의회들에서는 원단위 소비 기준의 저하, 대용 원료의 도입, 기계화 수준의 제고 등 방법으로써 200톤 이상의 생고무를 절약할 수 있는 예비를 탐구하여 냈다. 로동자들은 여기서 머물지 않았다. 그들은 탐구한 생고무로써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와 로력 예비를 탐구하는 일에 착수하였다. 그들은 흑고무신 직장과 백고무신 직장을 통합하여 생산 면적을 더 얻고 2인 2대공을 2인 3대공으로 전환한다면 60 여 명의 로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제화공 임 순실 동무의 발기를 지지하여 그를 훌륭히 실천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공장 로동자들은 절약한 생고무를 가지고 7억 원 이상에 해당한 고급 비옷, 우화, 고무 호스 등 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경험은 지도 일'군들의 능숙한 지도와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이 완전히 결합되는 때에라야만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전변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시내 근로자들은 1957년 계획보다 26%나 더 장성된 1958년 계획은 물론, 증산과 절약을 위한 예비를 적극 동원하여 산업 도매 가격으로 43억 원 이상의 상품을 증산할 것을 결의하고 그를 훌륭히 실천하고 있다.

당 단체들의 과업은 5개년 계획을 초과 완수하며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추진시키기 위하여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옳게 조직하며 향도하는 데 있다.

※ ※

우리의 경험은, 경제 건설의 성과는 근로자들의 기세에 달려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세는 지도 일'군들의 당성과 책임성, 그들의 계급적 군중 관점과 인민적 사업 작풍에 크게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 사업 역시 결국은 사람들과의 산 창조적 사업이다. 일부 경제 기관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산

의 량적 및 질적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기업 관리에서 이러저러한 부정적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해당한 기술—경제적 요인이 해명되지 못한 데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는 그를 관리 지도하는 일'군들의 사상 문제에 기인되는 것이다. 이는 순전한 기술적 문제로 보이는 그러한 경우에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기술을 관리하고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사업에서 이러저러한 현상을 낳게 한 사람들의 정치 사상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만이 기술—경제적 요인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 기본 건설 분야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기본 건설에 대한 당의 정책을 의식적으로 외곡 집행한 반당 종파 분자 박 의완, 김 승화 등과 얼마 안되는 그의 추종 분자들을 폭로 규탄하고 그들의 사상 여독을 청산하는 투쟁을 강화한 데 있다.

다른 례로서 금년도 상반년 기간에 동평양 양초 공장, 평양 곡산 공장, 평양 목재 가구 공장, 서평양 철도 공장, 북구역 내 삼신 탄광들에서는 인민 경제의 량적, 질적 지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는바 그 원인은, 이러저러한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는 기계 사고, 기술 부족, 원자재 부족 등의 객관적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지도 일'군들의 무책임성, 안일성, 보수성, 부화방탕 등의 사상적 병'집에 기인되였었다. 즉 사동 탄광에서 인민 경제 계획을 미달한 것은 기본 굴진을 선행시키지 못하고 170메터의 헛굴진을 한 데 있는바 이것은 바로 이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담당한 전 기사장 김 종려의 사상적 결함에 기인되였다. 이 자는 우리 당과 정부의 시책을 은근히 반대하면서 의식적으로 석탄이 나오지 않는 곳을 굴진케 하고 굴이 터져 갱에 물이 침수되게끔 《지도》하였다. 역시 동평양 양초 공장에서 생산 계획을 미달한 것도 전 지배인 려 구화가 국가 재산을 탐오 랑비하면서 직장 내에서 불순한 분자들과 결탁하여 가족주의를 조성하고 로동자들의 창발적 제기를 묵살한 데 적지 않게 관계되였다. 결국 이것은 당 단체들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잘 하지 않았고 그들 속에서의 당 정치 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였다는 데 귀착된다.

얼마 전에 시 당 위원회는 평양 견방직 공장을 지도하면서 생산이 가장 락후한 3직포 사업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의 중요한 결함은 불철저한 기계 보관 관리와 불합리한 로력 조직, 그리고 로동자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하여 주지 않은 데 있었는바 그의 대부분은 기술 일'군들의 책임하에 수행되여야 할 사업들이였다. 그러면 기술 일'군들이 과연 이것을 몰라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기사장 동무가 솔직히 인정한 바와 같이 기술 관리 사업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결함만 들추어 가지고 비판하기 때문에 위축되여 자기 사업에 영예감을 가지지 못하고 열성을 발휘하지 않았다. 이것은 경제 건설에서 당성이 미약한 표현이다.

지도 그루빠는 이와 같은 실정을 포착하고 당 위원회의 지도 방법을 개선케 하며 일'군들의 사상 관점을 바로 잡아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후 3직포 사업은 점차 개선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즉 위권기(緯捲機)의 자동 장치 및 사장되여 있던 호뻐기의 도입, 목관 보장 등 기술적 대책들이 취해졌고 부직공장, 위권공 등 기능 력량의 합리적 배치, 기술 전습 사업의 강화 등 제 대책을 강구한 결과 일산 8천 메터로부터 1만 600메터까지 생산하게 되였으며 그 기간 설비 리용률은 7%나 제고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당 단체들이 사람들과의 사업을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강화하며 지도 일'군의 당성 단련을 위하여 그들의 당 생활을 일상적으로 통제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함북도 당 및 정권 기관, 사회 단체 일'군들 앞에서 진술한 자기의 연설에서 《경제 건설 분야에서 당성을 견결히 고수하여야 하겠다. 일련의 경제 부문에서는 아직도 당 정책과 결정을 연구 침투시키며 그를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경제 분야에서 당원들의 당성이 부족한 표현이다》라고 교시하시였다. 결국 경제 분야에서 당성 문제는 1958년 인민 경제 계획과 나아가서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실행 여부를 좌우하는 결정적 문제이라는 것을 우리는 단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당 위원회들과 당 단체들은 김 일성 동지의 교시를 지침으로 하여 경제 부문내 당 및 경제 일'군들이 자기의 온갖 지혜와 혁명적 정열을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우리의 혁명 과업 수행에 남김 없이 발휘하도록 그들의 당성 단련과 당 정책 교양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 부문 지도 일'군들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매 시기에 있어서 당이 내세우는 경제적 과업과 방침을 자체 실정에 적응하게 집행할 대책을 수립하고 그 집행에로 대중을 옳게 조직 동원하며 경제 관리 사업을 새 환경에 알맞게 부단히 개선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 일'군들의 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특히 경제 부문 지도 간부들의 선발 배치 및 육성 사업에 주목을 돌리며 그들의 활동 정형을 부단히 통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당의 핵심을 부단히 확대 강화하며 인민 경제의 중요 부문과 뒤떨어진 부문에 당의 핵심 력량을 옳게 포치하여 계획 수행에서 당원들의 선봉적 역할을 보장하도록 지도하는 데 류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평양시 당 위원회는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함에 있어서 경제 부문내 초급 당 단체들의 자립적 활동과 그의 전투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시 당 산하 일부 당 단체들에서는 아직도 사무실적 사업 작풍과 행정 대행의 경향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당 사업을 행정화하는 경향들과 투쟁하며 지도를 하부에 접근시키지 않는 사무실적 사업 작풍을 퇴치하기 위하여 각급 당 지도 기관들과 매개 당 일'군들이 더욱 정열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기간 당 사업에서 행정화의 경향은 당 위원회 경제 부서들에서 더욱 농후하였다.

이런 경향은 주로 정치적 지도와 당적 통제의 본신 임무로부터 떠나 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자기를 과대 평가하면서 당적 직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쉽게 하려는 그러한 지도 일'군들 속에서 보다 현저히 발현되고 있다.

당 사업에서의 행정화의 경향을 근절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각급 당 지도 기관들과 당 일'군들의 행정 대행의 경향을 발생시키는 공통한 사상적 근원인 관료주의, 주관주의, 공명주의, 보수성, 조급성 등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그러나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와 행정 사업 대행을 혼동하여 경제 사업 지도를 약화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례를 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닥치게 된다.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평양시내 건설 사업에는 건설 건재 공업성을 비롯한 경공업성, 교통성, 기계 공업성 및 기타 일련의 성 산하 기업소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성 산하 기업소 건설장에서는 모든 작업 조건이 다 준비되여 있으나, 자동차 기중기, 엑쓰까와또르 등 건설 기계가 부족되여 건설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성 산하 기업소에서는 그러한 기계들이 일이 없어 쉬고 있으며 또한 어떤 건설장에서는 미장 기능공들이 부족되여 주택 조업 개시를 지연시키고 있으나 다른 현장들에서는 미장공이 자기 전문 기능을 떠나 굴착 작업 기타 잡무에 종사하고 있다. 시 당 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조절하는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얼마 전에 인민군 추모탑 동상을 주물할 때에 동상 주물공들이 부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각 기업소들에 산재되여 있는 이 기능공들을 선발해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였다.

우리 시 당 기관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의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들을 진행하여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물론 이것은 당 기관들의 기능과 경제 기관들의 기능의 여하한 혼돈도 의미하지 않으며 또는 당 기관에 의한 경제 기관의 대행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 사업이 대중을 조직 교양하며 경제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며 사회주의 경제를 부단히 장성시키며 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복리를 향상시키는 데 집중되여야 한다는 원칙과 배합되기 때문이다.

당 위원회 경제 부서들은 경제 사업을 정치적으로 지도 통제하며 해당한 당 위원회 사업의 전반에 걸친 문제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충분한 준비 밑에서 경제 부문내 초급 당 단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평양시 당 위원회 산업부는 지난 기간 지나치게 구역 당 위원회가 할 사업까지 도맡아 가지고 직접 사업함으로써 경제 사업 지도에 대한 구역 당 위원회의 책임성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도의 산만성과 불필요한 중복을 초래케 하였다.

시 당 위원회는 이러한 결함의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부 지도원들에 대한 사업 분담을 경제 부문별과 지역별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담당 지도케 하고 지도 방법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종전에 부서 지도원들의 사업 분담은 방직 공업, 일용품 공업, 기계 공업, 식료품 가공 공업 등 경제 부문별로 담당 지도케 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지도원들이 전문적으로 한 부문을 연구하며 경험을 민속하게 보급 일반화하고 해당한 경제 성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점에서 긍정적이였다.

그러나 일용품 공업, 식료품 가공 공업 등 경제 기업소들이 어느 한 구역에 집중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들에 흐터져 있다. 그러므로 지도원들이 적지 않은 시간을 길에서 보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사업 지도에 대한 구역 당 위원회의 활동을 제고하는 데 유효한 방조를 주지 못하였다. 지도원들이 구역 당 위원회와 련계를 가진다 하더라도 오늘은 방직 부문을 담당한 지도원이, 다음은 일용품 공업, 식료품 공업 등의 담당 지도원들이 가서 제각기 자기 맡은 부문의 임무를 달성하는 데 유리하게 사업하며 경제 전반에 걸친 구역 당 위원회의 활동을 높이도록 사업하기 곤난하였다. 구역 당 위원회들은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어느 한 부문이 아니라 모든 부문내 당 단체들을 강력한 정치적 조직체로 만들며 매개 당원들이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선봉적 역할을 다하도록 교양 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시 당 위원회는 산업부 지도원들의 사업 분공을, 공업 기업소에 대하여는 구역별, 건설 운수 체신 부문에 대하여는 부문별, 지역별을 배합하여 담당 지도케 하고 있는바 이러한 결과에 종전보다 지도원들이 경제 사업 지도에 대한 구역 당 위원회의 활동을 깊이 연구하며 책임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경제 사업에 대한 사무실적, 관료주의적 지도 작풍과 행정 대행의 경향을 결정적으로 퇴치함이 없이는 초급 당 단체의 자립성을 제고할 수 없다.

초급 당 단체들과 지도 일’군들이 경제 건설에 대한 실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높은 책임감의 정신으로 충분히 교양되고 사무실에서 해방되여 경제 문제들을 깊이 파고 들며 대중 속에서 실효 있는 조직 정치 사업을 진행할 줄 아는 능력을 소유하였을 때 당적 지도와 통제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현재 초급 당 단체들의 중요한 결함은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통제의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당 사업을 행정화하는 경향을 많이 나타내는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기업소 내의 당 단체는 자기 단위의 사업을 지도 통제할 권리가 있다. 당은 초급 당 단체를 통하여 당의 정책과 로선을 당 내외에 있는 군중의 실제 행동으로, 물질적 힘으로 전변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급 당 단체는 당의 정책과 령도의 실현을 정치적으로 보장할 중책을 지니고 있다. 초급 당 단체가 지도와 통제의 역할을

원만히 발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행정 대행의 경향을 퇴치하고 분공 책임제를 결합한 집체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적 군중 로선을 관철하는 사업 방법을 체득하여야 하며 당 조직이 가지는 본신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생산 직장내 당 단체들의 통제권——이는 밑으로부터의 통제이며 당원 대중에 의한 통제이다. 초급 당 단체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 경제 정책을 파악하고 그의 관철을 위한 책임을 자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경제 기관 행정 지도 일’군들이 당 정책에 튼튼히 립각하며 당 단체들과 당원 및 근로 대중의 창발성에 의거하여 사업하도록 그들을 교양하며 지도 방조하여야 한다.

개별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생산의 중요한 문제들이 당 조직의 집체적 의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책임자의 말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다. 그들은 《기업소 행정 책임자는 국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서 《초급 당 단체의 지도가 없어도 그대로 생산 과제를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건설 건재 공업성 제 8 건설 트레스트 행정 책임 일’군들은 《당 위원장 동무는 나에게 모두 맡겨 주시오》까지 하면서 당적 지도를 경시하였다.

이러한 지도 일’군들은 대중들을 설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로동자들의 로동 및 생활 조건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로동자들의 정당한 의견을 신중히 연구하지 않는다. 초급 당 단체는 이러한 경향과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된다.

⁂ ⁂

우리 당 앞에 제기된 중대한 경제적 과업은, 당 단체들의 조직자적, 지도자적 역할을 제고하며 당과 군중과의 련계를 가일층 밀접히 하며 경제 건설에 대한 당 및 국가 기관들의 지도 사업을 일층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 및 경제 지도 일’군들의 령도 방법과 사업 작풍을 개선하는 문제이다.

아직 일부 당 및 경제 지도 일’군들 중에는 당적 지도와 인민적 사업 작풍과는 인연이 없는 형식주의적 보수주의적 관료주의적 작풍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의 지혜와 창발성을 조직 동원하며 향도하는 군중적 작풍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당 및 경제 지도 일’군들은 국가에서 맡은 인민 경제 계획을 량적 질적으로 책임성 있게 수행하지 않으며 생산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과 독단으로써 일을 망탕 처리하며 생산의 기술적 개선에 노력하지 않고 대중의 창발성을 억압하며 자체의 정치 실무 능력 제고에 노력하지 않아 현실에서 락후되고 있다. 이러한 일’군들 속에서 관료주의 특히 형식주의, 보수주의 및 침체성의 경향이 많이 발현되고 있으며 그것은 앙양되는 근로 대중의 정치적, 로력적 열성을 옳게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저해를 주고 있다.

그러므로 당 단체들은 자본주의적 낡은 사상 의식 잔재의 표현인 개인 리기주의, 출세주의, 고용자적 노예 근성 등의 사상적 근원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일’군들의 지도 능력과 령도 방법을 개선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 령도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의 결합이다.

일반적 지도와 개별적 지도를 옳게 결합시킴으로써만 당의 경제 정책을 인민 대중의 실생활과 사업에 결부시키며 인민 대중이 창발성을 발휘하도록 조건을 지어 주며 그것을 일반화할 수 있다.

일부 당 지도 일’군들은 당 위원회 경제 부서 혹은 기업소 당 위원회 지도 성원들이 적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구체적 지도가 곤난하다고 한다. 문제는 지도 성원수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 일’군들이 당의 경제 정책을 심오하게 연구하고 경제 지식을 습득하며 하부 지도의 질을 높이며 지도의 방법을 개선하는 데 있다.

당 단체들은 경제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일’군들의 당성 단련을 위한 사업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함으로써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영예로운 당적 임무를 완수할 수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와 방향

김 인 정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5개년 계획에 관한 법령에는 이 기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계속 관철시키며 이에 기초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을 2.6배 이상, 그 중 생산 수산 생산은 2.9배, 소비재 생산은 2.2배로 각각 장성시키며 알곡 생산은 1961년에 가서 376만 톤 이상 생산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이 기간에 도시에서는 1,000만 평방메터 이상의 현대적인 주택과 농촌에서 20만 동 이상의 문화 주택을 건설할 것이 규정되여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 인민 경제 발전의 이와 같은 급속한 템포는 방대한 기본 건설 사업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보장될 수 없다. 기본 건설은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을 실현하여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축성하며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조성한다.

확대 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생산 수단과 로동력의 확대 재생산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로동 수단은 사회주의적 재생산 행정에서 고정 폰드의 형태를 취하는바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은 기본 건설에 의하여 수행된다. 그러므로 기본 건설은 확대 재생산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되며 따라서 제 1차 5개년 계획에서 생산의 급속한 장성 템포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방대한 기본 건설 사업이 수행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생산적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도 기본 건설에 의하여서만 수행된다. 기본 건설은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체계적인 향상을 위하여서도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바 특히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주택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방대한 기본 건설 사업이 수행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본 건설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 *

인민 경제 각 부문들의 급속한 발전과 인민의 생활을 개선 향상시킴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으로 되는 고정 폰드의 확대 재생산의 규모는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므로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는 사회주의 확대 재생산의 템포와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 향상의 속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된다.

사회주의 경제 제도하에서는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와는 달리 생산의 급속한 장성 템포와 함께 기본 건설 투자 규모의 급속한 장성 템포가 특징적이다. 우리 나라에서 기본 건설 투자 규모의 급속한 장성 템포는 제 1차 5개년 계획에서의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에서도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발전과 사회 문화 후생 시설의 건설을 위한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1,470억원 이상이며 농업 협동 조합들의 자체 자금에 의한 기본 건설 투자액과 기타 협동 단체 자체 자금에 의한 기본 건설 투자액을 합산한다면 그 총액은 실로 1,900억원에 달한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자금에 의한 기본 건설 투자액은 약 803억원이였으며 협동 단체 자체 자금에 의한 투자액을 포함한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약 806억원에 달하였었다. 이것을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액과 대비하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 규모의 급속한 장성 템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년 평균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109% 이상으로 장성되며 농업 협동 조합과 협동 단체 자금을 포함한 년 평균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실로 141%로 장성하게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 해인 1957년도의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271억원에 달하였는바 이것은 1956년에 비하여 109%로 장성한 것으로 된다. 1957년도 기본 건설 투자의 실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장성 템포가 현실적인 것이며 그는 반드시 초과 수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다.

우리 나라에서 기본 건설 투자액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천은 사회주의적 축적이며 사회주의적 축적의 유일한 원천은 국민 소득이다. 때문에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에 근거한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는 소비와 축적간의 호상 관계에서 일정한 변동이 없는 조건하에서는 국민 소득의 장성에 기초하여 규정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국민 소득은 급속한 템포로 장성하게 되는바 1961년에 가서 이는 1956년에 비하여 약 2.2배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국민 소득의 이와 같은 장성은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액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된다.

그리하여 5개년 계획 말인 1961년에는 농업 협동 조합들과 기타 협동 단체의 자체 자금에 의한 투자액을 포함한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1956년에 비하여 약 1.6배로 장성하게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는 우리 당 경제 정책——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국민 소득의 장성에 기초하여 규정되였는바 그것들의 장성 템포간의 호상 관계에는 전후 복구 건설 시기의 특성이 반영되여 있다.

이미 지적한 자료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국민 소득의 장성 템포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 템포를 훨씬 릉가하게 된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는 이와는 반대로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 템포가 국민 소득의 장성 템포를 훨씬 릉가하였었다. 즉 1953년에 비하여 1956년에 국민 소득이 약 2.1배로 장성되였다면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약 3.1배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호상 관계는 우리 나라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의 특성과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기간에 있어서의 확대 재생산은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의 장성에만 의거하여 진행된 것은 아니였다. 특히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는 불타 버린 폐허 우에서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의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에 많이 의거하면서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켜 왔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 수입이 국가 예산 수입 총액중 23.6%를 차지하였는바 이것은 인민 경제를 복구 발전시킴에 있어서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가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3개년 계획 기간 말인 1956년에만 하여도 국가 예산 수입 총액중 대외 원조 수입은 약 16% 이상을 차지하였

다. 형제적 국가들로부터 받은 원조는 확대 재생산과 인민의 소비를 위하여 적절히 리용되였는바 특히 그 중 많은 부분이 전후 복구 건설 시기에 있어서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에 의거하여 확대 재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위하여 돌려졌다. 확대 재생산을 위하여 돌려진 원조 수입의 많은 부분은 기본 건설을 위하여 리용되였다.

그러므로 1956년도의 기본 건설 투자액 중에는 국민 소득중 축적 폰드의 일부와 대외 원조 수입의 일부가 포함되여 있다.

그러나 제 1차 5개년 계획 말인 1961년에는 이와 같은 대외 원조 수입은 예견되여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1956년 기본 건설 투자 총액중에서 원조 수입에 의한 투자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기초로 하여 대비한다면 1956년에 비한 1961년의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 템포는 보다 높아질 것이다.

이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국민 소득의 장성 템포와 기본 건설 투자 규모의 장성 템포는 상당한 정도로 접근하게 될 것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의 급속한 장성 템포는 생산의 장성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국민 소득이 급격히 장성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의 각 부문 특히 공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과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국가 축적 폰드가 계속 장성될 것인바 이것은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의 장성을 위한 기초로 된다.

국민 소득의 장성에 기초하여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를 계속 장성시킴에 있어서 우리 당은 국가 축적 폰드의 체계적인 장성과 그의 합리적인 리용과 함께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축적의 장성과 그의 합리적 리용에 대하여서도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의 방대한 규모는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광활한 전망을 보여 주고 있다. 5개년 계획에 예견된 기본 건설 투자의 규모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인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인민 경제 발전을 위하여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본 건설 투자 총액 중에서 많은 부문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조업 개시를 하게 되나 또한 적지 않은 부문이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로 넘어 갈 예비적 건설로 된다. 이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는 제 1차 5개년 계획 뿐만 아니라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부단하고 급속한 장성 템포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된다.

*　　*

인민 경제의 확대 재생산의 템포와 균형을 규정함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부문별 분배 방향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확대 재생산의 균형은 인민 경제 각 부문들의 장성 템포에 의하여 규정된다. 인민 경제의 각 부문들의 장성을 보장함에 있어서는 그의 물질적 기초로 되는 고정 폰드의 장성이 필수적이다. 공업 생산의 체계적인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장들을 복구 건설하고 기술적으로 개건하여야 하며 농업 생산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관개 공사 등을 진행하여야 하며 인민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주택, 병원, 구락부 등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정 폰드의 장성은 기본 건설에 의하여 보장되며 따라서 인민 경제 각 부문들에서의 고정 폰드 장성은 기본 건설 투자의 부문별 분배 방향에 의하여 규정된다.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부문별 분배 방향은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인민 경제 발전의 각 단계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의 방향은 각이하게 설정된다. 기본 건설 투자액을 방향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그의 기초로 되는 것은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이다. 당과 정부의 경제 정책의 총로선은 앞으로의 인민 경제 발전의 방향을 명백히 제시하여 주며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의 전망과 기본 건설 투자 방향을 밝혀 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과 우리 당 제 3차 대회가 기본 건설 부문 앞에 제시한 기본 방향에 엄격히 의거하여 부문별로 분배되였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을 방향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적 건설 특히 중공업 건설을 위주로 하고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면서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균형적 발전을 보장하는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는 그것이다.

5개년 계획 기간의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은 생산적 건설의 보다 급속한 장성 템포를 예견하고 있는바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 중에서 생산적 건설의 비중이 3개년 계획 기간에는 73.1%였다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74%로 제고된다. 비생산적 건설에 비한 생산적 건설의 보다 급속한 장성은 이 기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의 높은 템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체계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생산적 건설을 위한 투자의 보다 급속한 장성의 보장은 앞으로 확대 재생산의 템포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물질적 기초를 튼튼히 축성하게 될 것이며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의 제고를 위한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게 된다.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또한 공업 건설 특히 중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의 우선적인 장성이 예견되고 있다. 즉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중에서 공업 건설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3개년 계획 기간에 49.6%를 차지하였다면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55% 이상 차지하게 된다. 공업 건설 투자액 중에서 중공업 건설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이 기간에 81.1%로부터 83% 이상으로 제고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우리 나라의 인민 경제를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끌어 올리며 우리 나라를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로 전환시킬 것이 예견되고 있다.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자립적인 공업—농업 국가에로의 전환은 인민 경제의 전반적 앙양과 함께 다른 모든 부문에 비한 공업 부문의 우선적인 발전, 그 중에서도 중공업의 우선적인 발전에 의하여 실현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및 농업 총생산액 중에서 공업 총생산액의 비중은 훨씬 제고될 것인바 1961년도에는 1956년에 비하여 공업 총생산액의 비중이 60%로부터 70% 정도로 제고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인민 경제 발전에서 공업 생산의 비중을 제고시키며 중공업 생산의 우선적인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의 고정 폰드의 우선적인 확장이 보장되여야 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총로선에 엄격히 의거하여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을 공업 건설, 그 중에서도 특히 중공업에 우선적으로 분배하였으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의 비중을 훨씬 제고시켰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함에 있어서 특히 흑색 금속 공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및 쎄멘트를 비롯한 건재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 경제의 연료—동력 기지를 계속 확장하는 데 깊은 주의가 돌려지고 있다.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업 건설 투자액 중에서 금속 공업에 대한 투자는 7%로부터 9.3%로, 기계 및 선박 공업에 대한 투자는 7.7%로부터 11%로, 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는 7.6%로부터 8.3%로, 쎄멘트 공업에 대한 투자는 3.3%로부터

4.4%로, 석탄 공업에 대한 투자는 5.3%로부터 12.5%로, 전기 공업에 대한 투자는 14.4%로부터 16.4%로 각각 제고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기본 건설 투자액의 이와 같은 분배 방향은 우리 나라 중공업 발전의 내부 구조의 현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강력한 중공업 토대를 가진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의 전망을 명시하여 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황해 제철소에 20만 톤의 능력을 가진 용광로 2기와 25만 톤 능력의 해탄로 2기를(용광로와 해탄로 각각 1기는 이미 복구되였음) 건설하고 평로 3기를 복구 개건하게 되며, 청진 제강소에서는 회전로 4기를 복구 및 신설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에 김책 제철소의 제 2호 용광로를 복구하며 제강 직장을 신설하는 공사를 비롯하여 기타 흑색 금속 공업 기업소들에서 신설 복구 확장 개건 공사들이 진행된다.

이리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흑색 금속 제품의 생산량은 3.2배 이상으로 장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기존 기계 제작 공장들을 완비 확장하는 동시에 희천 및 구성 공작 기계 공장을 비롯하여 건설중에 있는 공장들을 완성하게 되며 기계 제작 및 금속 가공 공업 생산에서 2.6배 이상의 장성을 보장하게 된다. 기타 중공업 부문들에서 수력 발전소, 탄광, 화학 비료, 화학 섬유 공장들과 세멘트 공장 등이 신설 복구 확장 개건되며 이에 기초하여 중공업 부문 생산의 급속한 장성이 보장된다. 이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공업화의 토대를 가일층 확고히 축성하게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공업에 대한 투자의 우선적 장성과 함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경공업 건설에도 거대한 규모의 기본 건설 투자가 예견되고 있다. 경공업 건설을 위한 투자의 규모는 국가 기본 건설 투자 총액중 17% 이상을 차지하는바 경공업 부문에 대한 년 평균 투자액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약 109%로 장성하게 된다. 중공업 부문 건설에 대한 투자의 우선적 장성으로 말미암아 경공업 부문 건설을 위한 투자의 비중이 5개년 계획 기간에는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18.9%로부터 17.1%로 저하되지만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한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년 평균 투자액의 이와 같은 장성은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견지하면서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정책이 관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본 건설 투자액을 방향별로 분배함에 있어서 의식주 문제 해결에 집중한 주의가 돌려지고 있는바 이것은 경공업 부문 투자의 구성에서도 명확히 반영되고 있다. 즉 경공업 건설 투자액 중에서는 방직 공업, 식료품 가공 공업 및 수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의 우선적인 장성이 예견되고 있다.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공업 건설을 위한 투자액 중에서 방직 공업에 대한 투자는 5.4%로부터 6.2%로, 식료품 가공 공업을 위한 투자는 2%로부터 3.3%로 제고된다. 그리고 수산업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3.8%를 차지하게 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평양 방직 공장 및 구성 방직 공장들의 확장과 평양 견방직 공장, 함흥 견직 공장들의 신설을 비롯한 많은 경공업 공장들이 신설 확장되며 이 결과에 5개년 계획 기간에 각종 직물은 2.5배 이상으로 장성됨으로써 1961년에 인구 1인당 직물 생산이 20메터를 훨씬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식료품 가공 공업 생산량은 3.8배로 장성하며 1961년에 가서 우리 나라의 총어획고는 65만 톤 이상에 달하게 된다. 이리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함께 경공업의 급속한 발전이 계속 보장될 것이다.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또한 농촌 경리의 급속한 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거대한 규모의 기본 건설 투자가 실시된다. 이 기간에 농업

건설에 있어서는 국가 투자에 의한 건설과 함께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동 축적 폰드에 의한 건설을 광범하게 전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5개년 계획 기간에는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농업 건설을 위한 기본 건설 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장성하게 되는바 농업 협동 조합 자체 자금을 포함한 기본 건설 총투자액 중에서 농업 건설을 위한 투자의 비중은 9.2%로부터 16.1%로 제고된다.

5개년 계획 기간에는 20만 정보 이상으로 관개 몽리 면적을 확장하게 되는바 기양 지구 및 어지돈 지구를 비롯하여 7만 5천 정보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들은 국가 기본 건설 투자에 의하여 실시된다. 이리하여 이 기간에 농업 생산력은 급속히 발전될 것이며 1961년에 가서 376만 톤 이상의 알곡 생산을 보장함으로써 알곡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농촌 경리의 다른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장성은 공예 작물 생산을 비롯하여 축산업, 과수업, 잠업 등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경공업 발전을 위한 원료를 해결하게 된다.

비생산적 건설을 위하여서는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 중 26%가 배정되였으며 협동 단체 및 농업 협동 조합 자체 자금을 포함한 기본 건설 총투자액 중에서 31.2%를 차지하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비생산적 건설을 위한 투자는 3개년 계획 기간의 투자의 규모를 훨씬 능가하는바 국가 자금에 의한 비생산적 건설의 년 평균 투자액은 105% 이상, 협동 조합 자체 자금을 포함한 비생산적 건설의 년 평균 투자액은 약 164%로 장성하게 된다.

비생산적 건설을 위한 투자액 중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따라서 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의 우선적 장성이 보장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 주택 건설을 위한 년 평균 국가 투자는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약 135%로 장성하게 되며 그리고 협동 조합 자체 자금을 포함한 년 평균 투자는 약 2.5배로 장성한다. 이리하여 기본 건설 투자 총액중에서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급격히 제고되는바 협동 조합·자체 자금을 포함한 기본 건설 투자 총액중에서 주택 건설의 비중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의 12%로부터 5개년 계획 기간에는 20.8%로 제고된다. 여기에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주택 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이 반영되여 있다.

기본 건설 투자 총액중에서 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의 비중을 제고시킴에 있어서 국가 투자의 증대와 함께 농업 협동 조합 자체 자금에 의한 주택 건설 투자도 증대된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있어서의 기본 건설 투자의 이와 같은 옳바른 분배 방향의 설정은 5개년 계획의 기본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앞으로 우리 나라 인민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확대 재생산의 급속한 템포를 보장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들은 5개년 계획에 예견된 기본 건설 계획을 온갖 창발성을 다하여 넘쳐 실행하여야 하는바 특히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와 10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근거하여 기본 건설 투자의 효과성을 백방으로 제고하기 위한 투쟁을 가일층 가강히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에 대하여

리 홍 종

우리 당은 혁명의 현 계단에 있어서 문화 혁명의 중요 과업으로서 사회주의적 도덕 교양과 생활에서의 문화성 제고를 절박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봉건적 및 자본주의적 사상 잔재를 청산하며 그들을 호상 협조하는 집단주의 사상과 공동 재산을 애호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며 《근로자들의 생활 양식과 관습에서 일체 락후한 것을 퇴치하고 도시와 농촌에서 모든 생활을 알뜰하게 문화적으로》 주릴 것을 교시하였다. (김 일성, 《청년 사회주의 건설자 대회에서 한 연설》).

근로자들의 의식 개조와 문화 혁명은 그것을 수행함이 없이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우리 나라에서의 심각한 사회 경제적 변혁은 그에 상응하는 근로자들의 문화 기술 수준의 제고와 사회주의 의식 및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의 확립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러한 문제를 일정에 올려 세울 수 있는 물질적 담보들이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의 도덕적 견해와 생활 태도의 기초는 사회의 경제 제도이다. 따라서 모든 시대에 있어서 각이한 계급들은 그의 사회 경제적 처지를 반영하는 각이한 도덕과 생활 태도를 갖는다. 엥겔스는 《반듀링론》에서 《사회가 종래 계급적 제 대립에 있어 발전해 왔으니만큼 도덕은 항상 계급적인 도덕이였다》(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22페지)라고 지적하였다. 부르죠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는 그의 사회 계급적 처지에 기초한 각이한 도덕적 견해와 생활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부르죠아지의 생활 태도는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주의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 특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다. 개인주의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를 적라라한 금전 관계로 변화시키며 개인의 탐욕적 리익을 사회적 리익보다 높이 내세운다. 금전과 치부——이것이 부르죠아지의 생활 목적의 전부이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지의 생활 목적은 필연적으로 착취와 기만, 라태와 방탕, 투기와 협잡, 리기주의와 자유주의, 인간에 대한 증오와 멸시 등 구역질 나는 생활 태도를 낳는다. 《미국식 생활 양식》은 개인주의의 극치이다. 이와 같이 부르죠아지의 생활 태도는 가장 추악하고 죄악적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생활 태도는 집단주의에 기초하고 있다. 집단주의는 개인의 리익과 사회의 리익을 결합시키며 개인의 리익을 사회의 리익에 자각적으로 복종시키는 《개인은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개인을 위하여》라는 원칙에 기초한 사람들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의 사상이다. 집단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사회적 처지와 계급적 특성에 의하여 발생 발전한다. 프로레타리아트는 착취자들과의 투쟁에서 호상 련대성과 원조, 공동 사업에 대한 충실성 등 집단주의 원칙을 착취 제도의 개인주의적 원칙에 대치시켰다. 사회주의의 승리는 전체 근로 대중을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할 가능성을 조성한다. 사회주의 국가는 실지로 전체 인민의 리익을 표현한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국가와 인민의 리익이 일치한다.

집단주의는 공산주의 도덕의 원칙이다. 웨. 이. 레닌은 《공산주의 도덕의 기초로 되는 것은 공산주의의 공고화와 완성을 위한 투쟁이다》(전집, 제 31권, 270페지)라고 지적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생활 목적은 자기 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전심 전력으로 복무하며 인류의 해방과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분투하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공산주의 위업에서 전 인류의 리익과 자기의 리익을 결합시키며 개인의 리익을 전 인류와 자기 계급의 리익에 자각적으로 복종시킨다. 이와 같이 숭고한 목적을 가진 프로레타리아트의 생활 태도는 순결하며 고상하다. 근면과 용감, 규률성과 단결성, 진취성과 창조성, 솔직성과 겸손성, 인내성과 락관주의, 모든 민족과 인민에 대한 존경과 친선 등——이 모든 것이 프로레타리아트에게 고유한 생활 태도이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주의는 지배적 사상으로 되였으며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가 점차 확립되고 있다. 이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 경제 제도의 변혁의 결과이며 우리 당이 수행한 거대하고도 다방면적인 교양 사업의 결실이다.

우리 당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을 완수한 후 사회주의 혁명의 결에 들어 섰다. 우리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벌써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우리 나라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경제는 이미 지배적 령도적 지위를 튼튼히 확립하였으며 정치 사상 전선에서도 위대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인민들의 계급적 처지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였으며 로농 동맹에 기초한 인민들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공고화되고 있다.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낡고 부패한 것이 허물어지고 새 것——사회주의적인 것이 발생 발전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관습, 생활 태도에서 사회주의적 요소가 흘러 넘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고 있으며 개인주의에 기초한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전통 및 관습들이 극복되고 있다. 사회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로력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태도에서, 인간과 가정에 대한 태도 등에서 집단주의가 확연히 발현되고 있다.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인민이 발휘한 애국주의와 대중적 영웅주의, 전후 인민 경제 복구와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의 근로자들의 로력적 위훈 등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의 명백한 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낡은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관습과 전통이 완전히 청산되였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우리 인민의 수천년의 력사에서 일찌기 체험하지 못한 급속하고도 심각한 사회 경제적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의식과 생활 태도는 전변된 그들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비하여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 일부 사람들의 생활 태도에서는 낡은 전통과 관습이 각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현상이 아니다.

변증법적 유물론은 사회 경제적 발전보다 사람들의 의식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낡은 도덕과 생활 태도의 기초인 개인주의는 수천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민이 살아 온 수천년의 봉건 사회와 반 세기에 걸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는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도덕이 지배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상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100 여 년에 불과하며 우리 나라에서 그것이 지배적인 것으로 되기 시작한 것은 10 여 년에 불과하다. 때문에 집단주의 사상과 함께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는 아직 개인주의가 남아 있어 집요한 저항을 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남반부를 강점한 미제와 그 주구들이 반동적 부르죠아 사상을 류포시키기에 광분하고 있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우리 생활에 아직 남아 있는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관습과 전통 및 편견들은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되고 있다. 때문에 우리 당은 낡은 사상 의식과 생활 관습을 철저히 청산하며 생기 발랄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적 도덕과 사회주의 건설자다운 생활 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현 시기에 있어

서 우리 나라에서의 계급 투쟁의 한 측면을 이루는 심각한 사상 개조 운동이다.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는 사회주의 건설의 촉진과 그 완성에 복무하는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을 배양하며 낡은 의식과 생활 습성을 극복하는 데서 확립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립하려는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와 극복하여야 할 낡은 봉건적 및 부르죠아적 생활 습성의 본질을 명백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는 당과 조국에 대한 태도, 로동과 사회적 소유에 대한 태도, 인간과 동지, 가족들에 대한 태도, 일상 생활 조직과 언어 행동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내용을 포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현 시기에 특히 강조하여야 할 몇 가지 문제만을 고찰하기로 한다.

❋ ❋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을 확립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 확립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된다. 이에 있어서 우선 사회 질서와 공중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활 태도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된다. 새로운 사회 제도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질서, 규률을 요구한다. 우리는 사회의 력사적 발전 단계에 있어서 각이한 성격과 각이한 형태의 규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곤봉의 규률로 특징 지어지는 농노제적 규률과 기아의 규률로 특징 지어지는 자본주의적 규률과 자각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사회주의적 규률이 그것이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규률은 곧 사회주의적 규률이다. 낡은 사회에서 근로 인민에게 강요된 규률이 착취 계급의 반동 통치를 유지함에 필요한 규률이였다면 사회주의적 규률은 인민의 리익,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률이다.

웨. 이. 레닌은 새로운 사회를 위한 투쟁 행정과 새로운 사회 건설 과정에서 대중이 수립하는 자유로운 자각적인 규률 속에서 공산주의 도덕의 본질을 보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산주의자에게 있어서 도덕이란 곧 이 단결된 공동 규률에 있으며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자각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에 있다》(전집, 제 31권, 269페지).

사회주의적 규률의 특징은 그것이 근로자들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되는 규률이라는 데 있다. 국가의 법령을 비롯하여 로동 규률과 사회 공중 규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규률은 전체 인민의 공통적 리익의 표현이며 사회 생활의 객관적 법칙의 반영이며 개인적 자유와 집단적 자유의 통일을 보장한다. 그러므로 사회 질서와 공중 규률은 그것이 성문화된 규률이건 성문화되지 않은 규률이건 할 것 없이 사회 성원은 누구나 다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규률에 대한 자각적 태도란 규률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피동적 태도가 아니라 규률의 의의를 인식하고 그 준수를 자기의 의무로 간주하며 자원적이며 적극적으로 준수하는 태도이다. 이것은 곧 공동 생활에 대한 배려를 의미한다. 규률 준수에서의 자각성은 그의 도덕적 품성의 척도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 속에서 사회 질서와 공중 규률이 자각적으로 준수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 생활은 질서 있고 유쾌하게 영위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사회 질서와 공중 규률을 위반함으로써 사회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다.

사회 질서와 공중 규률을 자각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흔히 그것을 《시끄러운 일》로 또는 《부자유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머리 속에 개인주의에 기초한 일제 및 봉건적 낡은 사상 의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일》이라 하여 교통 질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교통의 안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몇 배나 더한 《시끄러움》을 초래할 것이며 《시끄러운 일》이라 하여 공공시설을 망탕 다룬다면 그것을 다시 건설하던가 수리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시끄러움》을 빚어낼 것이 아니겠는가?!

규률 준수를 《부자유스러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자유에 대한 견해가 문제로 된다.

맑스주의가 가르치는 바와 같이 만일 자유가 인식된 필연이고 인간은 필연을 인식하고 그에 적합하게 행동함으로써만 자유롭게 된다면, 모든 사회 성원들이 사회적 규률의 객관적 필연성을 깊이 리해하면 할수록 그는 그만큼 더 자유로운 것이다. 이런 경우에 규률은 인간을 구속하는 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과 그의 요구와 그의 규범에 대한 자발적이고 자각적인 복종으로 될 것이 아닌가?! 《규률은 곧 자유이다》라는 말은 옳은 말이다. 규률과 자유는 실제상 일치하는 것이다. 집단의 리익을 존중하며 그 속에서 개인의 리익과 자유를 찾는 집단주의 정신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는 규률에 대하여 그 어떤 부자유도, 구속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임무는 사회 질서와 공중 규률의 의의를 철저히 인식하고 그를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자각적으로 준수하는 데 있다. 이것은 장기적인 교양과 사상 단련의 과정이다. 오직 전체 사회 성원에게 사회주의 의식이 침투될 때에야만 자각적 규률성은 그에게 있어서 《시끄러운 일》과 《부자유스러운 일》이 아니고 어디서나 준수되는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될 것이다.

사회주의적 례절을 준수하는 것은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의 고상한 품성으로 된다.

사회 력사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례절도 변화하며 사회의 각이한 계급들은 각각 다른 내용의 례절을 갖는다. 봉건 사회에는 봉건 지배 계급이 요구하는 례절이 있었고 자본주의 사회에는 부르죠아지가 요구하는 례절이 있다. 계급 사회에서는 통치 계급의 도덕이 지배적 도덕으로 되는만큼 통치 계급의 례절이 지배적으로 통용된다.

지배 계급은 자기의 계급적 리익에 부합되며 자기의 통치를 유지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례절을 수립한다. 우리 나라 봉건 사회에서 량반 통치 계급이 수립한 《례》에는 당시의 여러 신분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 군신간, 부자간, 형제간, 부부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관혼 상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번잡한 행동 규칙이 인위적으로 규정되여 있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례절에 따라 행동할 것이 강요되였으며 그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규탄되였으며 엄중한 형벌까지 지게 되였다. 봉건 지배 계급은 이러한 례의 제도로써 인민 대중을 구속하고 자기의 통치 체제와 봉건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부르죠아지에게 유리하며 그의 지배와 사회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복무하는 례절이 수립되였다. 부르죠아지가 수립한 《신사 숙녀의 례절》이나 《개성의 자유》 등은 모두 부르죠아지의 신분적 우월성을 보장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에 복무하는 사명을 가진 것이다.

모든 착취 계급이 제정한 례의의 공통적 특성은 그의 허위성에 있다. 우리 나라의 훌륭한 고전 작품 연암 박 지원의 《량반전》과 《범의 꾸중》은 량반 통치 계급의 례절의 허위성을 신랄하게 폭로 규탄하고 있다.

모든 계급 사회에는 지배 계급의 례절 외에 근로 인민의 례절이 존재하였다. 착취 계급의 례절은 번잡하고 허위로 가득차 있으나 근로 인민의 례절은 소박하고 성실한 것이 특징이다. 피압박 근로 대중의 투쟁 행정에서 형성된 이러한 례절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행함과 함께 계승되여 발전하였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정권을 장악한 후에는 새 사회 절서에 적응한 자기의 인민적 례절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우리 인민에게는 사회주의 제도에 적응되는 례절이 요구되며 이 례절은 우리의 정치, 경제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주의 원칙이 지배하게 되며 사람들의 관계는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관계로 된다. 이러한 관계에 토대한 사람들의 례절은 허위적일 수 없으며 그것은 사람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다.

우리 근로자들 속에서는 새로운 도덕 풍습과 례절이 점차 확립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서는 례의가 없는 행동이 때때로 표현되고 있다.

부모, 선생, 년장자, 직무상 웃사람에 대하

문화 예술과 오락 및 군중적 체육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생활에 대하여 응당한 배려를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

공산주의 도덕의 원리는 사회 성원의 개인 생활을 그의 사회 활동과 관련 없는 것으로 보려는 온갖 시도를 배격한다. 공산주의 위업에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한 혁명 전사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혁명 전사의 고상한 품성은 정치 생활에서나 개인 생활에서나 다 공산주의 위업에 복무하는 생활 태도를 견지하는 데 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사회적 행동이건 개인적 행동이건 그의 사상 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즉 개인 생활이 불견실한 사람이 정치 생활에 견실하리라고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 《레닌의 회상기》에서 그룹쓰까야는 레닌이 제 2 인터나쇼날의 《수령》들의 2중 도덕과 2중 인격을 분개하여 비난한 데 대하여 쓰고 있다. 그들은 사회주의의 지지자로 자처하면서 사생활에 있어서는 추악한 부르죠아적 생활 양식에 물젖어 있었던 것이다. 력사의 발전은 부르죠아 도덕을 지키고 있던 제 2 인터나쇼날의 두목들이 혁명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맑스주의적 립장에서 리탈하고 마지막에는 자본주의에 굴복하여 로동 계급의 반역자로 전락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야 말았다.

우리는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정치적으로 타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 생활에서도 극도로 부화한 인간 쓰레기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개인 생활에서의 불견실성이 제때에 극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만회할 수 없는 정치적 타락에로 발전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보는 바와 같이 개인 생활은 결코 개인의 일만이 아니며 또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심중히 대하여야 할 문제이다. 쏘베트 시인 울라지미르 마야꼽쓰끼는 《공산주의는 비단 밭에서 농사 짓고 공장에서 로동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공산주의는 집 밥상머리에도, 교제에도, 가정에도, 일상 생활에도 있는 것이다》라고 정당하게 노래하였다. 사회 집단과 사회 여론의 의무는 사람들의 개인 생활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관심을 돌리며 그것을 방임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도와 방조를 주는 데 있다.

우리는 우선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를 확립하며 생활에서 문화성을 제고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요구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의 중요한 과업이며 현 시기에 있어서 계급 투쟁의 한 측면을 이루는 심각한 사상 개조 운동이며 전 인민적 운동이라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 위업에 헌신할 각오를 한 우리 당원들에게 그의 일체 생활을 혁명 임무에 복종시키며 정치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문화성을 제고함에 있어서도 인민 대중의 선봉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낡은 사상 의식과 낡은 생활 태도를 가지고서는 번개같이 달리는 천리마의 대렬에 들어 설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활 목적과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세계관과 사회주의적 도덕 품성으로 무장하며 사상 단련에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 대중의 숭고한 혁명적 과업이다.

현 시기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 공황

최 무 용

부르죠아 어용학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은 멸망하여 가는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하여 온갖 기만적 선전을 하여 왔다. 그들은 전후 시기에 있었던 자본주의 경제의 일시적 《호경기》를 미끼로 하여 《인민적 자본주의》이니, 《자본주의의 영원한 번영》이니 하면서 근로 대중을 기만하려 하였다. 이러한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과 발맞추어 수정주의자들은 《현대 자본주의는 그 성격이 달라졌으며》 또한 독점 자본주의하에서 국가는 《초계급적 성격》을 띠며 《조절자적 통제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떠벌리면서 자본주의를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생활은 이러한 부르죠아 대변인들의 《리론》들이 전연 부당하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 전후에 있었던 자본주의 경제의 일시적인 《호경기》는 끝났으며 전후 시기 처음으로 되는 자본주의 세계의 과잉 생산의 주기적 공황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오늘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경제 공황은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바로 이러한 사실은 전 세계 인민들 앞에 다시 한 번 자본주의 제도의 부패한 본질을 폭로하며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뚜렷하게 실증하여 주고 있다.

현 시기 자본주의 세계의 공황은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의 가일층 심화에 기초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만큼 앞으로 제국주의 내부의 제 모순을 더욱 첨예화시킬 것이며 국제 정세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가 세계적 범위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현 시기에 있어서 일어나고 있는 금번 자본주의 세계 경제 공황이 그들에게 더욱 엄중한 정치 경제적 후과를 가져다 줄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미국에서의 심각한 경제 공황

과잉 생산의 주기적 공황으로서 특징 지어지는 미국의 현 경제 공황의 엄중성과 파국적 성격은 각 방면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것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ㄱ, 공업 생산의 급격한 저하

작년 8월부터 금년 4월에 이르는 8개월 간에 공업 생산은 13% 이상 감소되였으며 금년 1. 4 분기에 중공업을 포함한 일련의 중요 공업 부문에서 생산 및 채취량은 20—30% 축감되였다.

생산 능력이 일방적으로 팽창된 강철 및 이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오늘날 판로난으로 전례 없는 극심한 생산 감퇴가 지속되고 있다. 금년 3월에 강철 생산은 작년의 같은 달에 비하여 41% 이상 감소되였으며 석유, 전재, 농기계, 직물, 의류 및 고무 생산도 현저히 감소되였다. 이전의 부분적 혹은 중간적 경제 공

황기들인 1948—1949년과 1953—1954년에 공업 생산이 각각 10.5% 및 10.2% 축소되였던 것을 상기한다면 현재의 공황이 그 당시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전후 미국 경제 공황들의 심도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쇠퇴 비률)

	1948—1949	1953—1954	현재(3월 포함)
공업 생산	10.5	10.2	12.9
강철 생산	32.2	36.0	42.0※
승용 자동차	8.2	35.4	45.2
건물 착공	21.9	10.0	16.7
취업자 수 (농업 제외)	5.1	3.5	4.0
실 업	2.5배	3 배	2.7배
개인 수입	4.9	1.4	1.7
소매 상업	4.1	5.9	6.7
가공공업주문접수건수	18.3	16.0	22.8※
주문 건수	34.1	40.3	25.6※
상품 퇴적	10.4	7.4	3.2※

※—2월까지

ㄴ. 조업률의 혹심한 저하

오늘날 조업률의 혹심한 저하는 미국 경제에서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 있는바 이것은 중소 기업들을 파산케 하며 실업자의 대군을 낳게 하고 있다. 금년 2월 현재 미국 기업소들의 조업률은 70%에 불과하며 금속 공업 부문은 50%(강철 공업은 54%), 자동차 공업 부문은 이보다도 훨씬 낮다. 이전의 두 차례의 경제 공황 시기에 기업소들의 최저 조업률은 82%였었는데 금번에는 공황의 초기인 작년 9월에 이미 이와 동일하였으며 그 후 급속도로 저하되고 있는 것은 현 미국 경제 공황의 엄중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ㄷ. 실업군의 증대

실업의 급격한 증가는 경제 공황의 심도를 보여 주는 바로메터로 된다. 금년 5월 현재 미국에 있어서의 완전 실업자 수는 무려 550만 명으로 16년래 최고 기록에 달하였다. 이 밖에 300만 명의 반 실업자가 있는바 그 가족을 합하면 실업자는 미국 인구의 22% 이상에 달하고 있다.

미국의 완전 실업자 수 (1,000명)

1938—10390	1951—1879
1941—5560	1952—1673
1942—2660	1953—1602
1943—1070	1954—3230
1944— 670	1955—2654
1945—1040	1956—2551
1946—2270	1957(1)—2882
1947—2142	1958(2)—5400
1948—2064	
1949—3395	(1)은 4월
1950—3142	(2)는 3월

ㄹ. 농업 생산의 감퇴와 운수, 통상량의 저하

미국의 현 경제 공황은 그것이 공업 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 운수 및 통상 분야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큰 엄중성을 띠게 되였다. 소맥 파종 면적은 1948년에 2,700만 헥터, 수확고는 3,100만 톤이였었는데 판로난과 농산물 퇴적의 증가로 말미암아 1957년에는 파종 면적이 1,700만 헥터로 격감되고 이에 따라 수확고는 2,100만 톤으로 축감되였다.

철도 수송량은 1935—1939년을 100으로 하여 1956년 1월 현재로 137이였던 것이 작년 3월에는 100으로 떨어졌다. 이전에는 대외 시장의 확대가 공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방도로 되였었으나 자본주의 세계 시장의 축소와 영국, 서부 독일 및 기타 국가들과의 경쟁의 첨예화로 말미암아 이러한 확대는 더욱더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작년 2월에 비하여 금년 2월 현재 수출은 27.6%나 대폭 축소되고 수입은 3% 감소되였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 공황의 서막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경제 공황은 전체 자본주의 세계 경제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 공황의 서막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세계 공업 생산의 절반 이상, 금 보유량의 약 3분의 2, 전체 자본 수출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공황이 자본주의 세계의 전반적인 경제에 영향을 주며 이 나라들에서의 경제 공황을 자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날 미국 이외의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공황의 징조가 성숙되였거나 또 성숙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경제 공황과 서로 엉키여 자본주의 세계의 전반적 과잉 생산을 초래케 하고 있다.

오늘날 공업이 발전된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고정 자본의 갱신이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 건설 투자가 감소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미국으로부터 생산 수단을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되였으며, 시장의 소비 능력 이상으로 확대된 생산 능력은 제품의 판로를 더욱 절실히 요구하게 되였다. 동시에 미국 자신도 과잉 생산으로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판로난은 특히 서구라파 국가들에서 생산을 침체시키는 외부적 요인으로 되고 있다.

미국에 의한 공업 원료 가격의 대폭 인하는 미국의 공황을 타국에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되고 있다. 1957년에 미국은 원료 및 상품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시켰는바 이로 인하여 주석 가격은 7%, 인조 고무는 23%, 동은 33%, 사탕은 21%, 양모는 20%로 각각 폭락되였다. 이것은 동남 아세아, 라틴 아메리카 제국을 포함한 원료 생산 국가들에 대한 큰 타격으로 되였다.

공황은 공업 뿐만 아니라 운수 특히 선박 공업을 포괄하고 있다. 통상 거래의 감소는 많은 휴업 선박들을 산생시키고 새로운 선박 주문을 격감시키고 있다. 금년 3월에 300만 톤 이상의 선박이 휴업하고 화물 수송은 20%나 감소되였다.

또한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통상 결손이 증대되고 재정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오늘날 서구라파 경제는 생산 장성 템포의 침체, 일련의 상품들의 과잉 생산, 인플레의 심화, 통상 결손의 증대 및 화폐 사정의 악화, 실업의 증대 등을 특징으로 한다.

카나다. 금년 첫 4개월 간에 강철 생산이 작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4% 저하되였으며 수출은 2억 딸라 이상 감소되였다. 실업자는 60만 명 이상이나 된다.

영국. 공업 생산이 지난 3년 간 답보하였다. 기계 제작, 선박 건조, 유색 금속, 건재와 같은 주요 공업 부문들에서 생산 감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방직 공업 부문도 작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감퇴되였다. 금년 5월에 강철 생산은 작년 5월에 비하여 15% 감소되여 최근 4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4월 말 현재 휴업 선박수는 156척으로서 그의 총톤수는 729,000톤에 달하였다. 1년 전에는 그 톤수가 불과 36,000톤이였었다. 통상 결손은 1957년에 6억 1천 800만 파운드로서 전년에 비하여 9% 증가하였다. 금 및 딸라 보유량은 7억 8천만 파운드에 불과한데 원료 수입에 의하여 식민지 및 자치령으로부터 진 채무는 35억 파운드나 된다. 파운드의 구매력은 전전의 37%에 불과하다. 생활비는 작년에 4%, 최근 2년 간에 7% 등귀되였다. 2월 현재 실업자는 47만 2천 명에 달하였는바 이는 지난 5년 이래 최고 수'자로 된다.

불란서. 이 나라에서도 경제 공황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바 특히 알제리아 전쟁의 계속은 경제 및 재정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에 군사비는 예산의 4분의 1인 1조 4천억 프랑을 헤아렸다. 전후 5차나 평가(評價) 인하를 실시한 결과 프랑 가치는 20%나 떨어졌다. 대외 통상에서는 만성적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1957년에는 4,925억 프랑으로서 그 전년보다 19% 증가하였다. 적자를 메꾸기 위하여 작년에 정부는 5천 500억 프랑의 지폐를 발행하였는바 이것은 인플레의 가일층의 격화를 가져 왔다. 물가는 지난 해에 10.1% 등귀되였다. 파쑈 두목인 드골은 집권후 알제리아 전쟁을 확대시키려고 발광하고 있다. 그는 자금을 염출하기 위하여 다액의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이 근로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서부 독일. 공업 생산 템포가 지완(弛緩)

되고 있다(1956년에 8%, 1957년에 5%). 작년에 건재 생산이 19% 저하되였으며 전후 처음으로 기본 건설 투자의 장성이 정지되고 건설량이 4% 축감되였다. 6월 현재 체화 석탄량은 800만 톤(30년래 최고)에 달하였다.. 작년에 물가가 4.5% 올라 갔는데 금년 2월에 필수품 가격은 10—15% 등귀하였다. 군사비 지출의 증대로 말미암아 1958—1959년에 결손이 70억 마르크에 달할 것이 예견된다. 실업자 대렬이 격증하고 있으며 금년 1월 초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143만 2천 67명에 달하였다. 이는 작년 12월의 2배로 된다.

이태리. 금년 4월에 공업 생산은 3월에 비하여 2,5% 저하되였다. 5월 현재 생활비는 작년 5월에 비하여 7% 등귀하였다. 예산 결손은 지난 해에 6,789억 리라로서 1956년에 비하여 5.6% 증가되었다. 현재 2백만 명 이상의 실업자 대군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다.

일본. 일본도 과잉 생산 공황을 겪고 있다. 공업 생산은 1956년 7월에 비하여 1958년 1월에 이르는 기간에 12% 저하되였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월에 이르는 사이에 강철 및 금속 공업 생산은 20%, 유색 금속은 40—55%, 석유 공급은 30% 감소되였다. 기업소들의 조업률은 1956년 9월에 83.2%였던 것이 작년 9월에는 75%로 줄었다. 선박 및 방직 공업 부문은 급격히 쇠퇴하고 있다. 체화 상품은 1957년 10월에 1년 전에 비하여 41.5% 증가하였다. 기시 정부가 미국을 추종하여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에 대한 수출 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과의 통상 협정을 파기한 것은 오직 일본 자체에 엄중한 후과를 가져다 주고 있는바 작년에 통상 결손은 5억 3천만 딸라에 달하였다. 금년 1월에 53만 명에 달하였던 완전 실업자 수는 3월에 85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동남 아세아, 라틴 아메리카 제국. 원료 가격의 폭락, 미국의 원료 구입 축소에 의한 이 나라들의 수출의 감소 등은 생산의 감퇴, 외화의 감소, 이에 따르는 실업의 장성을 초래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오늘날 전체 자본주의 세계에 경제 공황이 일어날 수 있는 실질적 제 조건이 성숙되였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나라들은 이미 그에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현 경제 공황의 근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세계가 부딪치고 있는 경제 공황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며 《일시적》인 성격을 띤 것도 아니다. 과거 루차 있었던 경제 공황과 마찬가지로 금번의 공황도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 관계,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간의 모순이 첨예화된 데 기본적 근원을 두고 있다.

전후 미국에서 독점 자본의 지배가 강화된 조건하에서 생산의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확장과 제한된 시장간의 모순은 첨예화되여 이것이 경제의 파괴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바로 자본주의 경제 발전 법칙에 의하여 미국의 현재와 같은 경제 공황은 필연적이며 불가피한 것이다.

전후 시기 미국 및 일련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시적 《번영》을 초래케 한 경제의 군사화, 고정 자본의 갱신,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의 강화, 대외적 경제 팽창 등과 같은 요인들이 이미 포화점에 달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는 작용할 수 없게 된 반면에 그것들은 공황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전환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 국가 경제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제도의 고유한 모순을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군사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충진된 경제는 더 엄중한 공황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을 미국의 경제 발전과 현 공황이 실증해 주고 있다.

미제는 세계 제패를 참망하면서 제 2차 세계 대전후 곧 군비 경쟁을 강화하며 전쟁 준비를 촉진시키는 길에 들어 섰다. 이에 대하여는 전후 13년 간에 미국 정부가 지출한 군사비가 무려 3,986억 딸라에 달한 사실만을 들어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경제의 군사화는 전후 미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바 군수품 생산의 급속한 장성이 미국과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업 생산량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지난 날의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독점 자본가들은 긴장 상태의 격화, 타국에 대한 무력 침략, 경제 팽창에서 공황으로부터의 출로를 찾는다. 조선에 대한 침략 전쟁, 인도지나, 대만에 대한 침략, 인도네시아, 레바논에 대한 간섭, 《트루맨주의》, 《마샬안》, 《아이젠하워주의》 등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 된다.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전쟁과 관련하여 격화된 군비 경쟁에 의하여 1948—1949년의 미국의 경제 공황은 일시 정지되였다. 조선 전쟁과 관련된 경제의 군사화는 우선 군수 공업과 그와 련결된 중공업 부문의 일방적인 확대를 초래하였다. 1950년부터 1954년에 이르는 기간에 군수품 주문을 위한 국가 지출은 4배 이상으로 증대되고 1950년 말부터 1955년 12월에 이르는 기간에 2만 개의 군수 기업소가 창설되였는바 그 가치는 320억 딸라로서 매년 64억 딸라가 투자된 셈이다. 유색 및 흑색 금속 기계 및 운수 수단 등의 생산은 확장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산의 일방적인 확장과 생산력의 비정상적인 장성은 공업 생산 지수의 증대를 가져 왔지만 그의 엄중한 후과를 불가피하게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제의 군사화는 군수 공업에 일정한 기간 활기를 띠우게 하나 소비품 생산 공업은 락후 또는 침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군사비의 증가는 세금의 증대, 물가 등귀 등으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며 구매력의 격심한 저하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군사화에 의하여 감소되는 소비품 생산의 가일층의 쇠퇴를 초래하며 불피코 생산 수단 생산에 역향(逆響)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경제의 군사화의 측면에서 고찰할 때 현재의 경제 공황이 1948—1949년 당시보다 극심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로써 설명된다.

ㄱ, 이전과 같이 군수품의 판로를 확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군사비 지출은 매년 국민 소득의 14%를 넘으며 군수품 생산은 전례 없이 팽창되고 있다. 그러나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전 세계 인민들의 평화 옹호 운동은 미제로 하여금 전쟁을 함부로 일으킬 수 없게 하고 있으며 미국 《동맹국》들에서도 경제 및 재정 형편이 악화되였으며 외화 부족을 느끼고 있는 조건하에서 군수품 판매는 더욱 곤난하게 되고 있다.

ㄴ, 원자 및 수소 무기를 포함하여 주요 군수 공업 부문의 생산 기구는 현재 이미 기본적으로 창설되였다.

미제는 나토, 바그다드 조약, 세아토 등 침략적 군사 뿔럭들을 통합하여 이 뿔럭에 망라된 지역과 남조선, 대만 등에 로케트 기지를 창설하고 로케트 무기와 유도탄 등을 배치함으로써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을 포위하는 군사 기지망을 개편하여 새 원자 전쟁의 발판으로 삼으려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군사 전략 체계는 로케트 및 유도 무기를 생산하는 미국의 군수 공업 부문의 확장을 초래한다. 그러나 이 확장은 일부 기타 낡은 군수품 생산 부문을 현저히 축소시키고 있다. 1952—1953 회계 년도에 무기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미국의 예산중 로케트 무기는 불과 2%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58—1959 회계 년도에는 그것을 24%로 증가시킬 것이 예견되였다. 그러나 1958—1959 회계 년도에 상용 무기 및 기자재에 대한 지출은 그 예견 회계 년도보다 15억 딸라 감소시킬 것이 계획되고 있다. 그리하여 금년 1월에 전체적으로 미국 공업이 받은 새로운 주문은 작년 1월보다 55억 딸라가 감소되였는바 더우기 이 주문의 대부분은 로케트 및 유도 무기 생산 부문이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문은 로동자를 그리 많이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것은 취업과 조업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전반적 생산 지수의 증가를 자극할 수도 없다.

ㄷ, 세금의 증가와 신용 체계의 긴장성은 군사 지출이 인플레를 격화시키는 때로 이르게 하고 있으며 바로 군사 인플레의 존재하에서 공황이 발전하고 있다.

맑스주의 리론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은 공황의 폭발을 일시 지연시킬 수 있게 하지만 공황의 불가피성을 조건짓는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일반적 법칙의 작용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현재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고정 자본의 갱신 과정은 기본적으로 끝났으며 따라서 이 때까지 미국 경제를 유지해 온 이 요인은 자기의 역할을 놀 수 없게 되고 있다. 30년대의 경제 공황과 데플레 그리고 제 2차 세계대전에 의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의 기본 생산 시설은 실제상 15—20년 간 갱신되지 못하였다. 전쟁 기간에 파손된 고정 자본의 현대화는 1951—1954년 간에 비로소 전개되였는바 이것은 설비 생산을 현저히 증가시킬 수 있게 하였다.

제 2차 세계 대전후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고정 자본의 갱신을 촉진시킬 수 있던 전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ㄱ, 공업과 운수(철도, 자동차 특히 해운), 주택, 공업 시설 분야에서 전쟁에 의한 혹심한 파괴를 복구할 필요성.

ㄴ, 전쟁 시기에 과도하게 조업한 선박 수리소들의 재건을 포함하여 경제의 각 분야에서 재건 및 수리를 진행할 필요성.

ㄷ, 공업, 운수 및 상업망에서 최소 한도로 축감된 예비를 회복할 필요성.

ㄹ, 상품에 대한 증대되는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성.

ㅁ, 기본 건설 투자에 대한 요구.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산을 확장시키고 거액의 리윤을 획득하여 유리한 립장에 서게 된 미국은 전후 서구라파 국가들에 대한 금속, 기계, 석탄 및 알곡(소맥)의 최대의 공급자로 되고 국내에서 기본 건설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였다.

고정 자본의 갱신과 그 후에도 계속된 기본 건설 투자의 증가는 1953—1954년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즉 자동차 생산, 주택 건설, 각종 기계 제품의 생산 증대는 강철 및 고무 공업 등의 생산 증가를 초래케 하고 나아가서 전반적 공업 생산 증가를 가져 올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서는 고정 자본의 갱신과 기본 건설 투자의 증가로 말미암아 생산 능력은 전례 없이 확장되였으나 이에 소비 능력이 상응하지 못하고 과잉 생산이 조성되고 있다. 전후 미국에서 생산 능력은 년 평균 8% 증가하였으나 생산량은 3% 증가한 데 불과하다.

독점 자본가들은 로동 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며 소생산자들을 령락시키며 경쟁자들의 많은 기업소들을 병탐합으로써 새로운 자본 투하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공황으로부터의 출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내부적 력량으로써 조성된다. 그러나 불경기, 경기 증진 및 호경기에로의 이행과 함께 재생산 조건의 파괴, 불균형, 생산의 장성과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좁은 한계간의 모순은 다시금 증대된다. 그 결과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새로운 과잉 생산 공황이 불가피적으로 닥쳐 오는 것이다.

로동자들의 가일층 빈궁화에 의한 지불 능력 있는 수요의 축소는 현 경제 공황의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와 그들의 생활 수준의 현저한 저하는 근로자들의 수입 및 구매력의 상대적 저하와 국내 시장의 상대적 축감을 초래하고 확대되는 생산을 소화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황을 심각화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전체 세대의 거의 3분의 2는 수입이 최저 생활비도 안 된다. 매개 세대의 수입중 3분의 1은 군사비를 위한 세금으로 빼앗기고 있다.

제조 공업 부문 로동자들의 로임 폰드는 금년 3월에는 공황전 최고 수준을 보인 1956년 12월에 비하여 16.4%나 떨어졌다. 생활비 지수는 1957년 3월의 118.9로부터 금년 3월에 123.3으로 등귀하였으며 공황전 최고 수준을 보인 1955년 5월에 비하여 8% 등귀하였다. 이것은 실질 임금의 현저한 저하를 의미한다. 지난 해 말부터는 로동자들의 명목 임금도 격감되기 시작하였으며 농민들의 수입도 대폭 감소되였다. 중 소 기업의 파산 건수는 매일 평균 45—50개에 달하고 있다. 금년 1, 2월에 백화점의 판매량은 3% 저하되였다. 생산을 자극하기 위하여 미국 독점 자본가들이 사용한 신용 대부와 외상 판매는 소비자의 미래의 구매력까지 고갈시킴으로써 국내 시장의 축소를 더욱 촉진시켰다.

이 모든 것은 생산과 소비간의 모순을 증대시키고 과잉 생산의 공황을 심각화하고 있다.

국내 시장 뿐만 아니라 대외 시장의 축소 및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경제 형편의 전반적인 악화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요를 감소케 하고 있으며 경제적 팽창에 의하여 공황을 모면하는 것이 더욱더 곤난하게 되였다.

전후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것을 리용하여 경제적인 대외 팽창의 길에 들어 섰으며 《대외 원조》 등 각종 수단으로 상품 판매 시장과 세력권을 확장하였다. 1947년에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의 수출에서 32.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이 비률은 저하되여 지난 몇 해 동안에는 약 20%를 차지하는 데 불과하였다. 더우기 자본주의 세계에서 경제적 경쟁의 첨예화는 미국의 통상을 감소케 하고 있는바 금년 2월에 수출은 작년 3월에 비하여 27.6%, 수입은 작년 10월에 비하여 16.2%가 감소되였다.

현 경제 공황의 정치적 및 경제적 제 후과

이상에서 렬거한 일련의 요인들에 의하여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제국을 휩쓸고 있는 현 경제 공황은 더욱 심각하게 될 것이며 자본주의 체계의 지반을 더욱 뒤흔들어 놓을 것인바 따라서 그의 정치적 및 경제적 후과는 거대할 것이다. 자본주의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 공황은 제국주의 독점체들 간의 모순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고 있다.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 국가들에는 자본주의 체계를 보존하며 그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일부 공통적인 리해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이것은 결코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첨예한 정치 및 경제적 투쟁을 배제하지 않는다.

더우기 제국주의의 외적 모순의 경제적 기초는 고률 리윤을 보장하려는 독점체들의 부단한 진출에 있는만큼 이는 판매 시장, 원료 원천지 및 자본 투하 령역의 독점을 위한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결사적인 투쟁을 강화케 한다. 불등가 교환에 의한 독점 리윤과 식민지 예속 국가에 대한 경제적 지배를 보장할 목적을 가진 공업 완제품 특히 생산 수단 판매를 위한 경쟁, 높은 리윤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 수출 령역에서의 투쟁은 오늘날 전례 없는 첨예성을 띠고 있다.

공업 완제품 수출 분야에서 미국, 영국, 서부 독일간에 경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에 일본이 진출하고 있다. 자본 수출에서 영국은 미국의 주요 경쟁자로 되고 있다. 영국은 영 련방 제국에 침입해 들어 오는 미국과 충돌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와 중근동에 자본, 상품 수출을 강화하려고 애쓰고 있다. 구라파 시장 및 북아프리카의 불란서 식민지를 둘러 싸고 불란서와 미국, 서부 독일간에 경쟁이 벌러지고 있으며 서독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미 영과 경쟁하고 있다. 일본도 강한 경쟁자로 나타나 영국을 옛 시장에서 몰아내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서독과도 경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모순과 경쟁은 자본주의 체계를 뒤흔들며 그를 약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난관을 리용하여 경제 공황의 후과를 전가시키려는 미국의 시도와 수출 금지 정책은 이 나라들의 광범한 계층 속에서 불만을 증대시키고 있다. 작년에 영국 및 기타 일련의 서구라파 국가들이 우리 나라와 중국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한 것은 미제의 대외 및 통상 정책에 대한 타격으로

되였다. 오늘날 많은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 계층에서도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오직 자멸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날로 륭성 발전하는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과의 평등적인 통상의 확장에서 활로를 찾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다.

이번의 경제 공황의 발전은 후진 국가들로 하여금 자기의 원료를 팔 수 있는 안정된 시장을 더욱 완강하게 찾게 할 것이다. 오늘날 제국주의 국가 특히 미국은 대외적으로 군사, 정치, 경제적 팽창을 강화하면서 더우기 식민지, 반 식민지 및 기타 후진 국가들에 대한 간섭과 략탈을 강화하고 있다. 그들은 원료 가격을 폭락시키며 이 나라들의 수출을 감소시키는 책동을 감행함으로써 이 나라들의 생산을 억제하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극도로 령락케 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나라들과 미 제국주의 및 기타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의 모순을 첨예화시키지 않을 수 없으며 반제 반식민주의 운동의 앙양을 초래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 세계 경제 공황이 심화되고 확대됨에 따라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 아메리카의 반미 반식민주의 운동은 필연적으로 가일층의 발전을 가져 오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식민지 체계의 완전한 붕괴 과정을 더욱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경제 공황은 제국주의 국가 내부에서의 계급적 모순을 증대시키고 있는바 지배 계층은 공황에 의한 손실을 근로자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리윤을 확보하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공세의 강화는 대중에게 기아와 빈궁을 가져다 주며 로동 계급의 각성과 로동 운동의 앙양을 불가피하게 초래케 할 것이다.

현 단계에 있어서 파업의 대중성, 완강성, 전투성 그리고 전 세계 근로자들의 강화되는 단결, 경제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과의 밀접한 결합——이 모든 것은 국제 로동 운동의 발전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자본주의 체계를 근저로부터 뒤흔들어 놓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후 멸망에서 허덕이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은 이러한 위기 특히 경제 공황의 출로를 대외적으로 경제적 팽창과 모험적인 침략 전쟁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강력한 사회주의 진영의 존재와 반전 평화 옹호 력량의 단합은 전쟁 발발을 방지할 수 있게 하는바 모쓰크바 선언에 지적된 바와 같이 《제국주의적인 전쟁 광신자들이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전쟁을 감히 도발하는 경우에는 제국주의는 사멸할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인민들은 그처럼 혹심한 고난과 희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제도를 더는 참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계의 경제 공황은 자본주의의 부패성과 취약성에 대한 선고장으로 되며 불피코 새로운 높은 사회 제도인 사회주의에 의하여 교체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출판물에서

반식민주의 투쟁의 새 단계와 정세에 부합된 조직의 개편*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비서 디. 엔. 아이디트

본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우리가 고찰하는 시기는 국제 생활에서나 국내 생활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변들로 충만되여 있다.

우리는 세아토의 군사 조약에 대한 그리고 수 많은 사실들이 보여 준 바와 같이 무기로써 반혁명 반란 분자들을 도와 주면서 인도네시아 내정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있는 국민당 도당과 미 제국주의자들의 행동에 대한 인민들의 분격이 격증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를 맞이하게 된다.

일반 정치 정세

작년 7월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에 국제 정세 발전에서 두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한편으로는 사회주의와 자유와 평화의 진영이 부단히 강화 확대되여 가며 다른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와 전쟁의 진영이 일층 분렬 붕괴되여 가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만일 현 정세하에서 자본주의 제 국가 경제 쇠퇴의 후과로부터 인도네시아를 구원하기 위하여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인도네시아 인민의 목전에서 매우 현명하게 또 옳게 행동하였었을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그리고 미국에 의하여 지도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떠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의무도 없는 호상 유리한 통상 관계와 경제적 협조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사회주의 제 국가측의 경제 및 기술 원조 제의를 접수 리용하면서 세계 사회주의 시장과의 통상 관계와 경제적 협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늘날 불안정한 인도네시아 경제 형편을 개선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 줌과 동시에 인도네시아로 하여금 현재 인도네시아 인민의 해방 투쟁에 의하여 청산되고 있는 화란 자본의 제압 진지를 대신 차지하는 데 이미 준비되여 있는 미국, 서부 독일 및 일본 자본이 침입할 위험성을 면할 수 있게 도와 줄 것이다. 화란 자본을 배격하면서 동시에 미국, 서부 독일, 일본 자본이나 그 어떤 다른 외국 자본을 받아 들인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또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유해로울 것이다. 이것은 한 쪽 문으로 호랑이를 내쫓고 다른 문으로 사자를 들어 오게 하는 것과 똑 같다.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반식민주의 및 반전쟁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독립한 아세아 및 아프리카 중립국 민족들의 자의식의 장성은 현 국제 정세에 있어서 당연한 일이다. 작년 12월 카이로에서 열린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 국가

---

*1958년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에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6차 전원 회의에서 디. 엔. 아이디트 동지가 한 정치국 총보고 중에서, 전원 회의는 제 5차 및 제 6차 전원 회의 사이에 발생한 조직 및 정치 문제들에 대하여 해답하며 또한 장래 행동 강령을 교시하는 이 보고를 토의 찬성하였다.

단결 회의와 그의 확고부동하고 진보적인 제 결정은 반둥 정신과 반식민주의 및 반전쟁 세력의 가일층의 공고화를 과시한 중요한 시위로 된다. 금년 2월에 콜롬보에서 열린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 국가 녀성 대표자 회의는 아세아 및 아프리카 제 인민의 련대성의 강화와 전 세계 평화의 공고화에 기여한 고귀한 공헌으로 된다.

아세아 인민들의 해방 운동의 가일층의 장성에 초조해진 미국은 《반공산주의 깜빠니야》를 광범하게 진행하며 자기의 파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주로서 복무하는 국내 반동 분자들의 고립의 증대와 민족 해방 운동의 급격한 장성을 보여 준 최근의 사변들은 미국을 선두로 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을 특히 불안케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사변에 놀랜 제국주의 국가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파렴치하게 우리 나라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도네시아 인민도 포함한 각성된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을 예속시킬 수는 없다. 지금에 와서는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침략을 감행할 수 없으며 만일 그런 행동을 감행한다면 보복적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아세아 및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인민들은 고립되여 있지 않다. 독립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은 쏘련을 선두로 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이 중요하고 강대한 성원으로 되여 있는 사회주의 진영의 원조와 지지를 받고 있다.

긴장된 투쟁이 버러지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한편으로는 인도네시아의 튼튼한 국제적 지위를 자각하지 못하고 인도네시아 인민 자체의 력량과 가능성을 과소하게 보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에 있어서 인도네시아 인민의 주되는 원쑤인 화란 제국주의자들의 력량과 가능성을 과대하게 보는 인도네시아의 일부 분자들의 립장은 참으로 어리석고 위험하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원들은 제국주의적 무력 간섭과 파괴 행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결단성을 표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민족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독립적이고 애국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서부 이리안의 해방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고 있는 주안다 정부의 립장과 대외 정책을 환영한다.

작년 7월에 개최된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제 5차 전원 회의는 국내 정치 사변들의 발전을 분석하면서 신국회, 헌법 제정 회의의 창설과 지방에서의 립법 및 집행 기관의 창설로써 특징 지어지는 우리 나라 관리 체계의 민주화가 가지는 중요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는 반식민주의 정신의 장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의도 강조하였다. 이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에서는 특히 《핫타와 그리고 마시우미당 지도부 내의 나르찌라 도당과 사회당 지도자들을 두목으로 하는 반동 분자들이 민주주의와 또한 반식민주의 및 애국주의 정신의 가일층의 발전을 두려워하면서 이 발전을 방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였다. 중앙 위원회 제 5차 전원 회의 이후의 사변 행정은 이 결론이 정당하였음을 전적으로 확증하여 주었다.

국내에서 관리 체계의 가일층의 민주화가 진행되여 쟈바와 다른 일부 도들에서 지방 정권 기관 선거가 실시되였다. 인민 대중의 의식이 장성하였다. 지방 립법 회의 선거가 실시된 모든 도와 군들에서 공산당은 적지 않은 추가적 표수를 획득하였다. 인도네시아 인민의 좌익화 과정을 립증하여 주는 자카르타에서의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다른 지방에서도 지방 인민 대표 회의 선거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도록 공산당원들과 가장 자각적인 근로자들을 고무하여 주었다.

쟈바에서와 다른 일부 도들에서의 지방 립법 회의 선거 결과는 지방 립법 회의와 지방 행정 회의의 구성을 개선케 하였다. 지방 립법 회의에 의한 지방 수석 선거는 인민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특히 공산당 대표들을 이 자리에 올려 세울 수 있게 하였다. 선거된 지방 수석은 관료 기관에 의하여 우로부터 임명되던 도지사나 군수나 면장과 교체되였다. 이와 같은 관리 체계의 민주화는 반동 분자들이 보존하려고 애쓰는 식민주의 잔재인 관료

정권을 축소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조치로 된다.

리아우 군도에서와 남부 스마트라도(道)에서의 지방 정권 기관 선거에서 거둔 공산당의 승리는(공산당 립후보자들은 이 지방들에서의 국회 선거의 결과에 비하여 리아우 군도에서는 66%나 더 많은 표수를 획득하였고 남부 스마트라도에서는 26%나 더 많은 표수를 획득하였다) 마치 공산당이 《쟈바의 정당》인듯이 떠들어 대던 반동 분자들에게 주는 응당한 대답이였다. 이 승리가 가지는 의의는 남부 스마트라에서의 지방 립법 회의 선거가 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와 공산당이 실시한 선거전 깜빠니야에 대한 혹심한 제한의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더욱 커진다. 남부 및 동부 칼리만탄(보르네오) 선거에서 거둔 공산당의 승리는 쟈바에서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공산당이 더욱더 큰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좌익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여 주었다.

인민의 원쑤들은 민주주의의 발전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수중에 중앙 정권 기관을 장악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케 할 것이라는 데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들은 전망을 잃어 버리고 더는 의회 제도를 믿지 않고 의회 밖에서의 정권 장악 방법에 즉 파쑈적 방법들에 자기의 모든 기대를 걸고 있다.

현 정세하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부합되는 인도네시아 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일체 방법을 다하여 진보적 력량을 발전시키며 민족적 통일을 확대 강화하며 전국에 걸쳐 인민의 전투적 정신과 경각성을 높이도록 자기의 적극성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투쟁은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 간의 투쟁이 아니라 반민주주의를 반대하는 민주주의의 투쟁, 반민족적 세력을 반대하는 민족적 세력의 투쟁이다

현 력사적 단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는 자체의 고유한 견해를 가진 세 개의 기본 정치 세력이 형성되여 있다. 첫째 세력은 반동적 보수 세력, 다시 말하여 매판 자본가 및 봉건 지주들이다. 그들은 인도네시아를, 형식상으로만 독립을 유지하고 실제로는 제국주의 앞에 투항하며 외국 대자본가 및 대지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국가로 전변시킬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둘째 세력은 진보적 세력, 다시 말하여 로동 계급과 기타 근로자 층들이다. 이들의 목적은 1945년 8월 혁명의 과업들을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다. 세째 세력은 중간 세력, 다시 말하여 민족 부르조아지이다. 그들 역시 8월 혁명의 제 과업의 완전한 수행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민족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 주리라고 타산하고 있다.

진보적 세력과 중간 세력은 제국주의 및 봉건 제도를 반대하는 민족적, 민주주의적 세력이며 따라서 혁명적 세력이다. 그런데 한편 보수 세력은 반민족적 및 반민주주의적 세력이고 제국주의와 봉건 제도의 동맹자이며 따라서 반동적 세력이다.

이 3대 세력에 대한 공산당의 정치 로선은 진보적 세력의 발전을 촉진하며 중간 세력과의 동맹을 유지하며 보수 세력을 고립시키는 데 귀착된다. 당은 이 정치 로선을 실천하면서 자체의 력량을 강화하며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 전선의 결속을 강화하며 반민족적 및 반민주주의적 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당이 실시하는 이와 같은 정치 로선의 결과 진보적 세력은 더욱더 발전하고 있으며 민족적 통일이 공고화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 반동 세력은 더욱더 고립되여 가고 있다.

민족적 및 민주주의적 세력의 단결을 위한 로선의 성과적 실현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이 획득한 정치적 자유의 정도 여하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당의 경험은 말하여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자기 앞에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적 권리를 옹호하고 강화하며 확대할 것을 일반적 과업으로서 제기하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근로 대중의 특히 로동 계급과 공산당의 정치적 자유를 청산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만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근로 대중과 특히 로동 계급 및 그의 당에게는 그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종의 반공산주의 단체들을 조직하는 데 열중하고 있으며 공산당과 진보적인 대중 단체들의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은 제국주의자들로부터 빌려 온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우익 민족주의자들을 자기 편에 이끌어 보려고 애쓰고 있다. 이에 있어서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민족적 자주권》을 위하여, 《인류의 해방》을 위하여 행동하고 있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일부 민족주의자들(중간 세력 중의 우파)은 미국이 지도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대외 정책의 사촉을 받은 마시우미당 및 인도네시아 사회당 지도자들의 반공산주의적 구호에 추종하고 있다.

부르죠아 민주주의 혁명 시기에 민주주의적 제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의 민족 부르죠아지의 불철저성에 관해서는 일찌기 1905년에 레닌이 다음과 같이 쓴 바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으로서의 부르죠아지의 처지 자체는 불가피적으로 민주주의적 개혁에서의 그의 불철저성을 산생한다. 계급으로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처지 자체는 그로 하여금 철저한 민주주의자로 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부르죠아지는 프로레타리아트가 강력해 질 위험성을 내포하는 민주주의적 진보를 두려워하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프로레타리아트가 잃게 될 것은 철쇄 뿐이며 그가 민주주의의 도움으로 얻게 될 것은 전 세계이다》.

인도네시아 민족 부르죠아지가 로동 계급과 근로자 일반이 《너무 많은 민주주의》를 획득하지나 않을가 하고 아주 불안해 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은 보여 주고 있다. 바로 여기에 우익 민족주의자들과 보수 세력이 즐겨 체결하는 각종 협약의 내막이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으로서의 민족 부르죠아지의 처지는 그로 하여금 진보적 세력과 반동 세력 사이에서,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 사이에서 춤을 추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각지에서 반동적 부르죠아지와 우익 민족주의자들 사이에 《공산주의에로의 길을 막으며》, 《빨갱이 위험성으로부터 쟈바도를 구원하며》, 《자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한 공개적인 또는 비밀적인 협약들이 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 비렬한 협약들을 체결함으로써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민족주의자 일반의 총정치 로선으로부터 리탈되고 있다. 그들은 반제국주의 및 민주주의 로선으로부터 리탈하고 있으며, 민족적 자주권에 관하여 공포한 조항도 포함되여 있는 《판짜—실라》의 제 원칙을 반대하여 나서고 있다. 간단히 말하여 우리 나라의 현 력사적 단계에 있어서 《반공산주의》라는 구호는 민족적 통일을 파괴하며 오늘날 강화되여 가고 있는 반제국주의 투쟁을 약화시키자는 구호, 민주주의를 청산하자는 구호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현 력사적 단계에 있어서 《반공산주의》 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반민주주의적 및 반민족적 정책이다. 이 정책은 인도네시아 인민의 전반적 지향에 완전히 배치된다.

반민주주의적 활동의 다른 형태는 정당을 없애 버리려는 부르죠아지의 요구인바 이 정책은 수카르노 대통령의 민주주의적 견해, 1945년 8월 혁명의 목적 그리고 전체 인도네시아 인민의 요구에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정당들을 해체하려는 정책은 전제 정권, 파씨즘 정권을 수립하는 길을 닦으려는 정책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인민과 더불어 공산당은, 우리 나라를 반 세기 전으로 후퇴시키는 이 반동적 정책 즉 의회 밖에서 행동하며 정변을 일으킬 광범한 가능성을 주는 이 정책을 반대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오직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대함으로써만 의회 활동과 대중 운동을 결합시키는 필

수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

다음으로 아이디트 동지는 서부 이리안 해방을 위한 투쟁에 관한 문제, 화란 자본가 기업소들의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의한 접수 문제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로동 계급은 반동의 위협을 물리치고 1957년 12월 3일부터 이 대책을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아이디트 동지는 서부 이리안의 해방 문제에 대하여 두 가지 태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 하나의 태도는 미국에 대한 원조 요청과 관련된 태도인데 이것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둘째 태도는 투쟁에 귀착되는바 이 혁명적 태도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의 화란 자본주의의 경제적 압제를 반대하는 이 투쟁의 하나의 구체적 형태는 화란 기업소들을 접수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로동 계급은 화란 기업소들을 접수함으로써 조국의 독립과 전체 민족의 리익을 위한 민족적 투쟁에서의 자기의 전위적 역할을 다시 한 번 시위하였다. 로동자들은 이 기업소들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이관하기 위하여 접수하였는바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부는 로동 계급의 정부는 아닌 것이다.

반동 분자들은 로동 계급의 이 결정적인 대책을 가리켜 《무정부주의적인》 것이라느니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대책에 대하여 갖은 공격을 다 가하여 왔다. 이 깜빠니야 시기에 동요하는 중간층들은 로동자들의 혁명 운동의 장성과 관련하여 불안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로동자들의 혁명 운동이 《좋지 않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동 분자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중간층들을 우익에 기울어지도록 하려고 기도하였는바 그들은 중간층들이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을 반대하여 나서는 것까지도 기대하였던 것이다.

진정한 혁명가들과 개인주의적 동요 분자들 사이에 투쟁이 버려지기 시작하였다. 진정한 혁명가들은 접수한 기업소들을 공화국의 소유로 할 것을 요구하였다. 로동자들이 이 기업소들에 대한 통제 및 지도에 참가함으로써 생산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며 생산품은 정부의 조절적 역할하에 전체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 대렬내의 개인주의적 동요 분자들은 주장하기를, 접수된 기업소들은 그들 자신의 수중에 장악되고 로동자들은 기업소 접수 이전에 처해 있던 그 처지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며 이 경우에 유일한 변동으로서는 이 기업소들의 소유자가 기왕에는 화란 대자본가들이였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인도네시아 부르죠아지로 교체되도록 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 부르죠아지는 로동자들의 금후 활동을 제한하기 위하여 발악하여 왔으며 또 앞으로도 발악할 것이다. 그러나 로동자들의 활동이 제한을 받고 안 받는 것은 로동자들에게 달려 있다. 로동자들은 자기의 운명을 부르죠아지의 예속에 내맡기지 않았으며 또 앞으로도 내맡기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 당의 령도하에 모든 민족들의 리익에 복무하는 도상에 가로 놓인 온갖 장애물을 청산하면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1957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는 자기 성명에서 로동자들의 용감한 행동과 그리고 서부 이리안을 종국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하여 화란 식민주의자들의 기업소들을 접수한 정부의 립장을 환영 지지하였다.

혁명가들의 견해로서는 오늘날 화란 제국주의자들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화란측이 담판의 진행을 원하며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양도할 것을 동의할 경우에는 접수한 기업소들이 국유화되며 혹은 화란측이 서부 이리안의 양도에 관한 담판의 진행을 완강히 거부할 경우에는 이 기업소들이 몰수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장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화란이 담판의 진행을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화란 제국주의자들은 그들이 경제 분야에서 종래에 차지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특권을 더는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로동자들과 인도네시아 인민의 행동과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의 립장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였으며 그것은 또한 외국의 경제적 지배로부터 해방되여 자국의 민족 경제를 창설

하려는 인도네시아 인민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것이다.

정부가 화란 대자본가들의 기업소들을 접수한 조치는 광범한 농민 대중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 화란 제국주의자들의 기업소의 로동자들에 의한 접수(차후에는 정부에 의하여 법적으로 인정됨)는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의 신년 축하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로 인도네시아 로동자들과 인민은 그들이 이미 1945년 8월 혁명 시기에 나타낸 자기들의 력량을 재확인하였다.

둘째로 인민은 적의 력량의 제한성을 알게 되였는바 이것은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에게 화란 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이 불가항적이 아니라는 신심을 북돋아 주었다.

화란 대자본가들의 기업소들을 접수하여 그것들을 정부에 이관하는 조치는 인도네시아 로동 계급의 투쟁에 있어서와 그리고 민족적 투쟁에 있어서의 로동 계급의 지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극히 중요한 시책으로 된다.

현 시기에 있어서 서부 이리안을 인도네시아 공화국에 복귀시키기 위한 투쟁은 화란 대자본가들의 경제적 지배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며 제국주의적 앞잡이들의 파괴 활동을 국내에서 진압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투쟁의 성과를 보장하는 첫째 가는 조건으로 되는 것은 광범하고도 강유력한 민족적 단결이며 인민과 군대와의 긴밀한 협조이다.

혁명 정세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당 지도 기관들을 개 선 하 자

사건의 발전이 인도네시아 인민의 리해 관계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산당의 활동을 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사업의 강화에로 돌려야 하는바 이는 민족 통일 전선의 력량을 가일층 장성시키는 담보로 된다(인도네시아 공산당은 100만 명의 당원을 자기 대렬에 망라하고 있다——편집부주).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로동자, 농민, 청년, 학생, 인테리, 로병(老兵), 도시 빈민 및 어민들 속에서 당 사업을 일상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대중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에서 당은 튼튼하고도 강력한 로농 전선을 수립하는 데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당의 대중과의 련계의 공고성, 대중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어떠한 난관이든지 극복할 수 있는 필수 조건으로 된다.

반식민주의 투쟁의 새로운 단계와 그리고 급속히 발전하는 사태와 관련하여 모든 혁명적 조직들은 개편되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우선 당 중앙 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하급 단체 위원회에 이르는 우리 당 지도 기관들이 반드시 개편되여야 한다.

아이디트 동지는, 정치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 사이에 지도부를 대신하며 인도네시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총비서에 의하여 지도될 기관으로서 정치 위원회 상설 위원회를 창설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그는 중앙 위원회 비서국이 당 규약에 의하여 앞으로 중앙 위원회의 일상적 사업을 취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중앙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들의 지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위원회 위원들, 지역 위원회 상무 위원들 및 기타 당 간부들의 겸임을 감소시킬 데 대한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겸임의 감소는 당 일'군들을 간부로 등용하는 사업을 정돈하는 데 방조를 줄 것이다.

만일 투쟁에서 장성 단련된 새 간부들을 대담하게 지도부에 등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당과 그리고 당의 모든 요소(要所)들을 공고히 할 수 없을 것이다. 간부를 등용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부 지역 위원회들의 립장에 결정적인 비판을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여 그것을 이 위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위원회들이 대중의 모든 요구에 응할 수 없게 된다면 그것은 더 엄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험은 부족하나 당에 아주 충직하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사심 없이 사업하고 있는 많은 청년 일'군들이 있다. 위원회들이 옳게 지도하면서 그들을 대담하게 등용한다는 것은 오로지 긍정적인 의의만을 가질 것이며 당의 리익과 대중들의 투쟁에 부합될 것이다.

다음 문제는 중앙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간의 련계의 강화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중앙 위원회 비서국의 보조 기관으로서 몇 개의 군도(群島) 뷰로와 그리고 지역 위원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군도 뷰로를 통하여 중앙 위원회와 련결되여 있는 도(島) 위원회가 창설되였다. 의심할 바 없이 중앙 위원회에 직접 복종하는 군도 뷰로와 도 위원회들이 창설됨과 더불어 지역 위원회들과 도 위원회들은 중앙 위원회의 지도에 보다 민감하게 되며 당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군도 뷰로와 도 위원회의 창설만으로써는 아직 중앙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 데 부족하다. 중앙 위원회 대표들의 정기 출장 또는 지역 위원회들을 직접 방조하기 위한 중앙 위원회 일'군들의 현지 파견 그리고 또한 정치 정세와 위원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지역 위원회 대표들을 중앙 위원회에 소집하는 사업 등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우리들은 《상부로부터 하부로》의 련계에 주력하면서 《상부로부터 하부에로 그리고 하부로부터 상부에로》의 련계를 실현해야 한다. 《상부로부터 하부에로》의 련계를 실현한다는 것은 시찰하기 위해서와 또는 중앙 위원회의 보고자로서 총회에 출현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기간 이러저러한 위원회 앞에 제기된 난관을 해결하는 데 참여하며 하부로부터의 비판에 신중히 귀를 기울여 그 비판 가운데서 일체 옳은 것을 찾아내며 결함을 시정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취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당 세포와 당 그루빠를 방조하는 데 크나큰 주의를 돌려야 하며 하급 당 단체들이 점차 대중의 적극적인 조직자 및 지도자로 되며 자기 지방들의 대중을 지도함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 정세의 급속한 발전에 상응하게 당의 활동을 개편함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또한 위원회, 국, 뷰로, 부서, 중앙 위원회 비서국 기구 및 기타 당 기관들의 생활 및 활동을 정상화하는 문제이다. 회의의 정상적 진행, 합리적인 사업 분공, 결정 집행에 대한 검열, 총화 및 경험의 일반화의 필요성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반식민주의 투쟁의 새로운 단계에 상응하게 자기의 모든 지도 기관들의 사업을 개편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당의 일반적 호소를 대중의 구체적 요구와 배합시킬 줄 알아야 하며 당이 인도네시아 대중의, 우선 로동 계급의 기둥으로, 향도적 력량으로 되도록 전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우리 당과 대중의 운동을 하나의 강유력한 전일체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당의 모든 지도 기관을 강화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당 단체를 강화해야 한다.

당의 제 1차 3개년 계획을 수행하는 길로 보다 확고히 나아가자

조직 분야에서와 간부 육성 분야에서의 제 1차 3개년 계획의 수행은 벌써 거의 2년 간이나 실현되여 왔다. 당은 자기 활동에서 오늘과 같은 앙양을 체험해 본적이 없었다. 간부 육성 분야에서의 이 계획의 실현은 당원들의 거대한 열성과 활기를 불러 일으켰다. 이미 중앙 위원회와 일부 지역들에서는 당 일'군들을 위하여 각종 문제들에 대한 쎄미나르가 진행되고 있다. 현 시기에 있어서 경제 문제가 당면하게 제기됨과 관련하여 경제학 쎄미나르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리론 학습회, 맑스—레닌주의 고전 연구 운동, 문맹 퇴치 운동, 지역 위원회들에 의한 당 기관 잡지의 출판

등 3개년 계획에 예견된 시책들은 아직 불충분하게 수행되고 있다.

3개년 계획의 일부 항목들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원만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들은 계획 수행에서 나타난 결함들을 시정하는 데 남아 있는 시간을 다 리용해야 한다.

제 1차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는 당 그루빠들, 하급 단체들 및 모든 당 위원회들을 단결시키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당원수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서 대중 단체들을, 우선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들의 단체들을 확대시켜야 한다. 당원의 수가 공산당을 지지 투표하는 선거자들의 수에 상응하도록 하게 하자. 닥쳐 오는 제 6차 당 대회를 당 대렬의 장성, 모든 당 단체들의 결속, 문화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사업으로써 맞이하자.

(쏘련 《당 생활》 1958년 제 10호)

끈쓸따찌야

과학으로서의 력사적 유물론

리 지 호

력사적 유물론의 대상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력사 연구, 사회 생활 연구에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확장이며 사회 발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변증법적 유물론을 창시하면서 동시에 맑스주의 철학의 통일된 구성 부문의 하나로서 력사적 유물론을 창시하였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맑스는 철학적 유물론을 심화 발전시켜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그 자연 인식을 인간 사회의 인식에까지 확장하였다》(전집, 제 19권, 조선문 판 3페지).

력사적 유물론은 우선 물질의 1차성과 의식의 2차성에 관한 유물론적 명제와 세계의 가인식성에 관한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사회 생활 및 사회 현상을 유물론적으로 설명하며 또한 유물 변증법적 방법을 사회 생활 연구에 확대하여 사회 력사 및 사회 생활 령역에서 변증법의 법칙이 발현하는 특수성을 천명한다. 그렇기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생활 연구에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확장이면서도 변증법적 유물론과는 다른 자기의 독자적인 연구 대상을 가진다.

력사적 유물론의 연구 대상은 그 범위로 보아 변증법적 유물론의 연구 대상보다 좁다. 그것은 력사적 유물론이 오직 사회 생활 및 사회 현상의 령역만을 자기의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력사적 유물론의 법칙과 범주도 사회 생활에서의 변증법적 유물론의 법칙과 범주의 단순한 재생이 아니다. 사회 생활 연구에 변증법적 유물론의 제 명제와 그 방법을 확대하여 력사적 유물론은 새로운 과학적 범주들을 작성한다. 례컨대 변증법적 유물론의 범주인 《물질》과 《의식》은 력사적 유물론에서는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의 범주로 대체되고 있다.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력사적 유물론은 변증법적 유물론과 밀접한 련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와는 다른 자기의 독자적인 연구 대상을 가지고 있다.

력사적 유물론은 또한 사회 발전의 일반적 법칙을 연구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사회 생활 및 사회 현상의 개별적 측면, 사회적 제 관계의 이러저러한 측면만을 연구하는 개별적 사회 과학들과는 구별된다.

례컨대 정치 경제학은 사회의 경제적 제 관계의 발전 법칙을 연구하며, 법률학은 국가와 법의 발생 발전을 연구하며, 언어학은 특수한 사회적 현상으로서의 언어의 발생 발전의 법칙과 그 역할을 연구한다. 이렇게 개별적 사회 과학들은 사회 생활의 이러저러한 개별적 측면, 개별적 현상들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대한 전일적인 정경을 천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생활의 개별적 측면만을 연구하는 개별 과학들과는 달리 전체로서의 사회 발전 법칙을 연구하며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을 호상 련관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그의 내재적 필연적 련계를 밝히며 사회 발전의 일반적 법칙을 천명한다.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에 관한 가장 전일적인

설명을 주는 일반적 리론이며, 또한 복잡한 사회 생활, 사회적 현상들을 정확하게 연구하는 유일한 과학적 방법으로 된다.

력사적 유물론은 개별적 사회 과학들의 방법론적 기초로 되고 있는 동시에 또한 개별적 사회 과학들의 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즉 력사적 유물론은 개별적 사회 과학들이 달성한 성과에 기초하여 자체의 기본 명제들을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부단한 발전에 따라 더욱더 자기의 기본 명제들을 발전 풍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력사적 유물론과 개별적 사회 과학들은 호상 유기적으로 통일되여 있으며 호상 의존하고 있다.

력사적 유물론이 개별적 사회 과학들의 방법론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 사회 과학들은 력사적 유물론의 원칙들에 의거해야만 사회 생활의 이러저러한 개별적 측면에 대한 합법칙성을 천명할 수 있다. 만일 개별적 사회 과학들이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과 방법에 의거하지 않는다면 복잡한 력사적 사건중에서 사실의 진상을 료해할 수 없고 그 발전 법칙을 정확하게 천명할 수 없으며, 무수한 우연적인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합법칙성(필연성)과, 특수성의 뒤에 숨어 있는 전체성(보편성)을 간파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의 연구는 사회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 부문에 종사하는 학자들과 모든 실천 활동가들에게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면 력사적 유물론은 대체로 어떠한 문제들을 취급하는가?

력사적 유물론이 취급하는 문제들은 사회 발전에 관한 문제들과 관련되는 일련의 중요 문제들과 사회의 제 현상간의 본질적 련계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러한 문제들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로 사회의 면모,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 제 조건 특히 그에 있어서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한다.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은 사회의 면모, 사회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며 또 한 사회 제도로부터 다른 사회 제도에로의 사회의 발전을 규정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은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 즉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변증법적 호상 관계를 전면적으로 취급한다.

둘째로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경제 구성에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한다. 사회 경제 구성은 소여 사회의 성격과 면모 및 그 발전 수준을 전면적으로 보여 준다. 그렇기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은 소여 사회 경제 구성의 제 요소들 간의 호상 관계, 매개 요소들의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천명하기 위하여 토대와 상부 구조의 호상 관계, 상부 구조에 대한 토대의 결정적 역할과 토대에 대한 상부 구조의 반작용, 토대와 상부 구조의 교체의 합법칙성, 사회적 의식의 제 형태와 그 역할 등을 연구한다.

세째로 사회 발전의 추동력에 대한 문제이다. 력사적 유물론은 계급 사회 발전의 추동력으로 되는 계급 투쟁에 대한 문제 특히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에 관한 문제를 각 방면으로 연구한다. 그리고 계급 사회의 사회 경제 구성의 교체는 혁명을 통하여서만 진행되는바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혁명에 대한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며 특히 사회주의 혁명 문제를 심오하게 연구한다.

사회 혁명에 대한 문제는 국가 문제와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여 있다. 때문에 국가의 계급적 본질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깊이 연구하며 특히 프로레타리아 독재에 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명한다.

네째로 사회 력사의 전진을 추동하는 사회적 력량에 관한 문제이다. 력사적 유물론은 력사의 창조자는 인민 대중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인민 대중은 생산, 계급 투쟁, 문화 등 각 분야에서 결정적 역할을 논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천명하는 동시에 력사 발전에서 개인이 노는 역할도 구체적으로 해명한다.

력사적 유물론은 상술한 바와 같은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단순히 리론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실천과 밀접히 결부시키면서 연구한다.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은 공산주의의 과학적 기초이며 로동 계급과 그의 전위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전략 전술의 리론적 기초로 되고 있다.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오늘날 자기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을 더욱 창조적으로 적용 발전시키면서 그것을 더욱더 풍부화시키고 있다.

력사적 유물론의 발생

일반적으로 새로운 사상, 리론은 항상 일정한 사회 력사적 전제 조건들과 선행 인류가 축적한 사상 리론적 기초 우에서 발생한다. 력사적 유물론의 발생도 이 일반적 원칙에서 례외로 될 수 없다.

첫째, 사회 력사적 전제:

19세기 중엽에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첨예한 모순을 나타냈다. 이것은 1825년부터 시작된 자본주의의 첫 경제 공황이 실증하여 주었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모순은 날로 심화되였는바 이미 그 당시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로 그를 대체하는 것이 사회의 성숙된 요구로 제기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의 심각화에 따라 계급 투쟁도 첨예화되였다. 로동 계급은 이미 독자적인 정치적 세력으로써 력사 무대에 진출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로동 운동도 날로 장성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과 계급 투쟁의 첨예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인식을 더욱 똑똑히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우선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거대한 사회적 생산력을 창조하였고 그 생산 규모를 부단히 확대시켰으며 사회의 면모를 급격히 변동시켰는바 이것은 사람들의 시야를 넓히게 하였으며 사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력사적으로 볼 수 있게 하였으며 사회 생활을 고정 불변의 것으로가 아니라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변증법적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은 거대한 생산력을 창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편으로는 도시와 농촌의 대립,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의 대립을 더욱 첨예화시켰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곤난케 하였다. 자본주의적 경제의 발전은 이와 같이 사회 생활에 일련의 변화를 산생시켰고 사회의 면모를 개변시켰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사회 생활, 사회 발전에 있어서 경제의 결정적 역할을 뚜렷이 인식할 수 있게 되였다. 과거에 사회 발전의 요인들에 대하여 피상적으로 연구하던 그러한 학자들도 경제적 조건의 변화가 사회 발전에 대하여 일으키는 작용을 주의하고 연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회에 대한 유물론적 견해의 발생을 촉진시키게 되였다.

동시에 경제적 리해 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일어난 치렬한 계급 투쟁도 사람들의 주의를 끌게 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는 음폐된 봉건적 신분 관계—계급 관계를 명백히 드러내놓았으며 계급 관계를 단순화시켰다. 즉 모든 계급 관계의 기초가 경제적 리해 관계에 있다는 것을 폭로하였으며 그리하여 계급의 존재 및 계급 투쟁의 기초를 명백히 하였고 력사 발전에서의 결정적인 사회적 력량이 누구인가를 명시하였다. 이것은 사회 발전의 추동력에 대한 과학적 리론의 확립을 조건지었다.

이러한 사회 력사적 조건하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력사적 유물론을 창시하였다.

둘째, 사상 리론적 전제:

맑스와 엥겔스는 력사적 유물론을 창시함에 있어서 자기의 선행자들의 사회 학설을 비판적으로 개작 섭취하였으며 긍정적인 것을 계승하였다.

례컨대 자본주의 발전의 상승기에 발생한 영국의 고전 정치 경제학자들——아담 스미스와 다비드 리카도의 로동 가치설, 력사를 계급 투쟁의 각도에서 고찰하려고 한 19세기 초의 불란서 력사가들——티에리, 기조, 미녜예 등의 학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상 시몽, 푸리예, 오웬 등의 학설들은 맑스, 엥겔스가 력사적 유물론을 창시함에 있어서 일정한 의의를 가졌다.

영국의 고전 정치 경제학은 사람들 간의 계

급적 차이는 그 수입의 원천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하였다. 이 견해는 비록 틀린 것이기는 하나 경제적 측면에서 계급들 간의 차이를 분석하려는 기도로 보아 긍정적이였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였으며 그 죄악과 모순을 폭로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환상을 그렸다. 불란서의 력사가들은 사회 현상을 계급 투쟁의 견지에서 보려고 하였다. 그들은 비록 자기의 계급적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계급 투쟁에 관한 과학적인 해명을 주지 못하였으나 계급 대립의 기초를 계급들 간의 물질적 리해 관계의 대립에서 보려고 한 점은 긍정적이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이상과 같은 자기의 선행자들의 사회 학설을 비판적으로 개작하고 그와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학설—력사적 유물론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에 관한 과학에서의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사회 력사에 대한 관념론적 제 견해의 황당성 및 반과학성을 폭로하였으며 사회 과학으로부터 관념론을 종국적으로 극복하였다.

그러면 력사적 유물론과 과거의 모든 사회 학설과의 근본적 차이점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로 과거의 모든 사회 학설들은 례외 없이 사회적 현상들의 근본적 원인들의 구명에 있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념론적이며 형이상학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또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결정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물질적 부의 생산 방식이 사회의 면모 및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을 확정하였으며 사회적 제 현상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과학적 리해를 주었다.

둘째로 과거의 모든 사회 학설들은 사회 발전이 객관적 법칙의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것들은 모두 자연에만 객관적 법칙이 작용하고 사회에는 객관적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였다. 이런 견해들에 의하면 사회적 현상은 어떤 우연의 퇴적이였다. 그러나 력사적 유물론은 자연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고 사회 발전의 일반적 법칙을 해명하였다.

세째로 과거의 모든 사회 학설들은 력사 발전에 있어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리해하지 못하였고 력사는 오직 왕이나 장군, 영웅 등 개인들의 자의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력사적 유물론은 력사의 진정한 창조자는 인민 대중이라는 것을 론증하면서 력사는 어떤 개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였다.

네째로 과거의 모든 사회 학설들은 착취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것이였으며 사회 발전의 법칙과는 배치되는 비과학적인 것이였다. 그러나 력사적 유물론은 피착취 계급—프로레타리아트의 사상으로서 발생하였으며 그들의 해방 투쟁의 사상적 무기로 되고 있다. 따라서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과 일치되고 있으며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리론이다.

이상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력사적 유물론은 과거의 모든 사회 학설들과는 근본적인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력사적 유물론의 발생은 사회에 관한 리론의 발전에 있어서 혁명적인 전환으로 되는 것이다.

사회 발전과 인간의 의식적 활동

사회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법칙에 의하여 발전한다. 이 법칙은 자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있어서도 인간의 의지로부터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법칙은 인간이 그것을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에는 관계 없이 또 그것을 인식하거나 못 하거나를 불문하고 항상 사회에 작용한다.

인류 력사의 발전 과정은 인간의 의지와 독립하여 수행되는 자연사적 과정이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보다 낮은 단계로부터 높은 단계에로의 이행 과정이다.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인류 사회는 원시 사회로부터 노예 사회 및 봉건 사회로 발전하였으며 봉건 사회는 또 자본주의 사회로 발전하였다. 자본주의 사회도 인류의 전 력사적 과정이 그러한 것처럼 필연적으로 더 높은 사회인 사회주의 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사회주의는 이미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망라하는 많은 나라들에서 실현되고 있다.

사회 생활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현상도 우연적으로 산생되는 것이 아니다. 례컨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발생되는 경제 공황은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 간의 모순에 의하여 법칙적으로 야기된다. 경제 공황은 또한 광범한 실업군을 산생시키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더욱 심한 빈궁과 고통 속에 몰아 넣는다. 그리하여 이로부터의 해방을 위하여 로동자들은 궐기하여 파업, 시위 등을 단행하는바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고유한 법칙적인 현상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모두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정치적 모순의 심각화, 첨예화의 결과에 산생된다. 이러한 현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러한 현상을 산생시키는 자본주의 제도를 소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자기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의하여 발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법칙을 발견하고 인식하고 연구하며 자기의 실천 과정에서 그것을 리용하여 사회의 복리를 도모할 수는 있으나 법칙을 개변 또는 폐지할 수 없으며 더우기 법칙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과 사회의 법칙은 동일하지 않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의 활동에 의거하지 않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현되지만 사회의 법칙은 의식을 가진 인간들의 능동적 활동을 통해서 발현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사회의 법칙은 또한 자연 법칙과는 달리 매개 나라와 매개 민족의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의 차이, 사회 생활 제 조건의 차이 등에 따라 그 작용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민족,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한 사회 제도로부터 다른 사회 제도로 발전할 때에는 모두 일련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이 작용한다.

일반적 법칙은 모든 사회 발전 단계에 있어서, 모든 사회 형태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작용한다. 례컨대 사회적 존재가 사회적 의식을 규정한다는 법칙, 경제적 토대는 상부 구조에 대하여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법칙, 생산 관계가 생산력 성격에 적응한다는 법칙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어떤 일반적 법칙은 모든 사회 형태에서가 아니라 오직 계급 사회에만 작용하는 것도 있다. 례컨대 계급 투쟁의 법칙이 바로 그러하다. 이 법칙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와 계급적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만 작용한다.

이상과 같은 일반적 법칙과 함께 사회의 특수한 조건을 반영하며 이 특수한 조건에 작용하는 특수 법칙도 있다. 한 사회 형태에서만 작용하는 특수 법칙, 례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산의 무정부성의 법칙은 오직 자본주의하에서만 있을 수 있는 법칙이다. 또 인민 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 법칙은 오직 사회주의하에서만 작용하는 법칙이다.

매개 사회 형태에는 모든 사회 형태에 작용하는 일반적 법칙과 함께 그 자체에 한해서만 작용하는 특수 법칙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호상 긴밀히 련관되여 있다. 이 관계는 일반적인 것과 특수적인 것의 변증법적 호상 관계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호상 관계를 홀시해서는 안 된다. 만일 홀시한다면 우경 기회주의, 수정주의에 전락되거나 교조주의에 전락되게 된다.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바로 모든 나라에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법칙을 홀시하며 부인하고 있다.

사회의 법칙이 자연의 법칙과는 달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능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작용한다는 것은 결코 그 법칙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알맞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전제로 한다.

부르죠아지는 맑스—레닌주의를 비방하면서 사회가 합법칙성, 필연성에 의하여 발전한다면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회가 저절로 발전할 것이 아닌가고 떠벌린다.

맑스—레닌주의는 부르죠아지들이 비방하는

이런 주장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 하면 맑스—레닌주의는 사회가 객관적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이 법칙을 파악한 인간들이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투쟁은 통일되여 있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은 력사적 필연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의 당들은 로동 계급에게 사회 발전 법칙을 인식시키며 동시에 그들을 조직 령도하면서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에 의하여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에로 그들을 궐기시킨다.

로동 계급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하에 자기의 력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로동 계급은 비로소 자기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다.

8.15 해방후 조선 인민이 쟁취한 거대한 사회주의적 전취물들은 조선 로동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와 같이 인민들은 자기의 해방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의하여 특히는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영한 력사적 유물론을 그의 리론적 기초로 하고 있는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죠아 이데올로그들과 로동 계급의 배신자들은 당과 인민을 분리시키려고 갖은 발악과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제 2 국제당의 수정주의자들로부터 현대 수정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정주의자들은 당을 로동 계급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발광한다.

현 시기 사회주의의 기'발 밑에서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수정주의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에서 집대성되였다. 찌또를 위시한 유고슬라비야 수정주의자들은 소위 《민족적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을 외곡하며 부인하고 있다.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들은 그 어떠한 《민족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이다.

력사적 유물론은 그 어떠한 자본주의를 막론하고 그것이 저절로는 사회주의로 변생될 수 없다는 것을 론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은 소위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에로의 자연 변생을 떠들며 나아가서 사회주의 혁명, 프로레타리아트 독재,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등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외곡, 부인하고 있다. 이 추악한 맑스주의의 변절자들은 사회 발전의 합법칙성과 《민족적 특수성》을 대립시키며 《민족적 특수성》에 력사적 유물론의 기본 명제를 용해시키려고 시도한다.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은 매개 나라의 력사적 특수성을 통하여 나타나며 동시에 모든 나라의 력사적 특수성은 이 일반적 합법칙성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력사적 유물론의 일반적 명제들은 매개 나라의 력사적 특수성을 통하여 발현되면서 자체가 더욱더 풍부화된다.

력사적 유물론의 당성과 그의 창조적 성격

력사적 유물론은 로동 계급의 사상이며 리론이다.

로동 계급은 가장 혁명적이며 선진적인 계급이다. 그는 일체 착취의 근원을 청산함으로써만 자체를 완전히 해방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리해 관계는 사회 발전의 방향과 일치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계급과 그의 당은 자기의 계급적 립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로동 계급과 그의 당에게는 자기의 계급성과 당성을 숨길 필요가 조금도 없다. 그것은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가 절대 다수의 인민의 리익과 일치되며 동시에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과도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동 계급의 당성은 곧 과학성과 일치된다. 력사적 유물론은 로동 계급의 당성을 가장 심각하게 표현한다. 그는 자체가 로동 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리론이라는 점을 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하게 적극적으로 선포한다.

력사적 유물론은 사회의 토대와 상부 구조에 이르는 모든 사회적 현상을 계급적 견지에서 고찰하며 로동 계급의 리해 관계의 견지에서 평가한다.

이렇게 력사적 유물론은 리론과 실천을 통일시키면서 로동 계급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는 견지에서 부르죠아 반동 리론들과 비과학적 견해들을 반대하여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한다. 바로 여기에 력사적 유물론의 철두철미한 계급성, 당성이 표현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부르죠아지와 그의 사상가들은 소위 객관주의를 표방하면서 당성을 부인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의 과학이 마치 《초계급적》 성격을 가진다고 떠벌린다.

부르죠아지와 그의 사상가들이 과학의 당성을 부인하고 소위 무당성과 객관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자기들의 계급적 리익과 절대 다수의 인민 대중의 리익이 근본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르죠아지는 절대 다수의 인민을 착취하면서 자기들의 행동과 리론이 마치도 모든 사람의 리익을 옹호하는 것처럼 기만하기 위하여 당성을 부인하며 소위 객관주의와 과학의 《초계급성》을 표방하는 것이다.

사회의 합법칙적 발전 행정은 부르죠아지의 리익과 근본적으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들은 객관적 법칙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의 리익을 위하여 현실을 외곡하며 사실을 기만한다. 례컨대 현 시기 제국주의 독점 부르죠아지와 그의 앞잡이들, 수정주의자들은 현대 자본주의는 이미 계급적 모순이 《청산》되여 있다고 떠벌리면서 《인민적 자본주의》라는 구호로써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르죠아지와 그의 사상가들은 객관적 사실을 외곡하여 자기들의 리해 관계와 일치되는 《리론》을 꾸며낸다.

부르죠아지와 그의 사상가들이 주장하는 소위 《객관주의》와 《무당성》은 부르죠아지의 계급성을 표현한 것이다.

부르죠아 무당성과 객관주의는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정력을 마비시킨다. 때문에 맑스—레닌주의 과학, 리론은 무당성, 객관주의를 배격하며 그의 본질을 철두철미 폭로하는 것을 자기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면 력사적 유물론의 창조적 성격을 살펴 보기로 하자.

맑스—레닌주의 리론이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과 같이 력사적 유물론도 과학적 리론이며 과학적 인식과 혁명적 활동의 방법인 것이다.

과학적 리론과 방법인 력사적 유물론은 창조적 성격을 풍부히 가지고 있다. 력사적 유물론의 창조적 성격은 우선 그 리론이 불변의 것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성과와 혁명 투쟁의 경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실천적 활동, 경험 등에 의하여 부단히 발전하여 내용이 풍부해진다는 데서 표현된다.

력사적 유물론은 맑스, 엥겔스에 의하여 창시된 이후 레닌에 의하여 더욱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되였다.

레닌은 상승하는 자본주의로부터 죽어 가는 자본주의—제국주의 시기의 새로운 력사적 조건들을 분석한 토대 우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리론을 더욱 구체화하였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였다.

맑스, 엥겔스는 상승하는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은 여러 나라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며 승리한다고 론증하였다. 그런데 레닌은 제국주의를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은 몇 개의 나라 지어는 한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론증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승리는 레닌의 사상이 옳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또한 레닌은 민주주의 혁명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에로의 계속 혁명에 대한 문제, 혁명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에 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트의 동맹군에 대한 문제 등 기타 많

은 문제들에서 맑스와 엥겔스의 리론을 발전시키였으며 풍부화하였다.

레닌 서거 이후 쏘련 공산당을 위시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 공산당들과 로동당들 및 자본주의 제 국가 공산당들에 의하여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은 더욱 발전되였고 풍부화되였으며 되고 있다.

특히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새로운 정세와 각국에서의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 경험에 기초하여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는 사회주의 혁명의 수행 방도에 대한 문제, 사회주의 건설의 다양한 방도에 대한 문제, 로동 계급의 통일에 대한 문제, 현 시기 전쟁 방지의 가능성에 대한 문제, 두 체계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문제 등을 더욱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

이렇게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은 한자리에 머물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는 생동하는 리론이다.

력사적 유물론의 창조적 성격은 그의 명제들이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며 각이한 조건에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세의 변화와 각국의 구체적 력사적 조건에 따라 그에 적응하게 적용된다는 데서도 나타난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은 각국에서 공통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소여 나라에서 특수성을 가진다. 이로부터 출발하여 각국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칙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동시에 이것을 자기 나라의 특수성에 알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구체적 과정은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과는 일련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의 경험은 모든 나라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당은 항상 우리 나라의 구체적 력사적 제 조건에 적응하게 맑스—레닌주의 원칙 특히는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들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였고 인민의 물질 문화 생활은 급격하게 향상되여 가고 있다.

그러나 당과 혁명을 반대한 종파 분자들은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을 반대하였다.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은 국제적으로 수정주의가 대두하고 국내적으로는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반당, 반혁명적 책동을 시도하였다.

김 일성 동지를 선두로 한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시도를 제때에 폭로 분쇄하였으며 맑스—레닌주의의 원칙과 특히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들을 고수하였다.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옳았기 때문에 인민은 우리 당의 구호에 호응하였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서 력사적인 승리를 쟁취하였다. 때문에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은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 원칙 특히는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의 구현이다.

력사적 유물론에 대한 학습은 우리 당의 문헌의 연구와 분리시켜서는 옳게 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당의 정책과 로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력사적 유물론의 리론을 심오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독자들의 편지

번역 출판 사업은 당 정책을 철저히 반영하여야 한다

번역 출판 사업은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을 비롯하여 쏘련 및 기타 선진 국가들의 과학, 문화 분야의 제반 성과들을 목적 지향성 있게 번역 출판함으로써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과학적 사회주의 리론과 높은 과학, 기술, 문화 등 지식으로 무장시켜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건설과 당면한 기술 문화 혁명 수행을 촉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논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해방 직후부터 번역 출판 사업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면서 이 사업을 강화 발전시킬 데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특히 사상 사업 분야에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한 우리 당 제 3차 대회의 결정은 번역 출판 사업 부문에 있어서도 커다란 발전의 계기를 열어 주었다.

력사적인 우리 당 제 3차 대회는 번역 출판 사업에서 무계획성과 무질서 상태를 퇴치하고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내용의 서적들을 우선적으로 번역 출판하는 방향에서 이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번역 출판 사업 발전을 위한 강령적 지침으로 된다.

그리하여 최근 시기에 이르러 이 부문 사업은 당 정책을 반영함에 있어서 일정한 개진을 보이면서 있다. 례컨대 맑스—레닌주의 고전들을 출판함에 있어서도 전집의 출판 외에 당이 제시하는 현실적 과제에 적응하게 이 고전들의 개별적 론문들과 개별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 단행본들을 출판함으로써 독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과학 기술 서적 번역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의 실정에 알맞는 쩨마들을 선택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적인 서적들을 우리 나라 기업소들의 기술적 제 조건에 맞도록 편역하는 사업들을 진행함으로써 실천적으로 기술 문제 해결에서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문학 예술 서적 번역 분야에 있어서도 쏘베트 고전들과 세계 고전들 및 세계의 진보적 문학 작품들이 우리 나라에 수다히 소개되여 인민 대중의 교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번역 출판 사업에는 아직 시정하여야 할 결함들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가장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번역 출판 사업이 당의 정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적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시기 일부 출판 기관들은 당의 정책과 현실적 제 요구를 잘 연구, 타산하지 못한 데로부터 번역 출판 사업에서 일부 자의성과 무규률성을 나타내였다.

례컨대 공업 서적 출판사는 1957년도에 8건이나 되는 약전 및 체신 부문 서적들을 출판하였지만 기계 공업 및 금속 공업과 동력 공업 부문 서적들은 얼마 발간하지 못하였으며 경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특히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식료 가공 공업에 대한 서적은 단 한 권도 발간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당이 제기하는 매 시기의 과업 실행에 기동성 있게 순응하지 못하는 현상들도 당 정책 반영에서의 중요한 결함의 하나이다.

일부 출판사들이 진행한 경제 도서 번역 출판 사업에서와 일부 문예 도서 출판 사업에서도 그러한 결함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경제 도서 번역 출판 사업에서 제기된 중요

한 과업은 전체 근로자들을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실천을 위한 투쟁에로 조직 동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문에서는 증산과 절약, 내부 예비 탐구 및 기업소 내부 채산제의 강화에 대한 문제 등을 취급한 선진적인 경험 서적들과 리론 서적들에 선차적 주의를 돌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결함은 일부 문학 예술 서적 번역 출판 사업에 있어서 해당 작가의 대표작들을 선정함에 있어서와 쩨마 및 작품 내용에 충실하려는 고려가 부족한 데서도 발로되고 있다.

례컨대 《쉐드린 선집》(조쏘 출판사, 1957년)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 선집은, 쌀띄꼬브—쉐드린의 대표작들은 단 한 건도 취급하지 않고 80년대 후 짜리의 폭압이 강화되던 시기에 쓴 《이야기》들 만을 수록하였다. 만약 착취 계급의 본성을 폭로함에 있어서 높은 예술적 필치를 보여 준 작가의 기념비적 풍자 작품인 《골로블료브 일가의 사람들》 같은 작품을 번역 출판하였다면 보다 큰 의의를 가졌을 것이다.

다음으로 극히 부분적이기는 하나 당 정책과는 거리가 먼 서적들이 번역 출판되였다. 1957년 국립 출판사에서 발행된 《전후 시기의 자본주의 경제》와 같은 서적이 바로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될 수 있다.

이 서적에 수록된 론문들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문제들만을 취급하고 있는 것들인 반면에 자본주의 체계의 전반적 위기에 관한 것들은 전혀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소위 《자본주의 경제 발전》에 대한 환상을 갖도록 하여 주고 있으며 서적의 서문에서는 자본주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승리의 력사적 합법칙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이 모호하게 설명되고 있다.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적인 태도도 번역 출판 사업에서의 커다란 결함의 하나이다. 이것은 일부 출판 일'군들이 원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제목이나 해당한 서평만 보고 번역에 착수하여 출판하는 데서 초래된 현상들이다. 건설 출판사는 1957년도에 《지방 자재를 리용하여 농촌 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서적을 번역 출판하였는바 이 책은 쏘련에서 처녀지 개간 사업과 관련하여 그 지방 토산물인 갈대를 리용해서 집을 짛을 데 대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갈대를 리용하여 집이 아니라 직물 원료로서의 팔프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이 책은 그 제목만 보고 번역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다. 직맹 출판사에서 발행된 번역 서적 《직업 동맹의 주택 사업》도 역시 그러하다.

번역의 기술상 측면에서, 원문의 사상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데서도 일부 번역 서적들이 독자들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례컨대 기술 도서들에서는 정밀하고 정확한 해석을 요하는 기술 공정들이 잘 번역되지 못하여 작업 현장들에서 혼란을 조성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1956년 국립 출판사에서 발행된 《휘발유》라든가, 1957년 공업 출판사에서 발행된 《폐물의 합리적 리용》 및 기타 일련의 서적들이 그러하다.

특히 1957년 민청 출판사에서 발행된 《학창 시절의 이야기》, 1956년 국립 출판사에서 발행된 《동장 철벽》, 1955년에 발행된 《중국 문학 평론집》 등 문예물과 일부 건설 부문 번역 서적들은 번역의 질이 졸렬하며 오역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번역 서적들의 출현은 무능력하거나 무책임한 일'군들이 번역했거나 혹은 일부 편집 일'군들이 비원칙적인 안면 관계로 헙사리 역자 선정을 해버린 데 기인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문법 규범들을 위반하고 원문 순서 그대로 옮겨 놓는 직역식 번역들 특히 문예 작품들의 번역에서 형상성과 예술성을 손상하는 현상들도 퇴치하여야 할 결함들이다.

이는 원문의 내용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출판물의 대중성과 인민성을 상실케 하며 독자들에게 원저작의 진의를 전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일부 외국 문학 작품 번역들이 독자들께서 예술적 흥취를 자아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일부 과학 기술 서적들이 난해하다고 독자들의 항의를 받는 것도 그 대부분의 원인이 이상의 결함들에서 초래된 것이다.

이상에서 번역 출판 분야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결함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상술한 결함들은 무엇보다 일부 편집 일'군들과 역자들에게 있어서 당 정책 연구가 부족하며 당적 책임성이 결여된 데 있으며 또한 일부 출판사들에서 제도와 질서가 미약한 데 있다고 본다.

또한 이 분야에도 반당, 반혁명 분자들의 해독적 행위가 사업에 적지 않은 저해를 주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 건설 출판 분야에서 일부 번역 서적들이 사업에 혼란을 야기시킨 현상들은 바로 박 의완, 김 승화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죄악적 행동과 관련되여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출판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업에 직접 참가하는 출판 일'군들과 역자들의 당적 책임성을 가일층 제고하며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만 번역 출판 사업에서 당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며 우리 나라의 현실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번역 출판에서의 선후차를 옳게 설정하며 형식주의와 교조주의적 편향을 극복하고 목적 지향성과 체계성을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번역 출판 사업의 이러한 개진 문제는, 실천적으로는 번역 출판물의 쩨마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는 문제와 관련되여 있다. 이 사업에 있어서의 쩨마의 정확한 선정 문제는 곧 사업 성과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고리로 된다. 그것은 아무리 잘된 번역 서적이라 할지라도 해당 쩨마의 원문 내용이 우리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적 사상, 리론으로 교양함에 있어서 기여할 수 없거나 또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것이 못 된다면 그 실천적 의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편집 일'군들의 당 정책 연구, 실천을 통한 당성 단련과 동시에 선진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심오한 연구 그리고 전문 일'군들 및 광범한 독자 대중과의 밀접한 련계의 강화를 요구한다.

이와 아울러 번역 출판물의 질을 제고하며 과학성과 인민성 및 대중성을 보장하는 문제가 또한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역자를 옳게 선정하며 그들의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번역 출판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과학 기관들과 창작 단체들, 해당 부문 행정 및 생산 기관들을 이 사업에 적극 인입시키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즉 이런 기관들로부터 쩨마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하며, 유능한 역자들을 이 사업에 추천하도록 방조하며, 출판된 서적의 사회적 평가자로 출현하도록 추동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번역 출판물에 대한 사회적 비판 사업들을 강화하는 문제는 이 사업 발전에서 중요한 추동력의 하나로 된다.

이러한 제반 대책들이 곧 번역 출판 사업에서 당 정책을 철저히 구현하는 길로 되리라고 생각한다.

김 영 렬

미술 출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리 미술 출판물은 그의 직관적 특성 및 선동적인 설득력과 집약성으로서 인민 대중 속에서의 당 정책 교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의 미술 출판 사업은 당의 정확한 문예 정책에 의거하여 자기의 특성을 옳게 리용하면서 부과된 사명을 기본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하였다고 본다.

성과는 우선 그라휘크 쟌르의 발전적 진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라휘크의 핵심으로 되는 쁘라까트 특히 정치적 만화 쟌르의 발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시다고 할 수 있는

바 그 중 《소중한 밀천》, 《리 승만 출마 단장》과 같은 작품들은 아주 성과적인 작품들이다. 이런 작품들에서는 과장의 수법에 기초한 심오한 전형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종래 흔히 볼 수 있었던 도식주의적이며 기록적인 편향들이 극복되고 있다.

서적 장정 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진전이 있었다. 그 중 《시련 속에서》, 《흘러 간 마을》, 《구운몽》 등의 표지들은 그 대표적 실례로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표지들은 서적의 아름다운 《건축적 구도》로 되여 광범한 독자 대중에게 친밀감을 야기시키면서 그들에게서 그 서적의 내용에 대한 깊은 흥미와 관심을 자아내게 한다.

문학적 및 시각적 형상의 심오한 내'적 련관성으로 대중의 교양에 큰 의의를 가지는 그림책 분야에서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땅》, 《대동강》, 《빛나는 앞길》 등을 비롯한 수 많은 성과작들이 바로 그것이다.

미술 출판 사업의 성과를 지적하면서 우리의 고전 대가들과 현대 미술가들의 우수한 작품들을 널리 보급함에 있어서의 성과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미술 출판 사업에는 아직 시정하여야 할 일련의 결함들이 남아 있다. 그것은 우선 우리의 미술 출판물들이 당의 정책들을 인민 대중 속에 침투시킴에 있어서 신속 민활성과 기동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타나고 있다.

례컨대 잡지 《조선 미술》을 들어 보더라도 지난 2개년 간을 통하여 당 정책과 관련되는 론설은 겨우 두 건(1957년 2호, 4호)을 게재한 데 불과하였다. 또한 이 잡지는 그 자체 성격으로 보아 미술 분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 민족적 특성 등 제 문제를 가지고 당 문예 정책을 옳게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토론하게 하는 연단적인 역할을 놀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번역 론문들을 실는 것으로써 자기 사업을 대치하고 있었다.

당은 항상 우리 예술의 민족적 특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민족 고전의 훌륭한 전통들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문에서도 우리의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아름다운 색채와 고상한 무늬들을 우리 시대의 취미와 감정에 알맞게 발전시키려는 창작적 열성이 부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일부 미술가들은 고전에 대한 깊은 연구와 리해가 없이 그것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였다.

이와 아울러 일부 미술가들의 창작적 안일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미술 서적 출판 사업에 예술적 숙련이 부족한 아마츄어 화가들이 많이 인입된 사정으로 하여 지난 시기 예술성이 졸렬한 표지, 삽화, 삽도들이 허다히 출판되였다. 그 몇 가지 실례로, 1957년도 국립 출판사 판 《홍 길동 전》, 1954년도 민주 청년사 판 《홍 길동 전》, 1957년도 국립 출판사 판 야담집 《물 속을 기여서 10리》 등을 표지 부문에서 들 수 있으며, 1957년 8월호 잡지 《조선 녀성》중 《다드미 소리》 및 《행복이라고 말할 것인가》(삽화), 1956년도 국립 출판사 판 《벼 재배 기술》(삽도), 1957년 1—4호, 보건성 중앙 위생 선전관 판 《위생 선전 자료집》(표지와 삽화), 1957년도 농업 출판사 판 《중 소 하천 공사》(삽도) 등을 삽화, 삽도 부문에서 들 수 있다.

서적 장정에서 표현된 창작적 안일성은 색채의 단순성과 일률성에서도 나타나 있는바, 보건 및 문학 예술 부문의 표지 장정에서는 대체로 푸른 하늘색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단조로운 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미술 서적 출판 사업에서 발로되고 있는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바로 독자들의 대상별 고려가 적게 돌려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본다. 국립 미술 출판사가 발행한 그림 이야기책들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자기 대상들의 특성과 맞지 않는 도식성과 비현실성으로 말미암아 독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림 이야기책은 광범한 대중들 속에서 지식에 대한 갈망을 환기시키며 그들을 문화적 재보에 쉽사리 접근시킬 수 있는 전투적인 교양 수단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이야기책들은 현실에의 접근이 부족한 탓으로 하여 당이 제기한 해당 시기의 중요 문제들을 옳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들의 대상을 옳게 선정하는 것과 아울러 부문별, 쩨마별로 다양하고도 균형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도 중요하다. 이 사업은 절대로 편집자들의 개인적 기호나 기성 지식만으로 해결해 버릴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는 광범한 독자 대중의 집체적인 의견과 지혜가 동원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술 서적 출판물들에서는 우리 당의 혁명적 전통을 조형적 형식에서 옳바르게 선전 해설함으로써 대중을 고상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는 사업도 굼뜨게 진행되고 있다.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적 완수를 위하여 선진 기술을 알기 쉽게 해설 선전하는 사업도 불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

미술 출판 사업에서 작품들의 쩨마별 다양성이 결핍되고 있는 것도 주요 결함의 하나일 것이다. 지금까지 출판된 작품들을 보면 산수, 화조, 풍속화들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반면에 인민 대중의 영웅적인 로력적 위훈들을 묘사하는 현대적 쩨마의 작품들이 극히 적게 출판되고 있다.

광범한 대중들에게 미술 작품들을 감상하는 초보적 지식을 주기 위한 간략한 미술 해설 도서를 비롯하여 신인들을 위한 통속 강좌 등 리론—미학적 서적들의 출판 사업도 만족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미술 서적 출판에서 편집자들의 역할은 실로 크며 그들의 책임도 또한 중하다. 그러나 일부 편집자들은 자기의 신중치 못한 태도로 지난 시기 엄중한 리론적 오유들이 있는 론문들과 표절 론문들을 무경각하게 출판하기까지 하였었다.

잡지 《조선 미술》 1957년 4호에 실린 《민족적 형식을 계승하기 위한 몇 가지 문제》라는 론설은 관념론적 오유를 범하고 있으며 또한 1956년 1호에 실린 《단원 김 홍도의 생애와 작품 활동》이란 론설은 1955년도 국립 출판사 판 도서 내용을 표절한 것이다.

미술 서적 출판에서 인쇄 기술의 질 제고 문제는 각별한 의의를 가진다. 물론 우리의 인쇄 기술은 최근 시기에 와서 장족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 부문 사업은 당과 인민의 요구에서 멀리 뒤떨어져 있다.

인쇄 기술의 락후성으로 하여 훌륭한 원화의 진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미술 출판물들이 발간됨으로써 날로 발전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미'적 취미에 원만히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미술 출판 사업의 결함을 지적함에 있어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미술가 대렬에서 적발 폭로된 반당 종파 분자 장 진광의 해독 행위에 의하여 그가 일하던 만화 잡지 《활살》에 얼마간의 결함이 있은 그 것이다. 그것은 주요하게 장 진광의 표절 행위와 관련되여 있는바 그 표절 《작품》들은 표절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를 반당적, 반인민적 방향으로 외곡한 것도 있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결함들을 시정 극복하고 그의 질을 일층 개선함으로써만 우리의 미술 서적 출판물들은 천리마를 타고 전진하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과 보조를 같이하여 나가면서 당의 사상과 의지로 그들을 교양하는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우리의 미술가들과 미술 출판 일'군들이 약동하는 현실 속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 우리 생활의 본질적이며 전형적인 측면들을 옳게 포착하여 신속 민활하게 형상화하여야 할 것이다. 생활의 진리를 간파하는 예리한 눈초리와 거대한 혁명적 랑만주의의 기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미술가들에게 긴요하게 요구된다고 본다.

새 것에 대하여 민감하며 그의 적극적인 지지자로 또한 선전자로 될 때만이 우리의 미

술 출판물들은 자기에게 부과된 영예로운 당적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미술 서적 출판물들의 질을 당과 인민이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일'군들이 레닌적 당성 원칙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창작 방법에 기초하여 자기의 예술적 기량을 부단히 련마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민은 예술적 향기가 높은, 진정으로 아름다운 미술 출판물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의 고상한 심미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출판물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창작품들에 대한 강한 요구성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편집 위원회들의 역할을 높이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제기된다. 창작 방향의 규정, 에스키스 검토, 완성품 합평회에 이르기까지의 전 행정을 거쳐 편집 위원회는 미술 창작 사업에 전적인 책임을 지며 미술 출판물들의 완전한 주인으로 조직자로 되여야 할 것이다.

미술 서적 출판물들의 질은 인쇄에 많이 달려 있는만치 인쇄 기술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김 경 준

《근로자》 제 7호 (루계 제 152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 쇄 1958년 7월 10일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8년 7월 15일

ㄱ—41016 값 45 원

근 간 안 내

레닌 전집 제 21 권

4×6판, 600페지, 값 130원, 발행 9월

본 권에는 1914년 8월부터 1915년 12월까지의 기간에 집필한 레닌의 제 론문이 들어 있다. 이 론문들에서 레닌은 제국주의 전쟁과 국제 사회 배외주의에 대한 투쟁의 기치를 들었으며 전쟁, 평화 및 혁명 문제에 관한 볼쉐위크당의 리론과 전술의 기초를 천명하였다.

《구라파 전쟁에서의 혁명적 사회 민주당의 임무》를 비롯한 수편의 론문은 전쟁의 평가와 프로레타리아 당과 국제 로동 운동의 임무를 중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 2 인터나쇼날의 파산》을 비롯한 수편의 론문은 국제 사회 배외주의와 중앙주의를 폭로하며 제 2 인터나쇼날 파산의 원인을 구명한 것이다.

《로씨야 쥬데쿰파》를 비롯한 수편의 론문은 주로 로씨야 사회 배외주의를 구명한 것이다.

개별적인 한 개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승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처음으로 내린 《구라파 합중국의 구호에 관하여》도 본 권에 들어 있다. 론문 《칼 맑스》는 칼 맑스의 학설을 간명하게 서술한 것으로서 역시 본 권의 중요 론문들 중의 하나이다.

인민 정권 수립과 그의 공고화를 위한 조선 로동당의 투쟁

4×6판, 110페지, 값 26원, 발행 8월

이 책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10주년 기념 출판물로서 조선 인민의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인 조선 로동당이 인민 정권 수립과 그의 공고화를 위하여 어떻게 투쟁하여 왔는가를 풍부한 자료에 의하여 리론적으로 분석 체계화한 서적이다.

이 책의 서술 내용은 조선에서 진정한 인민 정권 수립을 위한 당의 로선, 인민 정권의 수립과 그의 공고화를 위한 당의 투쟁, 조선 로동당의 지도하에 우리의 인민 정권이 수행한 업적과 인민 정권 강화를 위한 금후 과업 등으로 되여 있다.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

4×6판, 84페지, 값 20원, 발행 10월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하여 현재 우리 나라 농촌 경리가 놓여 있는 기술적 토대와 그것을 개조하여야 할 필요성,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를 위한 중요 조건들과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기술적 개조에 있어서의 특성들 그리고 기술적 개조를 위하여 우선 해결하여야 할 과업들을 서술하였다.

이 책은 농촌 지도 일'군들과 특히 농업 협동 조합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이상 책들은 조선 로동당 출판사에서 발행함

1958년 7월